

## 직접연계 단편 모음

1.우상의 눈물 .....	3
2.사하촌 .....	62
3.복덕방 .....	114
4.역마 .....	137
5.두 파산 .....	170
6.유예 .....	202
7.큰 산 .....	220
8.꺼삐딴 리 .....	237

9.오발탄 .....	271
-------------	-----

## 우상의 눈물

전상국

학교 강당 뒤편 으스스한 곳에 끌려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인 그런 무서운 린치를 당했다. 킁소리 한 번 못한 채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 설사 소리를 내질렀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쫓아와 그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토요일 늦은 오후였고 도서실에서 강당까지 끌려가는 동안 나는 교정에 단 한 사람도 얼씬거리는 걸 보지 못했다. 더우기 강당은 본관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아주 까마득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재수파(再修派)들은 모두 일곱 명이었다. 그들은 무언극을 하듯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첩하고 분명하게 움직였다. 기표가 웃웃을 벗어 던진 다음 바른손에 거머쥐고 있던 사이다

병을 담벽에 꺾다. 깨어져 나간 사이다병의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그의 걸어올린 팔뚝에 사악사악 그어갔다. 금간 살갓에서 검붉은 피가 꽃망울처럼 터져 올랐다. 기표가 그 팔뚝을 내 눈 앞에 들이댔다. 훤아! 기표 아닌 다른 애가 말했다. 내가 고개를 옆으로 비키자 결

에 둘러선 서너명의 구두끝이 정강이에쑤인트를 먹였다. 진득한 액체가 허끝에 닿자 구역질이 났다. 오장이 뒤집히듯 역한 것이 치밀었다. 나는 비로소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헤아릴 길 없는 거센 공포로 해서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벼댔다.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바지에서 혁대가 풀려 나간 다음 벗겨져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에 칼끝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 왔다. 나는 그들에게 양쪽 겨드랑이를 잡힌 채 몸부림쳤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칼끝은 상당히 오랜 시간 허벅지에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살타는 냄새를 맡았다. 칼침이 아니라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다섯 군데나 지짐질을 했던 것이다. 소리질러 봐, 죽여버릴 거니, 한 놈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드디어 허물어져 내리듯 의식을 잃어 갔다. 그런 몽롱한 의식 속에서 기표가 씨부려 댄 한 마디 말소릴 놓치지 않았다.

---메시껍게 놀지 마!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이 내게 린치를 가한 이유란 단지 그것이었다. 2학년 재수파들이 나를 첫 표적으로 삼은 것은 내가 그들 눈에 메스껍게 보였기 때문이다.

"유대야, 너 그대로 참을 꺼냐?"

분식집에서 만난 형우가 슬쩍 내 심중을 떠보고 있었다. 내가 입 한 번 벅긋하지 않았는데도 그 소문은 파다했다. 소문이 쉬쉬 떠도는 며칠 동안 나는 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 소문이 학교 선생들에게 알려져 문제가 생길 경우 십중팔구 나는 결단이 나고 말 것이다. 기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그 새끼 악마다"

형우가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충동질했다. 그러나 나는 대답없이 빙그레 웃어 보였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 보였다. 그것은 이미 겪은 우울감 같은 오만감이었다. 나는 나를 충동질하는 형우의 눈에서 자기도 미지에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아울러 내게 대한 선망이 깔려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형우가 기표에게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것은 기표와 같은 배에 오른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 날 편반이 끝나고 키 크기에 따른 각자의 번호와 교실 좌석까지 다 정해졌을 때 새 담임이 된 김선생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66명이 운명을 함께 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전정할 때 역행 가지를 잘라버려야 하듯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1년간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위해서는 서로 사랑과 신뢰로써 반을 하나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는 일이다"

새 담임선생은 과학교사답지 않게 적절한 비유로써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뭔가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안일 속의 1년이었던 것이다.

"고삐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삐를 당겨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해 주기 바란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손에 그 고삐를 쥐어주는 일이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담임선생님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요술을 부려 우리들을 묶고 있었다. 어느 연극잡지에서 완숙한 연출가는 배우 스스로가 연출하도록 유도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대단한 담임을 만났다는 기대로 아이들은 가슴을 부풀이며 앉아 있었다. 14개 반에서 사오 명씩 떨어져 나와 새로이 편성된 새 반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나는 문득 이런 숙연한 분위기가 우습게 생각되었다. 단 며칠 못 가 형편없이 허물어질 아이들이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앉아 담임선생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게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선생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누구니까?"

내가 불쑥 일어나서 말했다. 선장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우리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의 저의를 찢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내 느닷없는 질문에 부스럭부스럭 굳은 몸을 풀고 있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담임이 얼굴 가득 미소를 잡으며 여유있게 나를 훑었다. 반격을 당한 나는 얼굴을 붉히며 엉거주춤 다시 일어나야 했다.

"35번 이유답니다"

"예수를 판 유대遁가, 이스라엘 유대遁가?"

아이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오얏 리, 옥유, 큰 댓자, 이유대입니다"

"좋았어. 이유대군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2학년 13반의 임시 선장이다. 물론 일주일 뒤에는 새선장을 뽑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겠다. 이 배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유대 선장, 내 말의 뜻을 알겠나?"

아이들이 와하하 웃으며 박수를 쳤다. 반장하고 싶어 몸살 난 애라구요. 그렇게 소리지르는 놈도 있었다. 실로 난처한 입장이 돼버렸다. 한낱 농으로 시작한 일이 담임의 임기응변에 의해 꼼짝없이 임시 반장 감투를 쓰게 되었다. 꿈무닐 빼고 어찌고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담임은 첫 만남을 끝냈다. 이렇게 해서 된 임시 반장이 기표의 비위를 사납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어떤가, 약 일주일간 반장을 하면서 느낀 우리반에 대한 소감은?"

담임선생이 가정방문을 나왔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과 집에서 만나는 선생의 이미지는 전연 다르게 마련이다. 학교에서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주는데도 공연히 거북스럽고 몸이 찌부러든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담임선생에게 가정 방문을 당한 뒤로는 독빠진 뱀처럼 맥을 쓸 수 없게 된다.

가정방문을 나온 담임선생은 대개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내려 부심하게 된다.

"얘네 반 아이들의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다고 좋아들 한답니다"

곁에서 엄마가 의례적인 아부의 말을 했고 담임은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못 들은 척했다. 사실 아이들은 좋은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 좋은 선생이란 조건없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가볍게 입밖으로 내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때, 유대가 그대로 반장을 맡는 게?"

이번에는 담임이 엄마의 귀를 겨냥한 말을 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엄마가 거들었다.

"그래요 선생님, 앤 반장하는 게 죽어두 싫다는군요"

뭔가 아쉬워하면서도 엄마는 내 뜻을 따라 주었다. 반장을 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마련이란 내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남 앞에 나서는 일, 남들보다 한 발짝 높은 데 선다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나는 엄마의 극성에 의해 중학교 3년간 반장을 하면서 절실히 체득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게 무서운 구속이었다. 남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보다 남에게 다스림 받는 데서 얻는 마음의 안일이 내게는 더 좋았다. 나는 고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기표 같은 애들이 누리는 지배욕 그 안쪽에 몸을 뒤틀고 있는 고독의 그림자를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본 것 같았다.

"맞습니다. 사실 유대는 반장을 하는 것보다 공부에 달

라붙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깝지만 유대를 위해서 제가 양보할 수 밖에도요"

우리의 담임선생은 일을 요령있게 풀어나가 재치있게 마무리하는 명수였다. 아뭏든 나는 굴레에서 벗어났고 담임 선생의 논리대로라면 누군가 내 대신 희생이 되어야 한다.

"임형우, 개가 반장으로 괜찮지요?"

일주일 동안 그는 우리들을 상당히 깊게 파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안목은 대단했다.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를 알고 있는 담임이었다.

"형우라면 틀림없습니다"

내 말의 꼬리를 잡아 엄마가 꺼들었다.

"형우라니? 오매, 형우하고 또 한 반이 됐냐? 선생님, 애하고 형우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랍니다. 개하고 늘 전교에서 일 이등을 다투는걸요. 그룹 과외도 같은 데서 죽 함께 해 왔고…… 우리 유대가 늘 앞

선 편이긴 했지만…… 그래요, 걀 반장 같은 건 잘할

거예요. 애가 통솔력이 보통이 아네요"

중학교 3년 동안 아들에게서 위대한 통솔력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했던 엄마의 푸념이 깃든 말대로 형우는 반장이 될 만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무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고 생각한 것을 무슨 일이있어도 해 내는 결단력도 대단했다. 학교 당국의 지시에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다가도 어떤 결점이 보일 때는 무섭게 반격을 가하는 용기도 갖추고 있었다. 한 마디로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있었다.

"어떤가, 우리반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없겠지?"

첫 만남에서 담임이 말한 우리들의 항해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역행가지를 귀땀해 달라는 것일 게다.

나는 불현듯 담뱃불에 지짐질당해 아직도 진물이 줄줄 흐르는 내 허벅지를 내보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어찌면 담임도 내 입에서 기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1학년 때의 기표 담임이 기표가 1학년 때 한 번 유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길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엄마 앞에서 반우

를 매도하는 일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기표, 그놈 괜찮을까?"

담임선생이 조심스럽게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내보인 것처럼 불유쾌한 기분이 되어 얼굴을 돌렸다.

"최기표라면 그 1학년 때 낙제해서 한 해 묵었다는 얘 말이구나?"

엄마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 안달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담임 선생한테 전화를 걸곤 했다. 그러나 엄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허벅지의 담뱃불 자국을 알지 못하고 있다. 최기표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기표가 어떤 아이인지를 진정 모르는 어른들에 대해서 내 상처를 내보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맞습니다. 갠 유급한 것도 문제지만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니지요. 왜, 한 눈에 이건 범죄형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범죄형이지요. 음침하고 포악스럽고……1학년 때 개 담임을 한 선생이 그러더군요. 십년감수를 했다고

요. 그러면서 나를 동정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정도면 알쫓가 아닙니까"

"그런 애가 어떻게 여태 퇴학을 안 당했나요. 교칙이 엄하기로 이름난 학교인데……"

엄마가 의아하다는 듯 얼굴에 그늘을 깔았다.

"바로 그겁니다. 이놈이 원래 교활하고 지능적이어서 도대체 제적을 당할 만한 큰 일에는 직접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로 쏙 빠진다 그겁니다. 엉뚱한 놈이 당하곤 하지요. 정학을 몇 번 당하긴 했지만 어떤 결정적 꼬투릴 잡을 수 없으니까 제적을 못 시키는 거지요"

기표가 무서워서, 그의 안하무인한 양끝음이 두려워서 제적을 못 시켰다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사이에 기표에 대해서 이처럼 깊이 파악하고 있다니

---과연 기표는 이름난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기표 얘기를 입에 올리는 담임은 얼굴까지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나는 문득 이제부터 1년간 담임선생과 최기표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질 싸움을 상상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최기표에게 승산이 크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의 담임선생 또한 그렇게 만만치 않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 싸움에 임형우도 한몫 끼어들지 모른다. 그가 어떤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도 꽤 흥미있는 문제일 것이다. 아뭏든 이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네들 싸움을 구경한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놈들이 옛날과 달라서 선생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

담임선생은 엄마와 함께 교육론을 펴고 있었다.

그랬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을 한낱 깔끄러운 존재로 여길 뿐 오히려 그룹 과외선생의 완벽함에 더 매료되곤 했다. 그것은 상대적이였다. 우리들의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도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룹 과외선생처럼 철저하게 얼굴에 첩판도 깔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문제는 지배(支配)에 대한 견해의 다름이였다. 그네들이 옛날 훈장이누렸던 권위가 고스란히 주어주길 바랬고 실상 그러한 권위만이 변화된 가치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였

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인습적 권위에 대해서 코방귀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조직적인 분명한 권위의 다스림 속에 몸을 맡기길 좋아하고 있었다. 그 한가지 예로 우리 엄마는 촌지 봉투로 담임선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그 기표라는 애네 집에 가 보셨어요?"

무슨 얘기 끝인가 엄마가 물었다.

"아직 못 갔습니다. 1학년 때 담임들도 개 부모를 못 만났다더군요. 놈이 중간에서 휘방을 놓은 거지요. 한양천 뚝방동네에 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번지를 제대로 알아도 집 찾아 내기가 어렵다더군요. 어떤 애 얘기론 기표 아버지가 중풍으로 들어누운 폐인이래요"

담임선생은 우리집 방문을 끝내고 다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내게 말했다.

"유대,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입니까?"



"우리반을 위해서 네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네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1학년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선생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치미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였다. <우리>를 위해서 내 힘이 쓰여지고 있다는 기꺼움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자질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받았다. 나는 한낱 <우리>의 힘을 해치는 담임의 첩자였을 뿐이다. 나를 이용해 먹은 담임이 그 사실을 새 담임에게 인계하는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울화통이 터질 일이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나는……"

내 표정이 꽤 굳어 보였던 모양이다. 담임선생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다만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네 도움이 받고 싶었을 뿐이다"

"선생님, 그런 일이라면 임형우가 잘 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염려하는 최기표도 형우가 잘 다스려 나갈 겁니다. 내일 당장 형우를 반장에 임명하세요"

"그럴까? 네 말대로 임형우가 최기표를 잘 다스려 준다면 고맙겠지만…… 내 생각엔 최기표를 부반장에 임명하면……"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담임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얼굴을 뵈히 치어다보다가 음모의 한 귀퉁이를 드러내 보인 무안감을 감추기라도 하듯,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힘은 아예 빼어버리는 게 좋은 거다"

기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것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이렇게 말하려다 나는 그만 두었다. 그 대신,

"선생님, 기표는 유급생인데다 여러 번 정학을 당했잖아요. 그런 아이를 간부로 임명하면 아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기표가 학교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한테 애원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누가 사자를 울 속에 넣어 길들이는 발상을 처음 했는가.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결코 격하시키고 싶지 않았다.

춘계 교내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체육복 외에도 마스게임용 추리닝 한 벌을 사야 했다. 협동심과 조화 속의 미를 창조하는 데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툭툭거리는 아이도 몇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그것을 모두 준비했다. 그러나 우리반에 단 둘뿐인 재수파들은 끝내 그것을 사입지 않았다. 담임이 말했다.

"두 사람 때문에 반의 일사불란한 결속이 깨질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집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담임이 두 사람 것을 준비했다. 받아주면 고맙겠다"

한 아이가 기표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다. 그러나 기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임선생이 그 추리닝을 기표와 또한 아이의 책상 위에 놓은 다음 교실을 나갔다.

담임선생이 교실을 나가기가 무섭게 기표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 추리닝을 찢기 시작했다. 너덜너덜 조각난 추리닝을 쓰레기통 쪽으로 던졌다. 다른 한 아이가 기표처럼 그렇게 추리닝을 찢었다. 기표가반의 총무를 맡고 있는 정수라는 애한테 다가갔다.

"야, 네 추리닝 나 줄 수 없냐?"

정수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수 뒤의 애한테도 같은 말을 했다.

"재도 나처럼 돈이 없어 못 사 입었다. 네꺼 좀 얻자. 줄래?"

정수 뒤에 앉은 애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반 66명은 마스게임용 추리닝을 다 사 입다.

우리가 볼 때 기표는 구제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

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냉혈동물처럼 피가 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뱀처럼 작고 징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자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거짓 착함마저도 나타나 보일 줄 몰랐다. 철저하게 악할 뿐이었다. 평생을 두고 사랑이라는 낱말로 미화될 수 있는 행동거지를 해 보일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런 포악성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독기를 음울하게 깔고 있어 맞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기표를 알고 지내온 아이들(대부분 3학년이거나 졸업했다)은 기표가 것처럼 철저하게 나쁜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애라고 말하는 일도 없었지만 아무도 기표를 욕하지 않았다. 피해를 직접받은 애들마저도 기표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길 꺼려하는 거야.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공포는 그에게 린치를 당할 때뿐이었다. 내가 린치를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것은 양값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것처럼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으면서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았다.

"형!"

동급생이면서도 우리들은 2학년에 재학하는 유급생 20여 명을 꼭 공대했다. 재수파들이 그렇게 대해주길 바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공대하면서도 입이 걸끄럽지 않은 것은 재수파를 이끌고 있는 기표의 위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야, 체육복 좀 빌려 줘라"

재수 없는 아이가 유급생인지 모르고 말을 함부러 놓을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영락없이 얻어터졌다. 일의 특징을 따지지 않는 게 기표가 행하는 악의 특징이었다.

--명칭, 조직의 목적, 모임의 횡수를 모두 대라구!

교실에서의 집단 구타 사건으로 그들이 걸려들었을 때 학생주임은 전말서를 내밀며 소리쳤다. 기표들은 1학년 때부터 음성 씨클로 지목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주임은 번번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하나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재수파는 우리들이 편의상 붙인 이름이었을 뿐이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거나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게 없었다. 동물영화를 보면 밀림을 달리는 맹수떼들은 한 리더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들도 그랬다. 그

냥 기표를 중심으로 그들은 모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발적인 악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뿐이다.

기표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의 담배 은닉처는 교회의 자화상이 있는 액자 뒤쪽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그는 액자 뒤쪽을 더듬어 담배를 꺼냈다. 미션 계통의 학교라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채플 시간을 통해 교목이 인간 양심의 타락을 개탄했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기표는 주변을 대신해서 교실에 남아 담배를 피거나 아이들 도시락을 먹어 버리는 일을 했다. 그는 적어도 하루 두 개의 도시락을 축냈다.

아무도 그것을 항의하지 않았지만 기표 또한 미안해 하는 표정이나 사과의 말을 남기는 법이 없었다.

기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학교 골목을 절뚝거리며 나오던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얘기가 통할 만한 집안의 어떤 형에게 말했더니 그가 대답했다..

--맞아. 신이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악마란 바로 네가 말한 놈처럼 착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악마지. 그러한 순수한 악마만이 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신은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

5월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오후 반장인 임형우가 드디어 재수파한테 당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것처럼 근본이 포악한 기표마저도 형우의 얘기라면 귀를 기울이곤 했었다. 것처럼 형우는 모든 아이들



의 인심을 살 줄 알았다. 형우의 성실성이,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의협심이, 그의 천성적으로 착하게 보이는 외모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다른 반 선생들의 호감을 샀다. 형우는 특히 기표에게 잘 해주었다. 아우가 형을 대하듯 스스럼없이 사랑해 주었다. 그렇다고 기표에게 특혜를 얻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유독 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기표에 대해 갖는 그런 공포 같은 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5월 고사에 이르러 형우가 결정적 실수를 했다.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형우가 반에서 성적이 괜찮은 몇몇 아이를 모았다.

"두 사람을 조금씩 도와 주자"

그가 제의했다.

"이번 시험을 잘 못 보면 또 낙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담임선생님이 말했다"

"나쁜 낙제 제도 때문에 그들이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이도록 방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책임으로

그들을 추궁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한심한 상태의 아이들이다"

"결국 동정하자는 거군"

어떤 아이가 말했다.

"인간을 구제한다는 것은 값싼 동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투고 싶지 않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돕자는 거냐?"

먼저 아이가 물었다.

"조금씩만 돕자"

"결국 부정 행위를 하란 말이나?"

"그렇다. 커닝이 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다. 나는 다만 너희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걸렸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시켜서 했다고 해라"

우리는 형우의 단호한 어조에 감명받았다.

"개들이 우리들의 도움을 거부하면?"

어떤 애가 그런 우려성을 내놓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4월 고사에서 내가 약간 시도 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다"

나는 형우의 눈꼬리에 매달린 교활해 보이는 웃음을 보았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냐? 기표냐,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냐?"

"유대, 네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않겠다"

"대답해라. 대답 못할 것도 없을 텐데?"

내가 빈중거리는 투로 다그쳤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옳은가는 네 자신이 생각해도 된다"

"네 의협심을 존중한다"

내가 간단히 손을 들어버리자 형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씨익 웃었다.

"이왕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만 이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최소한 반장인 내가 기표의 환심을 사려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라.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은 이일이 내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걸 기표가 모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형우의 말을 믿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도 그의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4월 중순께 기표가 3학년 형을 구타한 일로 벌을 받게 됐을 때 학급 전원이 서명해서 기표를 구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형우의 지시에 따라 세심한 계획을 짜고 시험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무슨 과목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등 그들이 또다시 유급하지 않을 정도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우

리들은 빈틈없이 준비했다.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마음에 이다지 큰 기꺼움을 준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3일간 계속되는 중간고사 첫날이었다. 기표와 대각으로 앉게 된 정수가 자리의 이점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바른쪽 허리께로 내리밀어 기표가 보기 좋게 해 주었다. 첫시간에 기표가 정수의 그러한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퇴장할 수 있는 30분이 되자 제일 먼저 답안지를 놓고 나갔을 뿐이다. 시간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둔 아이의 말에 의하면 기표의 답안지는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둘째 시간은 영어였다. 총무를 맡은 애가 시간 중간쯤에 문제 번호와 답을 쓴 커닝페이퍼를 몇 사람 손을 거쳐 기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 기표가 벌떡 일어나 감독 선생 앞으로 걸어나갔다.

"어떤 새끼가 이걸 나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는 감독으로 들어온 선생한테 쪽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앉으며 사방을 휘이적의 깊게 노려봤다. 악한 자의 간특한 미소가 입가에 고물 고물 기어다녔다.

감독으로 들어온 선생은 마음 너그럽기로 이름난 영어 교사였다. 그는 기표가 내놓은 종이쪽지를 한참 들여다 본 후에 말했다.

"누가 이런 메모지를 지금 저 학생한테 전달했나?"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던 아이들이 한번씩 고개를 들었다간 다시 문제로 돌아갔다.

"누군가?"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어떤 개새끼야?"

이번에는 기표가 자리에 앉은 채 으르렁거렸다.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반장인 임형우가 벌떡 일어섰다. 감독선생이 어이없다는 듯 허허 웃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썼습니다"

불쑥 판 자리에서 또 한 애가 일어섰다. 총무를 맡아 보는 애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랬읍니다"

다른 아이 하나가 또 일어섰다. 함께 모의를 했던 아이 중의 하나였다.

"접니다"

또 다른 놈이 일어섰다. 접니다. 접니다. 사방에서 우루루 아이들이 일어섰다.

허, 허허, 허허허……감독선생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기표의 얼굴이 노오랳게 질렸다.

"자, 모두 앉아요"

감독선생이 뭔가 사태를 파악한 듯 이삼십 명의 아이들을 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 그 나이 많은 감독선생이 말했다.

"오늘 이 일은 전연 없었던 것으로 해 두기로 한다. 아

주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종이쪽지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곧은 정신이나 우정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여러분 모두의 결의는 대단히 훌륭했다"

일은 이런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그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표를 살폈지만 그는 자

리에 보이지 않았다. 끝 시간인 세째 시간도 별일없이 끝났다. 종례가 끝나고 청소 시간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

"유대야, 담임이 아까 오라고 한 사람 빨리 교무실로 오래"

한 애가 내게 말을 전해 왔다. 종례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던 담임이 복도에서 나를 불러내어 청소가 다 끝난 뒤 나와 반장 그리고 정수를 교무실로 오라고 했던 것이다.

함께 교무실로 가려고 찾으니 반장도 정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운동장으로 내려서는 계단 휴게실까지가 보았다. 거기도 그들은 없었다. 교무실에 먼저 가



있겠거니 하고 계단을 올라서는데 정수가 학교 후문있는 데서 뛰어오면서 손짓하고 있는 게 보였다.

"반장은 어디 갔나?"

담임선생은 그날 끝낸 화학시험지의 답안지를 정리하면서 건성으로 물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저희들만 왔습니다"

나는 정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곁에선 정수의 숨소리는 아직도 고르지 않았다.

"응, 됐어, 너희들 둘이 해도 되겠지"

짐작했던 대로였다. 우리는 담임선생님의 채점기계로 호출된 것이다. 답안지를 든 담임선생님을 따라 우리는 화학실로 올라갔다.

"나 화학실에 있다고 사환애한테 알려뒀라. 밖에서 전화올 게 있다"

복도에서 담임이 말했다. 내가 아래층 교무실로 뛰어 내려갔다. 우리들 사이에 넙찍이라고 불리는 사환계집

애가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우리 담임선생님 화학실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그리 연락하라고!"

넙쩍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알았어---했다.

우리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답안지에 ○×해 나갔다. 맞은 것 틀린 것, 좋은 답 나쁜 답, 착한 놈 나쁜 놈… 우리들이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그 아이는 5점이 올라갈 수 있었다.

"야, 느덜 오늘은 속도가 느리구나"

담임의 말이 사실이었다. 우리는 다른 때와 달리 몇 장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정수나 나나 매한가지였다. 정수는 눈에 띄게 허둥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답안지의 내용이 자꾸 헛갈렸다. 적어도 일곱 명쯤의 재수파들 속에 형우가 무릎을 꿇고 와들와들 떨고 있을 것이다. 명치를 찌르는 주먹, 정강이 뼈를 겨냥한 구둑발 세례, 피가 꽃망울처럼 솟아오르는 기표의 팔뚝, 허벅지를 태우는 살냄새…… 하나, 두우울,세에--엣, 네에--엣, 다아…… 아악. 소리질러 봐, 죽여버릴 거니! 석공이 돌을 다듬듯 완벽한 솜씨로 그들은 형우의 육체

와 영혼을 주장질시키는 일에 탐닉하고 있을 것이다. 형우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수가 담임에게 일러바쳐 지금쯤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에게 도도한 자세를 보일 것인가, 나는 짐짓 정수의 눈을 찾았다. 나를 바라보는, 정수의 눈이 애원하듯 타고 있었다. 그렇게 무서우면 네가 말해! 그런 뜻의 눈짓을 내가 보냈지만 목덜미를 더욱 벌겋게 달구며 고개를 꺾었다.

"너희들이 잘해 주어서 올해는 펍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구나"

담임선생은 채점을 쉬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반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해 주는 것 같단 말이야. 느이들이 아다시피 우리반이 2학년 전체에서 제일이거든. 지난 춘계 체육대회 때 종합 우승이며 이번 이사 분기 납부금 실적도 단연 으뜸이고……"

나는 실소하며 정수의 눈을 찾았다. 그러나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직 한 권에서 반도 넘기지 못한 채였다. 나는 다시 한 번 실소했다. 담임선생이 지금 형우가 처하고 있을 상황을 안다면 어떤 표정으로 바

필 것인가.

"참 알 수 없는 일은 최기표가 듣던 것과는 달리 양처럼 순하다 그거야. 몇 번 말썽이 있긴 했지만 그까짓 거야 별 거 아니지. 어쨌든 그놈도 본성은 착한 놈인데 가정 형편이 못한가 보더라"

담임선생은 자기가 부리는 채점기계의 묵묵한 작업에 눈을 보낸 채 자못 흐뭇한 표정이다.

"다 담임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신 덕분이죠 뭐"

내가 시치미를 떼면서 말하자.

"아닌게 아니라 나로서도 그 동안 너희들이 이해 못할 애로사항이 많았다.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이 새삼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육하는 보람도 얻을 수 있었던 거지"정수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이마에 번지르르 땀이 배어나고 있었다. 그의 눈알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형우가 재수파들한테 끌려 학교 뒷산 으스스한 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내게 전해준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사실을 나한

테 얘기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면 담임선생한테 그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이 빛나간 데 대한 당혹감으로 그는 떨고 있는 것이다.

---임마, 느덜이 생각한 것처럼 난 담임선생님의 첩자가 아냐.

나는 다시 정수의 눈에 맞춰 눈싸움을 벌였다. 정수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자칫하다가 이 녀석이 발광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 때 나는 해중이란 아이가 기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일을 알고 있었다. 그에 역시 재수파였다.

다섯 놈이 캠핑을 나가 여학생 하나를 결판냈다. 피해자 측에서 사생결단하고 덤벼 일이 크게 번졌다.

당한 애가 인상을 말했기 때문에 범위는 대번 좁혀져 재수파들이 학생부실에 불러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사코 잡아땀다. 하루 내내 족쳐도 헛 일이었다. 여학생과 대면을 시키겠다고 해도 만나게 해달라고 날 뛰었다. 그때 그들 재수파 중의 한 아이 어머니가 학교에 나타

난 것이다. 그네는 학생부실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기표를 손가락질했다. 저 놈, 저 놈이 우리 해중일 맨날 불러냈지! 우리 해중일 망치는 놈이 바로 저 놈이라우! 모두 기표를 바라보았다. 기표는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은 채 해중이를 돌아다보았다.

이 새끼야 내가 느네 엄마 말대로 널 맨날 불러냈냐? 소름이 끼치도록 낮고 매서운 추궁이었다. 말해라, 이 녀석아, 왜 사실대로 말 못하는 게야? 해중이 엄마가 퍼댔다. 말해! 기표가 씹어 뺨듯 말했다. 해중이가 느닷없이 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기 시작했다. 엄마, 기표는 우리집에 한 번도 안 왔어. 우리집도 모른단 말이야. 선생님, 접때 그 일은 제가 했어요. 딴 학교애들하고 그랬단 말예요.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학생부실 시멘트 벽에 머리를 두어 번 부딪쳤다. 해중이가 병원으로 들려간 뒤 학생부 선생이 함께 조사를 받던 놈들한테 물었다. 해중이 말이 사실이나? 기표가 고개를 끄덕거린 다음, 그 쌍새끼--하고 중얼거렸다. 다른 애들도 모두 기표처럼 고개를 끄덕거렸다. 해중이가 스스로 학교를 물러난 것으로 일은 끝나 버렸던 것이다.

"아직 멀었냐?"

담배를 피운 다음 책상에 앉아 잠시 즐기고 난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느 정말 오늘 왜 이렇게 늦냐?"

우리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때, 90점 이상 많이 나오냐?"

"하나도 없는데요"

"참 느딜 공부 안해 클일났다"

그때 화학실 문이 열렸다. 녀찍이 아가씨가 거기 서 있었다.

"왜, 나한테 전화 왔냐? 여자지"

그러나 녀찍이 아가씨가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가 아녜요. 선생님 빨리 내려가 보세요. 야단났어요"

담임선생님이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정수의 얼굴이 하

양게 질리고 있었다.

"유대야, 말하는 건데 그랬다"

"난 네가 말할 줄 알았지"

"아까 네가 말했잖아? 난 네가……"

정수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기라도 할 듯 얼굴을 우그러뜨렸다.

"기표가 안 좋아할걸, 고자질하는 거 말이야"

"그렇지만 형우가……"

"아마 형우도 원하지 않았을 거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응, 형우는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당하길 원했거든"

정수가 무슨 얘기냐는 듯 나를 보았지만 나는 짐짓 만전을 부렸다.



"죽진 않았을 거다"

우리들이 답안지를 정리해 들고 교무실을 내려왔을 때는 교무실은 넙쩍이 아가씨 혼자 있었다.

"김선생님이 빨리 한강병원으로 오라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래요?"

"어떤 아줌마가 아까 막 달려와서 학생들이 뒷산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해 학생주임선생님이 가봤더니요, 2학년 13반 반장이 혼자 텅굴고 있더라요"

우리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한강병원까지 단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달려갔다. 죽진 않았을 거다. 나는 뛰면서 생각했다. 기표가 사람을 죽일리가 없지. 기표는……

형우는 응급실 의자에 엉거주춤 누워 있었다. 형우가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데 대한 한 가닥 실망이 스쳤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형우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임시로 잡아맨 넓적다리의 붕대위엔 꽃송이처럼 선명한 핏자국이 피어올랐다.

우리를 발견한 형우가 재빠른 동작으로 손가락 하나를 통통 부은 제 입술에 댔다가 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 주었다.

"유대야, 너 형우네 집 전화번호 알지?"

학생주임과 함께 서 있던 담임이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나는 시치미를 떼며 형우의 표정을 살폈다. 형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선생님, 제발 저를 그냥 돌아가게 해 주세요. 전 아무렇지도 않단 말씀예요"

"임마, 여길 나가기 전에 사실대로 대란 말이다"

학생주임이 다그쳤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로 싸웠는데 왜 친구들을 괴롭혀야 합니까"

"임마, 넌 싸우지 않았어. 본 사람이 그랬어, 네가 몰

매를 맞더라고"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그 아이한테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싸웠던 겁니다"

"그게 누구난 말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너 정말……"

학생주임이 혀를 내둘렀다.

"너 정말 학교를 허수아비로 아는 거냐? 학교 다니기 싫어?"

"저는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선생은 얼굴에 그늘을 깬 채 팔짱을 끼고 한 편에 묵묵히 서 있었다. 우리반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거슬린 자가 누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야말로 우리들 손에서 고삐를 낚아 채어 거머쥐고 목을 옥죄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유대, 넌 알거다, 형우를 때린 놈들이 기표네 패라는 걸 말이다"

"형우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틀림이 없다. 기표 놈이 아니곤 그런 짓을 할 놈이 없다"

담임은 헐떡거렸다. 양같이 순하게 길들여졌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을 것이다.

"선생님, 형우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내가 짐짓 떠보았다.

"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기는커녕 형우가 그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넌 모를 게다"

담임선생님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혐오감으로 해서 얼굴이 벌겍게 달아 올랐다. 기표를 미워하다니. 나 역시 담임선생에 대한 적대감으로 몸을

떨었다.

"웁니까, 선생님. 형우가 기표를 위해서 무얼 했던 말 입니까?"

내 반감 짙은 어투에 놀랐는지 담임선생은 좀 멈칫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섞어 말했다.

"임마, 나는 다 알고 있어. 기표가 저질러 온 짓 말이다. 유대, 너도 기표한테 당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놈들 부정행위를 거들어 준 것도 알고 있다"

그랬겠지. 나는 속으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무서웠다. 어른들의 음흉스러운 심뽕, 알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떤 그 저의는 무엇인가.

형우는 우리들 사이에서 일약 영웅이 돼 버렸다. 예상 안한 건 아니지만 그 여세는 보통이 아니었다. 3학년 에도, 1학년 하급생들도 2학년 13반 반장 임형우가 입에 올랐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끝내 그 상대를 입에 올리지 않으므로 해서 형우의 존재는 풍선처럼 부풀었다.

기표가 그 사건 다음 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러 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삼지 않았다.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표를 찾기 위해 똑방 동네를 연 이틀이나 헤맨 사실도 학교에 널리 알려졌다. 기표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은 조회시간에 간단히 말했다.

"최기표군은 그 동안 피끓지 못한 가정사정으로 결석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안다"항상 뺏뺏하게 쳐들고 앉았던 기표의 고개가 잠깐 숙여지는가 싶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상한 조짐이었다.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시간에는 행가래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친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후우--가슴을 쓸어내렸다.

"형, 우리 미술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동교사 뒷담을 넘어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 먹은 다음 감쪽같이 들어 오곤 했다. 재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필요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투명스럽게 빨았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형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써 지켜 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선생님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 온 그 숨은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더라는 것이다. 교정에 모여선 아이들도 입에 입에 형우의 얘기로 만발했다.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본 걸 학교길 둘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그때 그 일, 담임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냐?"

"아니다. 담임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내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나는 웃어 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형우, 네가 구원해 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 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두 왔었니?"

내가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뺨뺨이나 다름없어. 개들이 모두 나한테 말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 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 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길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 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의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탬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 두었다. 아뭏든 생활이 말두 아니란 거야.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은행에 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 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재수파들은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는 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형우가 손을 흔들고 자기집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유능한 반장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썩썩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다.

담임의 예언대로 기표는 결석을 하지 않았다. 형우와 기표 사이에도 이렇다할 마찰이 없이 여름방학이 지났다. 교실에서 도시락이 없어지는 일도 드물었다. 물론 재수파들이 기표를 찾아 교실에 들락거리는 횡수는 잦았지만 아이들은 그닥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었다. 기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담임선생이 가끔 기표에게 학급사무를 맡기는 게 눈에 띄었다. 기표가 별 표정없이 그런 일을 맡아 했다.

그날도 기표는 담임선생의 지시에 의해 체육부실에 내려가 우리반 아이들의 체력검사 통계를 내고 있었다. 그럴 시각 담임선생이 말했다.

"66명이 탄 우리배는 순풍을 맞아 참으로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다. 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줄 한 얘기는 반장이 해 줄 것이다. 다만 담임으로서 당부하고 싶은것은 그것이 남의 일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담임선생이 교단에서 내려서고 그 대신 반장 임형우가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단 위에 섰다.

"담임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그 친구를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두를 잡은 형우는 언젠가 하교길에서 내게 들려 준 기표네 가정 형편을 반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형우의 혀였다. 나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의 그런 적대감은 씻은

듯 감추고 오직 우의와 신뢰 가득한 말로써 우리의 친구 기표를 미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

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되었다. 그런 가난 속에서도 가난을 결코 곁에 나타내지 않고 묵묵히 학교에 나온 기표의 의지가 또한 높게 치하되었다. 더구나 그런 가난 속에서 유급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의 학비를 더 마련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얘기도 우리 가슴에 몽클 뭉가 던져 주었다.

"나는 얼마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몹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 아이들은 사뭇 숙연한 자세로 형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자집 그 냄새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 또 알려 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표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재수파라고 불려온 아이들입

니다. 우리들이 무시해 온 그들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용돈을 저축하고 또는 방학 때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서 받는 돈으로 기표를 도와 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매달 자신의 귀한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피를 세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써 구원하려 한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협동과 봉사--기여 정신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 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 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담임선생이 교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만원 짜리 한 장을 꺼내어 교탁 위에 놓았다. 반장도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이들이 조용한 술렁거

림 속에서 모두 돈을 찾아 들었다.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은 내일 가져오는 게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제안하자 모두, 그럼시다--소리쳤다.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모일간지 편집부국장을 지내는 학부형이 우리반에 있었다. 담임선생님과 반장이 그 학부형을 만나러갔다. 그 신문사 기자가 학교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에 우리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기표의 가혹한 효성에서부터 재수파들의 우정어린 피땀기와 급우들로부터 시작된 친구 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되어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 있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의 콧등이 새삼 찡했다.

기사 맨 위에 담임선생과 반장, 그리고 기표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교장선생님 지시에 의해 그 기사는 각 교실 후편 게시판에 붙이게 돼 있었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부터 월요조회 때마다 교장선생님은 사회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위문편지를 최기표에게 전달했다. 담임선생님도 종례 때면 기표에게 편지 여러 장을 건네며,

"거기 여학생 편지도 많이 있으니 혼자 몰래 보라구"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기표가 얼굴을 벌겁게 달구며 편지 다발을 책상 속에 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던 것이다.

"기표 얘기가 영화로 된다면?"

"그렇대. 재수파들을 중심으로 한 애긴데 TV에 나오는 제3교실 같은 거겠지"

어디서 나온 애긴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도 수줍어하는 그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던 체구마저도 왜소하게 짜부라진 채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적에 <치이즈>하

고 웃듯 그런 미소를 얼굴에 담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미소짓는 기표의 얼굴을 보면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계속했다. 담임은 더욱 깊은 이해로써 우리반을 돌봐주었다. 반장 형우는 그 나름의 성실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우리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덩달아 들떠서 술렁거렸다.

그런던 어느날 우리는 기표의 자리가 빈 것을 알았다. 다음날도 그는 결석했다. 무단 결석이었다. 담임 선생이 한 아이를 기표네집에 보냈다.

"집에도 없어. 이틀 전에 집을 나갔대"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찮은 생각들이 머리에 젖어들었다.

기표가 내리 사흘이나 결석을 한 아침나절이었다. 수업중인데 담임이 형우와 나를 찾는 쪽지가 왔다.

우리가 교무실에 내려 갔을 때 담임선생은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어떤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네는 초가을인데도 낡고 두터운 오바를 걸치고 있었다.

"아이구, 우리 기표 친구들이구만, 시상에 이렇게 고마운 친구들이 어디 있겠누. 그런데 이눔에 자숙이

....."

그네는 몸을 일으켜 우리에게 굽실거리며 때 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그네는 우리의 손을 더듬어 쥐고 싶어했다.

"자, 이제 고만 돌아가십시오. 애들하고 의논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담임선생은 기표 어머니를 내쫓듯 교무실에서 밀고 나갔다. 그네는 교무실을 나가며 자꾸 아쉬운 듯 우리들 얼굴을 돌아다보았다.

그네를 배웅하고 돌아온 담임이 의자에 소리나게 주저 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내뿜으며 투덜거렸다

"내일 천일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냐?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그는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의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 사하촌

김정한

1

타작마당 돌가루 바닥같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 어디서 기어들었는지  
난데없는 지렁이가 한 마리 만신에 흙고물 칠을 해  
가지고 바동바동 굴고 있다. 새까만 개미 떼가 물어  
떨 때마다 다 지렁이는 한층 더 모질게 발버둥질을  
한다. 또 어디선지 죽다 남은 듯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종종걸음으로 마당 복판을 질러서 돌담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군데군데 좀구멍이 나서 썩어 가는 기둥이  
비뚤어지고, 중풍 든 사람의 입처럼 문조차 돌아가서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앞에는,  
다행히 키는 낮아도 해묵은 감나무가 한 주 서있다.  
그러나 그게 라야, 모를 낸 후 비 같은 비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가뭄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졌던 고목 잎이 볼 모양 없이 배배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그래도 그것이  
구십 도가 넘게 썩 내리는 팔월의 태양을 가리어,  
누더기 같으나마 밑둥치에는 제법 넓은 그늘을

지웠다. 그걸 다행으로 깔아 둔 낡은 샷자리 위에는 발가벗은 어린애가 파리똥 앉은 얼굴에 땀물을 조르르 흘리며 울어댄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벌써 기진맥진해서 울음소리조차 잘 아니 나왔다. 그 곁에 퍼뜨리고 앉은 치삼노인은, 신경통으로 통통 부어오른 두 정강이 사이에 깨어 진 뚝배기를 끼우고 중얼거려댄다.

"요게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요리조리 매끈거리기만 하고……. 예끼!" 그는 식칼 자루로 뚝배기 밑바닥을 탁 내려 찼었다. 뻑! 하고 미꾸라지는 또 가장자리로 튀어 내 뺨다. 신경통에 찼어 바르면 좋다고 해서, 딸애 덕아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잡아 온 미꾸라지다.

그것이 남의 정성도 모르고!

"요 망할 놈의 짐승!"

치삼노인은 다시 식칼로 겨누었으나, 갑작스레 새우처럼 몸을 꺾치고는 기침만 연거푸 쿵쿵한다.

그럴 때마다 부어오른 다리의 관절이 쥐어뜯는 듯이 아프며, 명줄이 한 치씩이나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에 그의 허연 수염 사이에서 커다란 핏덩어리가 하나 툭 튀어나왔다.

"에구 가슴이야……. 귀신도 왜 이다지 잡아가지 않을꼬?" 노인은 물 붙은 콩깍질같이 쪼그라진 눈에 끈 눈물을 빼다귀 손으로 썩 씻었다. 곁에 누운 손자

놈은 땀국에 쪽 젖어 있다. 노인은 손자 놈의 입이며  
콧구멍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파리 떼를 쫓아  
버리면서, 말라붙은 고추를 어루만진다.

"응, 그래, 울지 말아. 자장 우리 얘기…… 네 에미는  
왜 여태 오잖을까? 입안이 이렇게 바짝 말랐고나.  
그놈의 집에서는 무슨 일을 끼니때도 모르고 시킬꼬  
온! 에헴, 에헴……" 노인은 억지 힘을 내 가지고,  
어린걸 움켜 안고는 게다리처럼 엉거주춤 뺨디디고  
일어섰다. 그럴 때, 마침 아들이 별살에 얼굴을 벌겍게  
구워 가지고 들어왔다. 들어서면서부터 통명스럽게,  
"다들 어디 갔어요?"

"일 나갔지."

"무슨 일요?"

"진수네 무명발 매러 간다고 했지, 아마."

들개는 잠자코 윗통을 훔쩍 벗어나서 감나무 가지에  
걸쳐놓고는 늙은 아버지로부터 어린것을 받아 안았다.  
치삼노인은 뽕나무 잎이 반이나 넘게 섞인 담배를  
장죽에 한 대 피워 물면서 아들을 위로하듯이--그러나  
대답은 두려워하며 물었다.

"논은 어떻게 돼 가니?"

"어떻게라니요. 인젠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물도  
없고, 병아리 오줌 만한 붓물도 중들이 죄다 가로막아  
넣고, 제에기……."

"꼭 기사년 모양 나겠군 그래."



"기사년은 그래도 냇물은 조금 안 있었나요."

"그랬지. 지금은 그놈의 수돗바람에……"

"그것도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냇물은 아니 막아 가기로 했다는데, 제에기, 면장 녀석은 색주가 갈보 놀릴 줄이나 알았지, 어디 백성 죽는 건 알아야죠." 들깨는 열을 바짝 더 냈다.

"할 수 없이 이곳엔 인제 사람 못 살거여."

"참 아니꼽지요. 더군다나 전과 달라 중놈들까지 덤비는 꼴을 보 면……." 아들의 불통스러운 어조에는, 거칠 대로 거칠어진 농민의 성미가 뚜렷이 엿보였다. 가물은 그들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였던 것이다. 치삼노인은 '중놈'이란 바람에 가슴이 섬뜩하였다.-- 그것은 자기들이 부치고 있는 절논 중에서 제일 물길 좋은 두 마지기가, 자기가 젊었을 때, 자손 대대로 복 많이 받고 또 극락 가리라는 중의 핏에 속아서 그만 불전에 아니 보광사(普光寺)에 시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멀쩡한 자기 논을 괜히 중에게 주어 놓고 공공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 싱겁기도 짝이 없거니와, 딱한 살림에 아들 보기에 여간 미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뭘 허구 인제 와? 소 같은 년!"

들깨는 화살을 방금 돌아오는 아내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이 꼴 보라는 듯이 물에서 막 건져낸 듯한, 그러나 울어 울어 입안이 바싹 마른 어린것을 아내의

젓가슴에 쑥 내던지듯 했다. 아내는 잠자코 그것을 받아 안기가 바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물에 추겨 가지고 어린것의 얼굴을 닦으면서 일변 젓을 물렸다.

"소 같은 년, 어서 밥 안 가져와?"

남편의 벼락같은 소리다. 아내는 부지중 눈물이 핑 돌았다. 들깨는 아내의 귀통이라도 한번 올려붙일 듯이 더펄더펄 부엌으로 들어갔으나 한 팔로 애기를 부둥켜안고 허둥대는 아내의 울상에 그만 외면을 하고는 미처 다 차리지도 않은 밥상을 얼른 들고 나왔다. 그러나 다른 때 같으면 곧잘 넘어가는 보리밥도 그날은 첫술부터 목에 탁 걸렸다.

2

우르르르, 썩---

이글이글 달아 있는 폭양 아래 난데없는 홍수 소리다. 물벌레, 고기 새끼가 죄다 말라져 죽고,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 떼가 장을 벌였던 붓도랑에, 둔덕이 넘게 벌건 황토 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빨갭게 타져 죽은 곡식이야 인제 와서 물인들 알랴 마는, 그래도 타다 남은 벼와 시든 두렁 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기를 얻은 듯이 우줄 우줄 춤을 추는 것 같다. 행길 양옆을 흘러가는 붓도랑 가에는 흰 옷, 누른 옷, 혹은 검정 치마가 미친 듯이 부산하게

떠들며 오르내린다.

수도 저수지(貯水池)의 물을 터놓은 것이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 없이 떼를 지어 몰려가서 애원에, 탄원에 두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수원지 울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달리 돌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T시 수도 출장소에서도 작년처럼 또 폭동이나 일어날까 두려워서, 저수지 소제도 할 겸 제이(第二) 저수지의 물을 터놓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까짓 저수지의 물로써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한층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들개는 논이 보 꼬리에 달렸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저수지 물구멍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붓머리까지 가서 물을 조금 달아 가지고 오면, 도중에서 이리저리 다 떼이고 자 기논까지는 잘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삼차 오르내리고 보니, 꼭 눌러 오던 화가 그만 불끈 치밀었다.

"여보, 노장님!"

들개는 오던 걸음을 되돌려서, 소리를 치며 비탈길을 더우잡았다.

"제에기, 논을 떼었으면 떼였지, 인젠 할 수 없다!" 그는 급기야 이를 악물었다. 어느 앞이라고, 만약 한

번이라도 점잖은 중에게 선불리 반항을 했다가는  
두말없이 절 논이라고는 똑딱 떼이고 마는 것이다.

노승은 들은 체 만 체, 들깨가 가까이 가도 양산을  
받은 그대로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밀엿 사람은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요?" 들깨는 커다란 사벨로써 노승의 장난감  
같은 삽가래를 뗏장과 함께 찍어 당겼다.

물은 다시 켜-- 하고 밀으로 흘러내린다.

"이 사람이 버릇없이 왜 이럴까?"

노승은 짐짓 점잖은 체하고 나무라면서도, 눈에는  
시뻘하는 빛과 독기가 얼씬거린다.

"살고 봐야 버릇도 있겠지요."

"아하, 이 사람이 아주 환장을 했군. 아서라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다." 노승은 다시 물을 막으려고  
들었다.

"천만에요! 우리도 살아야겠어요. 물을 좀 가릅세다.  
노장님까지 이래서야……" 들깨는 제 손으로 갈랐다.

그리고 몇 걸음 못 가서, 또 어떤 논 귀퉁이에서  
조그마한 애새끼 한 놈이 쏙 나오더니 물을  
가로막고는 언덕 밑으로 숨어 버린다.

"예끼, 쥐새끼 같은 놈!"

들깨는 골 안이 울리도록 고함을 내지르며 쫓아가서,  
그 놈의 물꼬에다 아름이 넘는 돌을 하나 밀어다  
붙이었다.

길 저편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갈갈이 낚아  
미어진 헌옷에, 허리 짬만 남은--- 남방 토인들의  
나무 꺾데기 치마 같은 몽당치마를 걸친 가동 할멈이  
붓도랑 한복판에 평퍼져 앉아서 목을 놓고 울어댄다.  
"에구 날 죽여 놓고 물 다 가져가요."

"이 망할 놈의 늙은이, 남이 일껏 끌고 온 물만 대고  
앉았네. 어디 아가리만 벌리고 앉았지 말구 너도 한  
번 물이나 끌고 와 봐!"

경찰관 주재소의 고자쟁이로 알려져 있는 이  
시봉이란 젊은 놈의 깡이는 더털머리를 풀어헤치고  
악을 쓰는 늙은 과부 할멈의 허벅살에 시퍼런 멍울을  
남겨 놓고 갔다.

들깨는 보릿대 모자를 부채 삼아 내 흔들면서,  
쥐꼬리만한 물을 달고 내려가다가, 철한이란 놈하고  
봉구란 놈이 아주 논 가운데서, 곰처럼 별로 말도  
없이 이리 밀치락 저리 밀치락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말려 볼 생각도 않고 제 논으로만 갔다.  
그의 논으로 뚫린 물꼬는 으레 또 짹 봉해 져 있었다.  
"어느 놈이 이렇게 지독하게……"

막힌 물꼬를 냉큼 터놓고서, 막 논두덕 위에  
올라서자니까, 자기 논 아래로 슬그머니 피해 가는  
오촌 아저씨가 보인다. 아저씨도 환장이 되었구나  
싶었다. 새벽부터 나돌며 날뛰어도 반 마지기도 채  
적시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는 들깨는 그만 낙심이

되어서 논두덕 위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그  
쥐꼬리만한 물줄기가 끊어지자 그는 다시금 그곳을  
떠났다.

철한이와 봉구란 놈은 아직도 싸우고 있었다.

"이,이, 이놈의 자식이 사람을 아주 낮보고서."

봉구란 놈이 벌니를 내 물고서 악을 쓴다.

"글쎄, 정말 이걸 못 놓겠니?"

철한이란 놈이 아무리 제비 손을 넣으려고 애를  
써도, 워낙 떡심 센 놈이 돼서 봉구는 달짝도 앓고,  
되려 철한이란 놈의 턱밑을 쥐고 자꾸 밀기만 했다.

그러던 놈들이, 들깨가 한번 소리를 치자, 서로  
잡았던 손을 흐지부지 놓고서 논두덕 위로 올라 왔다.

"예끼 싱거운 녀석들! 물도 없애 놓고 무슨  
물싸움들이야! 분풀이할 곳이 그렇게도 없던가 온!"

들깨의 이 말에, 그들은 쥐꼬리만한 붓물조차  
끊어지고 만 빈 도랑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윽고 세 사람은 붓목을 향해서 나란히 발을  
떼어놓았다. 대사봉(大師峰) 위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네 시를 아뢰는 보광사의 큰종 소리가 팡팡  
울려 왔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저녁 밥쌀을  
낼 때다. 그러나 그 절 밑 마을---성동리 앞 들판에  
나도는 농민들은 해가 기울수록 마음이 더욱 달떴다.  
게다가 모처럼 터놓은 저수지의 붓목에 눈을  
가지고서도, '유아독존'식으로 날뛰는 절 사람들의

세도에 눌러 흘러오는 물조차 맘대로 못 대인 곰보  
고서방은 마침내 탄은 큰맘을 먹고 자기 논물꼬를  
조금 더 터놓았다. 그러자 그걸 본 한 양반이 뻑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왔다. 오더니 다짜고짜로, "왜 또  
손을 대요?"

"인제 물도 다 돼 가고 하니 나두 좀 대야지요."

하다가 고서방은 자기 말이 너무 비겁한 것 같아 한  
마디 더 보태었다.

"그리고 당신 논에는 물이 철철 넘고 있지 않소"

"뭘? 넘어? 어디 넘어? 이 양반이 눈이 있나 없나?"  
하며 그는 곰보 논 물꼬를 봉하려고 들었다.

"안 돼요!"

곰보는 물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열면서, "위에 있는  
논은 한 번 적시지도 못하게 하고 아랫논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려는 건 너무 심하잖소?"

"무어---?"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테요?"

"야, 이 친구가 밥줄이 제법 특특한 모양이로군!"

그는 비쭉 냉소를 했다.

"이 친구? 네 집에는 그래 애비도 삼촌도 없니? 누굴  
보고 이 친구 저 친구 해?" "뭘가 어째? 야, 이 녀석이  
제법 꼴값을 하는군. 어디 상판대기에 빵꾸를 좀  
내줄까?" "이놈---개 같은 놈!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어졌기로서니……." "야, 이 녀석 좀 봐. 세상이

뒤바뀌어졌다고? 하,하, 하……." 그는 다른 사람도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높이더니, "예끼 건방진 녀석!"

그리고 제보다 몸피가 훨씬 큰 곰보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이게 뭘 믿고서……"

곰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의 멱살을 붙끈 졸라 쥐니깐, 그 근방에 있던 같은 패들이 벌떼처럼 우---몰려왔다. 그러자 아까 가동 늪은이를 상해 놓던 고자쟁이 이 시봉이가 풋보올 차던 형식으로 곰보의 아랫배 짬을 콧 질렀다. 곰보는 악! 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뺨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재소에까지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들깨가 곁에 가도, 곰보는 넋잃은 사람처럼 눈두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왼편 눈 밑이 퍼렇게 부어 올랐다.

저수지의 물은 그예 끊어졌다. 물끊어진 수문을 우두커니 들여다보는 농민들은 하도 억울해서 말도 욱도 아니 나오고, 그만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와 동시에 온종일 수캐처럼 쫓아다니던 피로까지 엄습해서 일어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물을 흐뭇이 대인 보광리 사람들은 제



논물이 행여 아랫논으로 넘어 흐를세라 돋우어 둔  
물꼬와, 논두렁 낮은 째를 한층 더 단단히  
단속하느라고 몹시 바빴다.

고서방은 분도 분이지만, 그보다 내년 봄엔 영락없이  
그 절논 두 마지기가 떨어지고 말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 나갈 일이 꿈같이 암담하였다. 아무런  
힘이 없어도 물길 좋은 봇목 논은 살림하는 중들에게  
모조리 떼이는 이즈음에, 아무리 독농가로 신임을  
받아 오던 고서방일 지라도 오늘 저 지른 일로  
보아서, 논은 으레 빼앗긴 논이라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지난봄의 허서방이 생각났다.---부처 오던  
절 논을 무고히 떼이고 살길이 막혀서, 동네 뒤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시퍼런 혀를 한 자나  
빼물고 늘어져 죽은 허서방이 별안간 눈에 선하였다.  
곰보는 몸서리를 으쓱 쳤다. 이왕 못 살 판이면  
제에기 처자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도 그만 그렇게  
죽어 버릴까…… 자기가 앓은 논두렁이 몇천 길이나  
땅 속으로 황 둘러 꺼졌으면 싶었다.

이튿날 아침 들깨와 철한이는 오랜만에 눈에 물을 한  
번 실어 놓고는, 허출한 속에 식은 보리밥 이나마  
맘놓고 퍼 넣었다. 그때까지도 저수지 밑 봇목 들녘과  
내 건너 보광리---최근에 생긴 중마 을---에는,  
빌어서 얻은 계집이라도 잃어버린 듯이, 중들의

아우성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하룻밤 동안에 논두렁을 몇 토막이나 내이고 물도둑을 맞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서방은 중들의 발악 소리를 속시원하게 들으면서, 군데군데 커다란 콩밭이 박힌 보리밭, 아니 보릿겨밭을 맛나게 먹었다.

"누가 간 크게 그랬을까요?"

아내는 송늬를 떠오며 짜장 통쾌한 듯이 물었다.

"그야 알 놈이 있을라구, 사람이 하두 많은데."

고서방은 궁둥이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 섰다. 담배 한 대 재어 물 여가도 없이 고동 바로 허리춤을 졸라매고 이주사댁 논을 매러 막 집을 나서려고 할 즈음에 뜻밖에도 주재소 순사 하나가 게딱지만한 뜰안에 썩 들어섰다.

"당신이 고서방이요?"

눈치가 수상하다.

"예, 그렇소."

"잠깐 주재소까지 좀 갑시다."

"무슨 일입니까?"

고서방은 금방 상이 노래졌다.

"가면 알 테지."

말이 차차 험해진다.

"난 주재소 불러 갈 일이 없습니다. 죄지은 일은 없습니다. 고서방이 뒤로 물러서니깐, "이놈이 무슨

잔소리냐? 가자면 암말 말고 갔지 그저." 순사는  
고서방의 어썩죽지를 한 대 갈기더니, 어느새 포승을  
꺼내 가지고 묶는다.

"아이구 이게 무슨 일유? 나리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죄 지은 일 없읍네다. 나구서 개구리 한  
마리도 죽인 일없다는데, 지난밤에는 새두룩 이  
마당에서 같이 잤는데…… 아이구 이게 무슨 일유?"

학질에 시난고난하면서도, 미친 듯이 매달리는  
고서방네를 몰강스럽게 떠밀어 버리며 순사는 기어이  
고서방을 끌고 갔다.

### 3

한 포기가 열에 벌여, ----에이여허 상사뒤야.  
한 자국에 열 말씩만, ----에이여허 상사뒤야.  
앞 노래에 응해 가며 성동리 농군들은 보광리  
앞뜰에서 쇠다리 주사댁 눈을 매고 있다.

백 도가 넘게 끓는 폭양 밑! 암모니아 거름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사람이 아니 보이게 자란 벼 속!  
논바닥에서는 불길 같은 더운 김이 확확 솟아오르고,  
게다가 썩어 가는 밑거름 냄새까지 물컹 물컹 치미는  
바람에는 두말없이 그저 질색이다. 그래도 숨이 아니  
막힌다면 그놈은 향우(項羽)다.

몽둥이에 맞아 죽다 남은 개새끼처럼 혀를 빼물고  
하--하--하는 놈, 벼 잎사귀에 찢려 한쪽 눈을 못  
쓰고 파악 감은 놈--그들은 마치 기계와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잡이의 노래에 맞춰서 '에이여 허  
상사뒤야'를, 속이 시원해 지는 듯이 가슴이 벌어지게  
내뿜는 것쯤일까.

한 놈이 슬쩍 봉구의 머리에다 궁둥이를 돌려  
대더니, 아기 낳는 산모 모양으로 힘을 쭉 준다.

"예, 예끼, 추--추한 자식!"

봉구는 그놈의 종아리를 썩 굵어 버린다.

"이따, 이놈아, 약값이나 내놔!"

그놈이 되려 봉구를 놀리려고 드니까, 곁에 있던  
철한이란 놈이 얼른 그 말을 받는다----

"약값? 야 이놈아 참 네가 약값을 내놔야겠다. 생무우  
먹은 트림 냄새도 분수가 있지 온… …."

"아닌게아니라, 냄새가 좀 이상한걸. 이 사람, 자네  
똥구멍 썩 잤나?" 또 한 놈이 욕대긴다.

"여--역놈의 대밭에 마, 말다리 썩는 냄새도 부,부,  
분수가 있지!" 봉구란 놈이 제법 큰소리를 친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입은 그대로 제 옷에 오줌을 질질  
싸고 있다.

하--하--끄--끄…….!

"어이구 이놈 죽는다.!"

철한이란 놈이 속이 답답해서 앞으로 몇 걸음 쭉  
빠져나간다.

"쉬--스! 쇠다리 온다."

들깨란 놈이 주의를 시킨다.

쇠다리 주사가 뒤에서 논두렁을 타고 왔다. 한 손에는 양산, 한 손으론 부채를 흔들면서, 쇠다리 주사가 뭐냐고? 그렇다. 옳게 부르면 이 주사다. 그러나 속에 똥만 든 그가 돈냥 있던 덕분으로 이 조 말년에 그 고을 원님에게 쇠다리 하나 올리고서 얻은 '주사'란 것이 오늘날 와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기 때문에, 모두를 그를 그렇게 불렀다. 물론 안 듣는 데서만이지만.

"모두들 욱보네. 허---날이 자꾸 끊이기만 하니 온!" 어느새 쇠다리가 뒤에 와 선다.

"그런데 조금 늦더라도 이 논배미는 마자 매고 참을 먹어야겠군. 자, 바짝---팔대에 힘을 넣어서. 저런, 봉구 뒤에는 벼가 더러 부러졌군, 아뿔싸!" 쇠다리 주사는 혀를 짹짹 차며 부채를 방정맞게 흔들어 댔다.

일꾼들은 잠자코 풀 죽은 팔에 억지 힘을 모았다. 거친 벼줄기에 스친 팔뚝에는 금방 핏방울이 배어 나올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대고동을 해킨 갈퀴 같은 손으로, 어지러운 벼 포기 사이를 썩썩 긁어 댔다.

흐--흐--꿈--꿈.....!

얼굴마다 콩날 같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놀란 메뚜기 떼들이 파드닥 파드닥 줄 도망질을 친다. 노래는 간곳 없고! 나머지 열 자국! ---그들은 아주 숨쉴 새도 없이 서둘렀다.

"요놈의 짐승!"

제일 먼저 맨 철한이란 놈이, 뒤쫓겨 나온 뱀 한 마리를 냉큼 잡아 올려 가지고는 핏팅 서너 번 내두르더니 훌쩍 저편으로 날려 버린다.

고대하던 설 참이 왔다. 농부들은 어서 목을 좀 추겨 보겠다고 포플라나무 그늘에 갖다 둔 막걸리통 곁으로 모여 갔다.

우선 쇠다리 주사부터 한 잔 했다.

"어---그 술맛 좋---군!"

쇠다리 주사는 잔을 일꾼들에게 돌려 주고, 구레나룻을 휘휘 틀어 올리더니, "그런데 참 술이 한 잔 씩 밖에 안 돌아갈는지 모르겠군. 그저 점심때 쌀밥(쌀이 사분지 일 될까?) 먹은 생각하구 좀 참지. 그놈의 건 잘못 먹으면 일 못하기보다 괜히 사람 축나거든.

더군다나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그러나 농부들은 사발 바닥이 마르도록 빨아 넘기고는, 고추장이 벌겁게 묻은 시래기 덩어리를 녀죽녀죽 집어넣는다. 목도 말랐거니와 배도 허출했다.

그럴 때 마침 뽕---하고, 자동차 한 대가 그들이 쉬는 데까지 먼지를 뒤집어씌우고 달아나더니 보광리 앞에서 덜컥 머물었다. 거기서 내린 것은---해수욕을 갔다 오는 보광리 젊은 사람들이었다.

일본으로, 서울로 유학을 하고 있는 팔자 좋은

젊은이들이었다. 물론 계집애들도 섞여 있었다. 성동리 농부들은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고자쟁이 이시봉이 웬일인지 차에서 내리자 바른 총으로 주재소로 들어갔다.

술을 잘못 하기 때문에 식은 밥만 두어 술 뜨고 난 들깨는 눈이 주재소 문에 가 박혔다. 얼마 뒤에 시봉이가 나왔다.

"고서방은 어찌 됐을까?"

부지중 중얼거린 들깨. 묵묵히 이마에 석삼자를 깊게 지우는 철한이.---우리 때문에 무고한 고서방이……! 그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자기들이 그지없이 부끄럽고 맘이 괴로왔다.

세상을 모르는 봉구란 놈은 제 발바닥의 상처만 풀어헤쳐 놓고, 그 속에 들어간 뼉을 꺼내고 있다. 다른 농군들은 행려(行旅)의 시체처럼, 거무데데한 뱃가죽을 내놓고 길바닥 위로, 잔디 위로 그늘을 찾아서 여기저기 나자빠졌다. 어떤 친구는 어느새 코까지 쿨쿨 골고, 어떤 친구는 불개미한 테 거기라도 물렸는지 지령이처럼, 자던 몸을 꿈틀꿈틀한다.

매미란 놈들이, 잎사귀 하나 까딱 아니 하는 높다란 포플라 나무에서, 그 밑에 누워 있는 농군들을 비웃는 듯 구성지게 매암매암매---한다.

모기 속에서 저녁을 치르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게딱지같은 집을 떠나서 모두 냇가로 나온다.

아무런 가뭄이라도 바위틈에서 새어 나오는 물이  
군데군데 제법 웅덩이를 만들었다. 냇가의 달밤은  
시원하였다.

먼동이 트면 곧 죽고 싶은 마음

저녁밥 먹고 나니 천년이나 살고 싶네.

어느새 벌써 달려 나와서 반석 위에 번듯 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읊조리는 쇠다리 주사댁 머슴 강  
도령의 노래다.

반달같이 생긴 다리 아래편 백사장에는 애새끼들이  
송사리처럼 모여서, 노래로 장난으로 혹은 반딧불  
쫓기로 부산하게 떠돌고 뿔다. 비를 기다리는  
하늘에서는 구름 한점 없이 달만 밝고, 달빛 속 에  
묻힌 성동리 집집에서는, 구름인듯 다투어 모기  
연기만 피워, 산으로 기어오르고 들로 내려깔려  
연기가 달빛인가 알 수도 없다.

남자들의 뒤를 이어 여자들도 떼를 지어 다리를  
건너왔다.

다리 위편이 남자들의 자리다. 그들은 나오는 대로  
먹을 감고는 여기저기 반석을 찾아가기가 바쁘다.  
가는 곳이 그들의 그날 밤잠자리다. 그리도 못 하는  
놈은---행인지 불행인지 아직도 제 눈에 풀물이  
있어서 붓목으로 물 푸러 가는 놈! 그러나 물푸개  
석유통을 옆에 둔 채 어느새 지쳐 한잠이 든 봉구는,  
밤중이 넘어서 공동 묘지 입구까지 물 푸러 갈 것인지



코만 쿵쿨 골아 댄다.

그래도 남은 놈들은 이야기에 꽃이 핀다.

"들깨, 자네 누이동생은 어쩔 텐가?"

"어찌긴 무얼 어째?"

"키 보니 넉넉히 시집갈 때가 됐던걸."

"키는 그래도, 나인 인제 겨우 열 일곱이야. 열 일곱에 혼사 못 될 건 없지만 어디 알맞은 자 리가 쉬 있어야지."

"아따 이 사람 염려 말라구. 그만한 인물이면 야 정승의 집 며느리라도 버젓하겠데. 자리가 왜 없을라구!"

"이 사람이 왜 또…… 괜히 얼굴만 믿고 지나친 데 보냈다가 사흘도 못 돼서 쫓겨오게! 천한 사람은 그저 천한 사람끼리 맞춰 야지……"

"암 그렇구말구!"

가만히 듣고만 있던 철한이란 놈이 뜻밖에 한 마디 보태었다.

그럴 때 마침 다리 아랫목에서 먹을 감고 있던 여자들이 킁킁거리며, 또는 욕설을 하면서, 남자들이 노는 위편으로 자리를 옮겨간다. 그걸 본 강도령, "위에 가면 안 되오. 왜 밑에서 허잡구----?"

"보광리 새끼들 때문에 밑에선 못 하겠다우."

아낙네들의 대답이다. 남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다리 아래편으로 쏠렸다. 하늘 높게 백양목이 줄지어 선

곳----.

사랑으로 여위었느니 어쩔느니 하는 레코오드에 맞춰서 반병어리 축문 읽는 듯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유성기는 또 누구를 홀리려고 가지고 다닐까. 저것들이 곧잘 여자들이 먹감는 곳만 찾아 다닌단 말야."

강도령이 남 먼저 욕지거리를 내놓는다.

"예--끼더런 자식들! 듣기 싫다. 집어치우고 가거라, 가!" 동네 젊은 녀석들은 모두 바위에서 일어나서 욕을 한 바탕씩 해 주고는 얼른 논두렁으로 올라가 서 진흙을 가득가득 움켜 냇물 속에 핏핑 내던졌다.

보광리 만무방들이 돌아간 뒤, 농부들은 머리에서 수건을 풀어 제각기 얼굴을 가리기가 바쁘게 너럭바위 위에 휘뚝휘뚝 쓰러졌다. 쓰러지자 곧 쿵쿨.

적막한 농촌의 밤이다. 다만 어디선지 늦그릇을 땅땅 두드리며 '남의 집 며느리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일하네.' 하고 학질 주문(呪文)을 외고 다니는 소리만 그쳤다 이었다 할 뿐. 길쌈하는 아낙네들의 노란 등잔불도 꺼지기가 바쁘다.

#### 4

가뭇은 오래오래 계속되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거무스름한 구름장이 모여들다가도, 해만 지면 그만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꼭 거짓말같이…… 보광사

절골을 살며시 넘어다보는 그놈도 알고 보면 얄미운  
가뭄 구름. 뒷 산성 용구렁에 안개가 자욱해도 헛일.  
아침놀, 물밑 갈바람은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어쨌든  
농부들은 수백 년째 전해 오고 믿어 오던 골짜지  
천기조차 온통 짐작을 못 할 만큼 되었다. 날마다  
불별만 짹짹----그들의 속을 태웠다. 콧물 만한  
물이라도 있는 곳에는 아직 도 환장한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풀물도 없어진 곳에는 강아지 새끼도 한  
마리 안보였다. 물 놓던 성동들도 삼 년 전 소위 수도  
수원지(水源池)가 생기고는 해마다 이  
모양---여기저기 탕고리수염 같은 벼포기가 벌써  
발강게 모깃불감이 되고,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는  
떡심 풀린 농부들의 보람없는 걱정만이 늘어갈  
뿐이었다.

걱정 끝에 하룻밤에는, 작년에도 속은 그놈의  
기우제(祈雨祭)를 또 다시 벌였다. 앞산 봉우리에 다  
장작불을 피워 놓고 성동리 사람들은 목욕 재계를  
하고 어떤 위인은 낡은 두루마기, 또 어떤 위인은  
제법 몽당 도포까지를 걸치고서 쪽 늘어섰다. 구장,  
들깨, 갓이 비뚤어진 봉구……. 옛날 훈장 노릇을 하던  
노인이 쥐꼬리보다 작은 상투를 숙이고서 제문을 읽자  
농부들은 일제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절을 하며 비를  
빌었다.

"만인간을 지켜 주시는 천상의 옥황상제

님이시여……!" 그들은 몇 번이나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을 따라 그들의 축원도 천상에 통하는 듯하였다.

기우제는 끝났다.

"깁무깁깁 쿵덕쿵덕, 깁무깁깁 쿵덕쿵덕……."

농부들은 풍물을 울리면서 산을 내려왔다.

동네 앞 타작마당에서 그들은 짐짓 태평 성대를 맞이한 듯 소고를 내두르며 한바탕 멋지게 놀았다. 조그만 아이놈들도 호박꽃에 반딧불을 넣어 들고서 어른들을 따라 우쭐거렸다.

"구, 구, 구장 어른, 저, 저, 구름 좀 봐요!"

봉구란 놈이 무슨 엄청난 발견이라도 한 듯이 엉덩춤을 추면서 외쳤다. 아닌게 아니라 거무스름한 구름장 하나가 달을 향해서 둥실둥실 떠왔다.

"얼씨구 좋다! 쿵덕쿵덕!"

농부들은 마치 벌써 비나 떨어진 듯이 꺽충꺽충 뛰어댔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 헛일---하루, 이 틀, 비는커녕 안개도 내리지 않고, 되려 마음만 졸였다. 불안은 각각으로 커져만 갔다.

그러한 하룻날 보광사 농사 조합에서 성동리의 유력자---쇠다리 주사와 면서기며 농사 조합 평의원인 진수를 청해 갔다. 그래서 그들이 저쪽의 의논에 응하고 가져온 소식---그것은, 오는 백중날 보광사에서 기우 불공을 아주 크게 올릴

예정이니까,성동리에서는 한 집에 한 사람씩 참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우 불공이라니 고마운 일이다.

"허지만 우리 같은 것 그리 많이 모아서 뭘 헌담? 불공은 중들 이 혈 텐데..." 농민들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안 갔으면 가만히 안 갔지, 보광사의 논을 부쳐먹고 사는 그들이라 싫더라도 반대는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왕이면 괘불(掛佛)까지 내걸어 달라고 마을 사람 측에서도 한 가지 청했다. 괘불을 내어 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소원 성취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종종 들어온 그들이었다.

하지만 절 측에서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첨에는 툭 잡아떼었다. 고까짓 일에 무슨 경비가 그 리 날 겐가? 어디, 과연 영험이 있나 없나 보자!---마을 사람들은 꽤 큰 호기심을 품고서 간곡히 청했다. 구장이 두어 번 헛걸음을 한 뒤, 쇠다리 주사가 나가서 겨우 승낙을 얻어 왔다. 그래서 칠 월 백중날! 보광사에서는 새벽부터 큰종이 팡팡 울렸다.

성동리 사람들은---농사 조합 평의원인 진수와 구장과 그 다음 몇 사람 빼놓고는 대개 중년이 넘은 아낙네들과 쓸데없는 아이들 놈뿐이었지만---장꾼같이 떼를 지어 절로 절로 올라갔다.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무려 백여 명의 노소승(老少僧)이 우글거리는 선찰 대본산 보광사에는

벌써 백중 불공차 이곳 저곳에서 모여든 여인들이 들끓었다.

오색 단청이 찬란한 대웅전을 비롯하여, 풍경 소리 그윽한 명부전, 팔 상전, 오백나한전……. 부처 모신 방마다 웅만한 따위는 발도 잘 못 들여놓을 만큼 사람들이 짹짹 들어찼다. 그들은 엉덩이 혹은 옆구리를 서로 맞대고 비비대기를 치며, 두 손을 높게 들어 머리 위에서부터 합장을 하고 나뭇이 종절을 하였다. 아들 딸 복 많이 달라는 등, 허리 아픈 것 어서 낫게 해 달라는 등……제각기 소원들을 은근히 빌면서. 잠자리 날개보다 더 얽은 생노방주 옷에 모두 제가 잘난 체 부처님 무릎 앞에 놓인 커다란 희사함(喜捨函)에 아낌없이 돈을 척척 넣고 가는 그들! 얼핏 보면 죄다 만석꾼의 부인, 알고 보면 태반은 빛내어 온 이들.

성동리 아낙네들은 명부전 뒤 으스스한 구석에서 잠깐 땀을 거두고서, 대웅전 앞으로 슬슬 나왔다.

자기들 판에는 기껏 차려 봤겠지만, 앉으려는 겐지 켜는 겐지 분간을 못할 만큼 풀이 뺏뺏한 삼베 치마 따위로선 그런 자리에 어울릴 리가 만무하였다. 다른 분들과 엄청나게 차가 있는 자기들의 몸차림을 못내 부끄러워하는 듯, 어름어름 차례를 기다리고 섰다.

그러자, 며칠 전부터 와 있던 진수 어머니가 어디서 왔는지 쫓아왔다. 아주 반가운 듯한 얼굴을 하고,

"여태 어디들 처박혀 있었어? 아까부터 아무리 찾아두 온…… 다들 부처님 참배는 했나?" 자기는 벌써 보살님이나 된 셈치는 어투였다.

"아직 못 봤수. 웬걸 돈이 있어야지!"

이 얼마나 천부당 만부당한 대답일까?

"그럼, 시주돈도 없이 절에는 뭘 하러들 왔수?"

진수 어머니는 입을 삐죽하더니, (이것들 곁에 있다가는 괜히 큰 망신하겠군!)

할 듯한 표정을 하고는 어디론지 핑 가 버린다.

베치마 패들은 잠깐 주저주저하다가, "돈 적으면 복 적게 받지 뭐."

하고는, 남편이나 아들들이 끼니를 굶어 가며 나뭇짐이나 팔아서 마련한 돈들을, 빛의 끝돈도 못 갚게 알뜰살뜰히도 부처님 앞에 바치고 나온다. 더러는 내고 보니 꽤 아까운 듯이 돌아다보기도 했다.

법당 뒤 조그마한 칠성각 안에는, 아기 배려고 백일기도한다는 젊은 아낙네. 지리하지도 않은지 밤낮으로 바깥 난리는 본체만체하고, 곁에 선 중의 목탁 소리에 맞춰 무릎이 닳도록 절만 하고 있다. 자기 말만 잘 들으면 틀림없다는 그 중의 말이 영험할진대 하마나 아기도 났을 것이다.

팡! 땡땡, 둥둥둥, 똑똑, 차르르!

종각의 큰북 소리를 따라 각전 각방의 종, 북, 바라머 목탁들이 한꺼번에 모조리 발광을 하자, 허주지의

지휘를 좇아 이빠진 노화상(老和尚)의 독경 소리와 함께 엄숙하게 불문이 뽁뽁 열리고, 새빨간 가사의 서른 두 젊은 중의 어깨에 고대하던 괘불(掛佛)이 메어나와, 대웅전 앞 넓은 뜰 한가운데 의젓이 세워졌다. 삼십여

장의 비단에 그려진 커다란 석가 불상! 장삼 가사를 펴려이는 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여든 구경꾼들까지 상감님 잔치에라도 참례한 듯이 놀라울 만큼 엄숙해졌다.

공양상이 나오자, 주지를 비롯하여 각방 노승들이 참배를 드리고, 다음으로 젊은 중, 강당 학인(學人), 그 밖에 애기중들, 그리고 중 마누라와 보살계에 든 여인들, 맨 나중에 일반 손님들의 차례였다. 중들을 빼놓고는 모두 앞을 다투어 돈들을 내걸고 절을 하며 소원 성취를 빌었다.

"어서 물러 나와요. 다른 사람도 좀 보게."

진수 어머니는 다 같은 보살 계원을 밀어내고 들어서더니, 자기는 돈을 얼마나 냈는지 절을 열 번도 더 했다. 주지 부인을 보고, 어머니 어머니하고 섰던 진수도, 남먼저 쫓아 나가서 대가리를 땅에 처박았다.

성동리 아낙네들은 이미 주머니가 빈지라, 부러운 듯이 곁에서 남이 하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추장스런 일이 다 끝난 뒤에야 겨우 기우



불공이 시작되었다. 괘불 앞에는 큰북이 나오 고, 바다가 나오고, 목탁이 나오고…… 성동리 구장이 동네서 굶어 온 돈을 내걸자 기도는 비로소 시작되었다.

"딱딱 딱딱,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팡, 둥, 찰, 딱 다글!" 목탁 소리와 함께 독경 소리가 높아지고 경문의 구절마다 팽과리, 북, 바라, 큰 목탁이 언제나 꼭 같은 장단을 짙는다.

성동리 사람들은 중들의 기도를 따라서 자기들도 절을 하였다. 중들의 궁둥이를 향해서. 어떤 중은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지막지한 촌뜨기들의 가지각색의 절들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불가절을 모르는 위인들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가며 합장절을 가르쳤다. 이번에는 물론 삼베 치마들도 한 몫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절이란 어

울리기는커녕 우습기가 한량없었다.

기도의 한 토막이 끝나려 할 즈음 잦은 고개를 넘는 경문, 신이 나서 어깨를 우쭐거리는 장단꾼, 청천백일 아래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제발 덕분에 비오기를 비는 농부들과 그들의 어머니며 아내들… …

기도가 설 참에 성동리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강당 안을 버릇없이 들여다보았다. 아마 여든도 훨씬 넘었을 듯한, 수염까지 허연 법사(法師)가 높다란 법탑 위에 평좌를 하고 앉아서, 옹이가 툭툭 불거진

법장(法杖)을 울리면서 방안이 뻑뻑하게 들어앉은, 한다한 보살 계원들을 앞에 두고 방금 설법의 삼매경(三昧境)에 빠진 모양이었다.

"보광산하 십자로, 무설노고 호손귀."

라고, 맑은 목청으로 외더니, 가만히 눈을 감는다.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모습이 마치 산부처 같았다. 뒷벽에는 '합장의 생활'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쓴, 설교 제목이 걸려 있었다. 방안은 죽은 듯이 조용하다.

"꽝!"

법사는 마침내 법장을 들어 법탑을 여무지게 울리면서 다시 눈을 번쩍 뜨더니, 청중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설법을 계속한다.

"…… 보광산 밑 네 갈래 길에서, 혀 없는 늙은 할머니가 손자를 부르며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혀 없는 할머니가 어떻게 손자를 부를까요?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에 정작 우리 불교의 깊은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알고 보면 무궁무진한 뜻이 있지요……" 청중은 무슨 소린지 알 바 없어 그저 장바닥에 갖다 둔 촌닭처럼 눈만 끄벅끔벅할 뿐이었다. 하 기야 진수 어머니처럼 몰라도 아는 체하는 여걸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보통 사람이 못할 짓, 어떤 이는 벌써 방앗공이 마냥 끄덕끄덕 즐기고만 있다.

다시 바깥 기도가 시작되었다. 기도중들은 장삼

가사가 담뱃 젓도록 땀을 흘려 가며 경문을 외고, 목탁, 팽과리를 때려치며, 북, 바라를 요란스럽게 울려댔다. 괘불과 불경 영험이 있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기도는 꽤 장시간, 경문이 늦은 고개, 잦은 고개를 오르내린 다음에 마침내 엄숙한 긴장 속으로 들어갔다. '나무아미타불'의 느린 합창 소리에 대응전 앞 넓은 뜰은 모래알까지 소르르 떨리는 듯싶었다.

5

최후로 믿었던 괘불조차 영험이 없고 가뭄은 끝끝내 계속됐다. 들판에는 반 이상 모가 뽑히고 메 밀 등속의 댕곡식이 뿌려졌으나, 끓는 폭양 아래서는 싹도 잘 아니 날뿐더러, 설령 낫더라도 말라지기 바쁠 지경이었다.

빨리 쌀밥 맛 좀 보자고 심었던 올벼도 말라져 버리고, 남은 놈이래야 필 염도 안 먹고, 새벽마다 성동리 골목골목에는 보리 능기는 절구질 소리만 힘없이 들렸다. 학교라고 갔던 놈들은 수업료를 못 내서 떼를 지어 쫓겨 왔다. 쫓겨오지 않고 끌려오기로서니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오랴! 부모들의 짜증이 무서워서 오다가 되돌아서는 놈은, 만일 탄로만 나고 보면---거짓말은 도둑놈 될 장본이라고, 여린 뺨이 터지도록 얻어맞곤 하였다.

"없는 놈의 자식이 먹는 것도 장하지 학교는 무슨 학교야?" 이 집에서도 퇴학, 저 집에서도 퇴학이다.

이런 처지에는 추석도 도리어 원수다. 해마다 보광리 새 장터에서 열리는 소위 면민 대운동회에 출장은커녕, 쇠다리 주사이나 진수네 집 사람, 그 밖에는 간에 바람든 계집애나 나팔에 미친 불강아지 같은 애새끼들밖에는 성동리에서는 구경도 잘 아니 나갔다. 그러나, 그래도 명절이라 해서, 사내들은 낡은 두루마기들을 꺼내 입고서 이집 저집 높은 이들을 뵈러 다니면서, 오래간만에 시금텃텃한 밀주(密酒)잔이나 얻어 마시고는 아무데나 툭툭 나 자빠져 잤다.

쇠다리 주사 댁 안뜰에는 제법 널뛰기까지 벌어졌으나, 아낙네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거의 다 마을의 젊은 처녀들이었다. 들깨의 누이동생 덕아도 저녁에는 한바탕 뛰었다. 그러나 그들도 마치 무슨 의논이나 한 듯이 죄다 곧 흐지부지 흩어졌다. 중추 명월이야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네 활개를 활짝 펴고 높이 솟아 보는 아찔한 재미야 잊었을 리 만무하되, 원수의 가난과 흉년은 이 동 네로부터 청춘의 기쁨과 풍속의 아름다움마저 뺏아 가고 말았다.

싱거운 추석이 지난 뒤, 성동리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지게를 지고, 여자들은 바구니를 들고서.

그러한 어느 날, 성동리 여자들은 보광사의 대사봉

중턱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다. 가동 늙은이를 비롯하여 화젯덥, 곰보네, 들깨 마누라, 덕아…… 그 중 제일 익숙한 것은 역시 가동덥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까투리처럼 그 산을 싸다닌 만큼, 어디는 어땡고, 어디는 무슨 버섯이 난다는 것을 환히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의 앞장을 서 다니면서 값나가는 송이라든가, 참나무 버섯 따위부터 썩썩 곧잘 뽑아 담았다. 다른 여자들은 부러운 듯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한 광주리 가득 채워 이고 이십 리나 넘어 걸어야 겨우 한 이십 전 받을 등 말 동안, 소케버섯, 싸리버섯 등속을 딸 뿐 이었다.

하늘을 가리운 소나무와 늙은 잡목 그들은 음침하고도 축축하였다. 지나간 이백십 일 풍에 부러진 느티나무 가지는 위태롭게 머리 위에 달려 있고, 이따금 솔잎에서는 차디찬 물방울이 푹푹 떨어졌다. 역새랑 인동덩굴이 우거진 짙은 밭 한 번 잘못 들여놓다간 고놈의 독사 바람에 또 순남네처럼 억울하게 죽을 판. 하지만 가동 늙은이의 말이 옳지, 가뭄 탓으로 그 해는 버섯조차 귀했다.

덕아와 같은 젊은 계집애들은 악착스럽게 무서운 절벽 끝에 붙어 있었다. 아찔아찔 내둘러서 밑을랑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놀란 참새처럼 가슴만 볼록거렸다. 석양 받은 단풍잎에 비쳐 얼굴은 한 층 더 붉어 오나 입도룩 부지런히 씹어 빠진 버섯만

보살피고 있는 것이었다. 재 너머 나무터에서는  
초군들의 긴 노래가 구슬프게 들려 왔다---

지리산천 가리 갈가마귀야, 이내 속 그 뉘 알꼬……!  
낮을 들면 으레 나오는 노래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들이 싸대던 비탈  
위에서 갑자기 사람 소리가 나고 조그마한 애 새끼  
놈들이 까치집 만큼씩한 삭정을 해서 지고는, 선불  
맞은 산돼지 새끼처럼 혼을 잃고 쫓겨 왔다. 맨  
처음에 선 놈이 차돌이, 그 다음은 개똥이……제일  
콩무니에 처져서 밑빠진 고무신을 벗어 들고 허둥대는  
놈은 그 해 가을에 퇴학당한 상한이란 놈이다.

"예끼 요놈의 새끼들! 가면 몇 발이나 갈 줄 아니?"  
악치 듯한 소리와 함께 보광사 산지기 수염쟁이가  
뒤따라 나타났다.

"아이구머니!"

여자들도 겁을 먹고 도망질이다. 잡히면 버섯을  
빼앗기고 혼이 날 판. 그루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  
솔가지에 치마폭을 찢기는 이, 그러나 바구니만은  
버리지 않고 내달린다.

화젯덥은 제 도망질보다 쫓겨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르느라고, 몇 번이나 바구니를 내던질 뻔하면서  
곤두박질을 쳤다.

"아이구 차돌아, 그만 잡히려무나!"

그래도 아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달아만 난다.

자갈비탈에서 지계를 진 채 자빠지는 놈, 엎어지는 놈, 그러다가 갑자기 움츠리고 앉는 놈은 응당 날카로운 그루터기에 발바닥을 찔렸을 것이다.

산지기는 그 애의 나뭇짐을 공치듯이 차서 굴리어 버리고는, 다시 벗나무 몽둥이를 내두르며 앞 옛놈을 쫓는다. 그러자 의상 대사의 공부터라는 바위 밑으로 쫓겨 가던 아이들은 갑자기 무춤하고 발을 멈췄다.---동무 하나가 헛디디어 헨 누더기 날리듯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놀라고 선 영문을 알게 된 산지기는 부릅떴던 눈을 별안간 가늘게 웃기며, "예끼 이놈들, 왜 있으라니까 듣지 않고 자꾸만 달아나더니 결국 이런 변을 일으키지 않나?" 마치 그들이 동무를 밀어뜨리기나 한 듯이 나무랐다.

화젯덥이 미친 듯이 날아 왔다. 다행히 차돌이가 있는 것을 보고는 다소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상한이가 떨어졌어요!"

화젯덥은 대답도 않고서, 번개같이 비탈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갔다.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상한이는 망태기를 진 양으로 험한 바위틈에 내려 박혀 있었다. 화젯덥은 바구니를 내던지고서, 상한이를 안아 내었다. 숨은---벌써 그쳐 있었다.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게 부서져서 피투성이가 된 위에, 한쪽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밑 빠진 고무신이 한 짝 얹어져 있었다.

화젯덥은 한동안 녀을 잃었다. 그러나 우두커니 서 있는 산지기의 얼굴을 노려본 그녀의 눈에는 점점 살기가 떠올랐다.

"당신은 자식이 없소?"

칼로 찌르듯 뼈 물었다.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흐---!참! 없다면 하나 낳아 줄 건 가?" 산지기는 뻘뻘스럽게, 털에 쌓인 입만 비죽할 뿐이었다.

"뭐라구요? 액 여보, 절에 있다구 너무 하오. 아무리 산이 중하기로서니 남의 자식의 목숨을 그렇게 안단 말유?"

화젯덥은 그 자의 거만스러운 상판대기에 똥이라도 집어 씹우고 싶었다.

"야, 이 여편네 좀 봐! 아아주 누굴 막 살인죄로 몰려구 드는군. 건방진 년 같으니, 천지를 모르고서 괜---히. 왜 이따의 새끼 도둑놈들을 빠뜨렸느냐 말야? 이년이 저부터 요런 도둑질을 함부로 하면서 뻘뻘스럽게---"

산지기는 화젯덥의 버섯 바구니를 힘대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어디론지 핑 가 버렸다. 초등들의 죄는, 결코 그 산지기의 핑계말과 같이, 돈주고 사지 않은 구역에서 딸나무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까치집 만큼씩한 삭정이 한 꾸러미를 목표로, 식은 밥 한 덩어리씩을 싸들고는 어른들을 따라 이십 리도 더 되는, 동네서 사 놓은 나무터까지 정말 갔던 것이다. 구태여 트집을 잡는다면, 돌아오던 길에 철부지한 마음으로 떨어진 밤을 주우려고 길가 잡목 숲속에 잠깐 발을 들여 놓은 것 뿐이었다.

얼마 뒤에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파랗게 되어 달려왔다. 가동 할머니다. 그녀는 곁엿 사람은 본체만 체,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서, 늘어진 손자만을 눈이 빠지도록 노려보더니, 그만 '하하하!' 웃어 댔다.

"정말 죽었구나! 너가 정말 죽었구나! 죽인 중놈은 어딜 갔니… …" 그녀는 녀두리를 하는 무녀(巫女)처럼 한바탕 떠들더니 또 다시 '하하하!'한다.

가동 늙은이는 완전히 실신을 하였다. 물 건너로 품팔이간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십 년이 가깝도록 이렇단 소식이 없고, 며느리조차 달아난 뒤로는, 그 손자 하나만을 천금같이 믿고 살아온 것이었다.

이윽고 산지기는 보광사 파출소에서 순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가동 할멈은 한참 동안 산지기를 노려보더니, '예끼 모진 놈!'하고 이를 덜덜 갈며 발악을 시작했다.

"고라 고랏! 안 대겠소. 나무 산에 도둑지리 보낸 단신 자리 몬 했소. 이 안반 사라미 아니 주깃소!"

순사는 와락 덤벼드는 가동 할멈을 우악스럽게

물리쳤다. 그러나 밀리면서도, "아이구 이 모진 놈아, 천벌을 맞을 놈아! 내 자식 살려 내라, 살려 내----" "고론 마리 하문 안 대겠소!"

순사는 눈을 잔뜩 부릅뜨고 노파를 막아섰다.

"여보 나리까지도 그러시우---?"

가동 할멈은 장승같이 눈을 흘기더니 갑자기 또 '하하하!' 미친 웃음을 친다.

"아이구 상한아! 상한아! 귀신도 모르게 죽은 내 새끼야---" 하고 할머니는 마치 노래나 하는 듯이, "어허야 상사뒤여, 지리산 갈가마귀 그를 따라 너 갔느냐? 잘 죽었다. 내 손자야, 명산 대지에서 너 잘 죽었구나---하하 하……!"

이렇게 가동 늙은이는 그만 영영 미쳐 버리고 말았다.

## 6

은하수가 남북으로 돌아져도 성동들은 가을답지 않았다. 전 같으면 들이차게 익어 가는 누른 곡식에, 농부들의 입에서도 저절로 너털웃음이 흘러나오고, 아낙네들은 가끔 헝쌀 되나 마련해서 장 출입도 더러 할 것이로되, 그 해는 거친 들을 싱겁게 지키는 허수아비처럼 모두들 맥없이 말라 빠졌다.

보광사로부터 산 땔나무터에도 인제는 더 할 것이 없고, 또 기한이 지나자, 사내들은 별반 할 일 이 없었다. 간혹 도둑 나무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붙잡히면 혼이 나곤 했다.

첫여름에 무단히 경찰서로 끌려간 고서방은, 남의 논두렁을 잘랐다는 얼토당토않은 죄에 몰려 괜히 몇 달간 헛고생을 하다가 추석 지난 뒤에 겨우 놓여 나왔으나, 분풀이는커녕 타고난 천성이라 도둑 나무도 못 해 오고 꼬박꼬박 사방 공사 품팔이나 다녔다. 길이 워낙 멀고 보니, 그나마 닭 울 자 집을 나서야 되고, 샅이라곤 또 온 종일 허둥대야 겨우 삼십 전 될락말락. 그러나 이렇게 다니는 것은 물론 고서방만이 아니었다.

아낙네들은 버섯 철이 지나자 인젠 멧도라지나 캐고, 그렇지 않으면 콩잎 따기가 일어났다. 그것 도 자기 산 없고, 자기 밭 적은 그들은 옥 얻어먹기가 일쑤였다.

마침내 군청에서 주사 나리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의 실지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다만 주림과 불안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래도 보광사에서는 갑자기 간평(看坪)을 나왔다. 고자쟁이 이 시봉과 본사 법무원(法務院)에서 셋---도합 네 사람이 나왔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논 소작인으로서는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앓고 기다렸다. 농사 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이내 모자랐든지, 머슴 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 나오는 통에, 대문밖에 죄인처럼 쭈그러뜨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키었다.

작인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 어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서 방은 지난 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헴, 에헴, 에---헴!"

치삼노인도,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뿜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그제 자기 집농사 사정을 여쭙어 보려고 했다.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소. 메밀을 갈았으면 메밀을 간 세만 내면 되지 않겠소?" 이시봉은 거만스런 반말로써 사정없이 쏘았다.

치삼노인은 다시 말해 볼 여지가 없었다.

"여보, 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법이 아니오. 괜히

남 술맛 떨어지게!" 곁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편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의 권하는 말에 치 삼노인은 다행히(!)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허 참, 복받겠다고 멀쩡한 자기 눈 시주해 놓고 저런 설움을 받다니 온!'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 체 만 체, 뼈만 왈왈 떨리는 다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수네 집 대문밖에, 노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어서 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더러는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잡담이나 하고 고누나 두던 늙은 친구들도 나중에는 역시 불평이 나왔다.

"제에기, 간평을 나온 겐가, 술을 먹으러 나온 겐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머리끝이 희끔희끔한 친구가 이렇게 불통하니깐, 곁에 있던 까만 딱지가, "글쎄 말야, 이것들이 또 논을랑 둘러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료를 정할 것 아닌가?" "제에기, 우, 우리 논에는 또 안---가겠군. 자---작년에도 앉아서 세만 자---자 잔뜩 매더니……."

봉구란 놈도 한 마디 보태었다.

"설마 자기들도 사람인 이상 금년만은 무슨 생각이 있을 테지!" 한 시절 보천교에 미쳐서 정감록이 어떠니 하고 다니던 최서방의 말이다. 삼십을 겨우 지난 놈이 아직도 상투를 달고, 거짓말 싱거운 소리라면

'소진장의(蘇秦張儀)'라도 못 따를 것이고, 한동안 보천교에 반했을 때는 '육조판서'가 곧 된다고 허풍을 치던 위인이다.

"이 사람 판서,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걸세. 생각은 무슨 생각! 자네 판서나 마찬가지로 뭐." 툭 쏘는 놈은, 일본서 탄광밥 먹다 온 까만 딱지 또쭤이었다.

이윽고 술이 끝났다. 모가지 째까지 별경도록 취해서 나서는 간평원들! 금테 안경을 쓴 진수 아가 사립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자, 그들은 인도하는 진수의 뒤를 따라서 단장과 함께 비틀거렸다. 그러한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노랗고 여윈 소작인들이 마치 유형수(流刑囚)처럼 묵묵히 따랐다.

술취한 양반들에게 옳은 간평이 될 리 없었다.----그거 작인들의 말은 마이동풍 격으로, 논두렁에도 바특이 들어서 보는 법도 없이 다만 진수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왜말을 주절거리면서, 그야말로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흐지부지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짐짓 성실한 듯이 이따금 단장을 쳐들어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들깨의 눈 곁을 지날 때였다.

"왜 메밀을 갈았소?"

시봉은 들깨의 수인사 대답으로 이렇게 물었다.

"헐 수 있어야죠. 마른 모포기 기다렸댔자 열음 앓을 게고……" 들깨는 한 손에는 콩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열 적게 대답했다.

"메밀은 잘 됐구먼."

"뭘요. 이것도 늦게 뿌려서……"

들깨는 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앞두령으로 걸어갔다.

거기서는 아기를 등에 업은 들깨의 아내와 누이동생이 바쁘게 두령 콩을 베고 있었다. 덕아는 열 일곱의 처녀로서는 놀랄 만큼 어깻죽지가 벌어지고, 돌아앉은 뒷모습이 한결 탐스러웠다. 자기 뒤에 가까이 낫설은 사내들이 와선 것을 깨닫자, 푹 눌러 쓴 수건 밑으로 엿보이는 두 볼이 저으기 붉어진 듯은 하나, 낫을 든 손은 여전히 실 새가 없었다.

"오빠! 왜 암말도 못 했소?"

간평꾼들이 물러가자, 덕아는 시무룩해 가지고 돌아오는 들깨를 안타까운 듯이 쳐다보았다.

"말은 무슨 말을 해?"

"세 좀 매지 말라구……"

"그놈들 제멋대로 매는 걸 어떻게."

"그럼 오빠는 이까짓 메밀 간 세도 바치려네?"

덕아는 자못 서글퍼 하는 말씨였다.

"글쎄, 먹고 남으면 바치지!"

들깨는 픽 웃었다. 그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무던히

배짱이 커졌다.

덕아는 오빠의 말에 확실히 일종의 미더움을 느꼈다. 그러나 허리에 낫을 여전히 꽂은 채 담배만 뽀뽀 피우고 앉은 오빠의 마음속은 결코 그리 후련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메밀밭 위를 바빠 나는 고추잠자리처럼 조급하지도 않았지만.

이튿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진수의 집 사랑에 불려 가서, 진수의 입으로부터 제각기 소작료를 들어 알았다. 그리고 그 무서운 결정에 다들 놀랐다.

그러나 가장 현대적 마름인 소위 평의원 앞에서, 버릇없이 덤뻑 불평을 늘어놓다가는 어느 수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라, 작인들은 내남없이, '허 참! 툭툭 다 떨어 봐두 그렇게 될 등 말 등한데……?' 따위의 딱심 풀린 걱정 말이나 중얼거릴 뿐 모두 맥없이 돌아갔다.

들깨와 철한이들---이 동네 교풍 회장인 쇠다리 주사의 말을 빌면 동네서 제일 콧등이 세고 어긋한 놈들은, 벌써 버릇이 되어서, 미리 의논이라도 한 듯이, 그날 밤에도 진수의 집에서 나오자 슬슬 야학당으로 모여들었다. 어느새 왔는지 곰보 고서방도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다른 때보다 한풀 더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불강아지 새끼 같은 야학생들을 죄 돌려보내고는, 까만 딱지 또쭈이가 큰방으로부터 돌아왔다. 더떨더떨 자란 머리털 위에



분필 가루를 허영게 쓰고.---서른 세살로는 엄청나게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소위 콧등이 센 놈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에  
모여서, 그날 그날의 피로를 잊어 가며 잡담도 하고  
농담들도 하다가는, 또쭈이로부터 일본의 탄광  
이야기도 듣고, 또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소 작  
쟁의 얘기도 들었다. 더구나 소작 쟁의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자기들의 일같이 눈을 꿈벅거리며,  
혹은 입을 다물고 들었다.

그날 밤에도 그들은 이속토록 거기 모여서 놀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올 곳 없는 그 해 소작료를  
어떻게 할까 하는 말이 누구의 입에선지 나오게  
되었다.

## 7

쇠다리 주사 댁 감나무에 알감이 주렁주렁 달리고,  
여물어진 박들이 희뜩희뜩 드러난 잿빛 지붕들 에  
고추가 발갛게 널리자 가을은 깊을 대로 깊었다.

그러나 농민들 생활은 서리맞은 나뭇잎같이 점점  
오그라져서, 밤이면 야학당에 모여드는 친구가 부쩍  
늘어갔다. 하룻밤에는 몇 사람이 쇠다리 주사댁 감을  
따왔다.

"빨리들 먹게!"

또쭈이는 뒷일이 떠름했지만, 다른 친구는 오히려  
고소한 듯한 표정을 하였다.

"아따, 개똥이 저놈, 나무 재주는 아주 썩 잘 해!  
그저 이 가 지 저 가지 휘뚱휘뚱 타고 다니는 것이 꼭  
귀신갈데."

철한이는 먹기보다 감 따던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했다.

"먹고 싶어 먹었다. 체하지는 말어라!"

한 놈이 벌써부터 두 가슴을 두드린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개를 골라 든다. 사실, 퍼런 콩잎이랑 고춧잎  
따위에 물린 그들의 입에, 감은 확실히 일종의  
별미였다.

"제에기, 또 연설 마디나 있겠지?"

또쫄이가 담배를 피워 물며 두덜대니깐, 바로 곁에  
있던 고서방이, "연설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빌어도  
하는 수 없지!"

자칫하면 동네 집회소---이 야학당에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소위 사상 선도의 연설이 있곤 하였다.  
그러나, 연설만으로써 어떻게 될 리는 만무하였다.  
더구나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교풍 회장 쇠다리  
주사나 진흥회장 진수 따위가 씨부렁대는 설교에는  
인제 속을 사람은 없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은 결국  
자기들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소작료도, 빛도 인젠  
전과 같지는 두렵지가 않았다. 그저 제가 지은  
곡식이면 모조리 떨어다 먹었다. 뿐만 아니라

가다가는 남의 것에도 손이 갔다. 그러할수록 동네의 소위 유산자인 쇠다리 주사와 진수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와졌다.

이튿날 아침, 철한이는 안골 논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바쁘게 낮을 휘둘렀다. 찬물 내기가 되어서 거기만은 겨우 가뭄을 덜 타고, 제법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잇달아 흥타령을 부르면서, 지난밤 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자기의 혼사말을 문득 생각하였다. 상대자는 성동리에서 제일 얌전하다는 덕아였다. 한동안 치삼노인이 쇠다리 주사의 꿀떡 같은 말에 꺾였을 때는, 쇠다리 의 첩으로 가게 되느니 어찌느니 하는 소문이 퍼져서 울고 불고 하던 덕아가 결국 자기에게 오련다 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오빠 들깨의 숨은 힘이 크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빠가 한없이도 고마웠다. 철한이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덕아가 떠올랐다. 한동네에 살면서도 자기와 마주치면 곧잘 귀밀을 불리며 지나가던 덕아! 또렷한 콧잔등에 무엇을 노 생각하는 듯한 두 눈! 그리고……그렇 다. 지난 봄 덕아가 바로 그 눈에 모내기를 왔을 때 본 그 희고 건강한 팔다리!---예까지 생각하다가 철한이는 혼자서 픽 웃으며 머리를 절절 흔들며 공상을 흠어 버리고는, 베어 둔 벼단을 주섬주섬 안아서 지게에 얹었다.

그걸 해 지고, 총총히 자기 집 돌담을 돌아올 때,

그는 갑자기 발을 무춤 멈추었다.

안에서 뜻밖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새어 나왔기 때문이다.

"미친 소리 말어! 이런 영세판에 뭐 자식 장가?"

철한이는 그 말에, 일껏 가졌던 희망이 덜컥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행여 누가 볼까 부끄럽기도 했지만, 잠깐 더 어름뎠다.

"자식을 두었으면 으레 장가를 들여야지, 그럼 살기 딱하다고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눈물겨운 대꾸가 들렸다.

"그래도 곧 잘했다는 게로군. 앙큼한 년 같으니!"

"어디 종년으로 아시우? 늙어 가며 특하면 이년 저년 하게" "저런 죽일 년 좀 봐!"

"죽일려든 죽여줘요. 나도 임자에게 와서 스무 해가 넘도록 종노릇도 무던히 해 주고 자식 도 장가들 나인데, 인젠 이년 저년 하는 소린 더 듣기 싫어요." "저년이 누구 앞에서 곧장 대꾸를 종종거리는 거야! 예끼, 미친 년, 죽어라 죽어!" 아버지의 벼락같은 호통과 함께 질그릇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까지 들렸다.

철한이는 부리나케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다.

"제발, 이것 좀 놔요. 잘못했소. 내 잘못했소."

어머니는 머리를 얼싸쥐고 빌었다.

"아버지! 이거 노세요. 아무리 짜증이 나시더라도 이게 무슨 꼴 이여요. 이웃 사람 웃으리 다."

아들이 뒤에서 안고 말리니까, 아버지는 못 이기는 듯이 떨어졌다. 허나 분을 못 참고서, "이 죽일 년아, 나는 여태 누구 종노릇을 해 왔기에? 너희들이 들어서 내 뺨다귀까지 깎아 먹지 않았나? 응, 이 소견머리 없는 년아!"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어졌다.

싸움 바람에 식겁을 한 막내 아들놈은 아침밥도 얻어먹지 못하고서 눈물만 그렁그렁해 가지고 학교로 떠났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넋잃은 사람처럼 되어서 뒤꼍 치자나무 앞에 앉아 있었다. 외양간 앞으로 돌아가 혼자 울가망하게 서서 훗담배만 피워 대는 아버지의 손아귀에는, 바칠 기한이 지난 세금 고지서와 함께 농사 조합에서 빌어 쓴 비료 대금 독촉장이 꾸겨져 들려 있었다. 그는 문득 외양간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순순히 서 있는 쇠등을 슬쩍 쓰다듬어 본다. 그것이 마치 악착한 생활에 함께 부대끼는 자기의 아내나 되는 듯이…… 긴 눈썹 사이로 움푹 들어간 그의 눈에는 어느새 웬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철한이의 결혼은,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행례가 있었다.

"아이고, 어느 도둑놈이 그 벼를 베어 갔을까?  
생벼락을 맞아 죽을 놈! 그 벼를 먹고 제가 살 줄  
알아…… 창자가 터질꺼여 터져!"

하며 봉구 어머니가 몽당치마 바람으로 이 골목 저  
골목 외고 다니고, 호세 징수를 나온 면서기가 그녀를  
찾아다니던 날, 성동리에서는 구장 이외 고서방, 들깨,  
또쫄이 들 사오 인이 대표가 되어 보광사 농사  
조합으로 나갔다. 그들의 하소연은, 자기들이 봄에  
빌어 쓴 소위 저리자금(低利資金)의 ---대부분은  
비료 대금이지만---지불 기한을 조금 더 연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광사 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또 소작료  
매석에 대해서 너 되씩이나 되는 조합비와 비료  
대금과 그것에 따른 이자를 바쳐야만 되었다. 그리고  
비료 대금은 값는 기한이 해마다 호세와 같았다.

의젓하게 교의에 기댄 채 인사도 받는 양 마는  
양하는 이사(理事)님은 빌 듯이 늘어놓는 구장의  
말일랑 귀 밖으로, 한참 '씨끼시마'겁데기에 낙서만  
하고 있더니, 문득 정색을 하고는, "그런 귀치 않은  
논은 부치지 않는 게 어때요?"

해 던졌다.

"....."

"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두 인젠 그런  
우는소리는 듣기만이라도 귀찮소. 호세만 내고

버티겠거든 어디 한 번 버티어들 보시구려!"

"누가 어디 조합 돈은 안 내겠다는 겁니까. 조금만 연기를 해 달 라는 거지요." 이번에는 또쭤이가 말을 받았다.

"내든 안 내든 당신들 입맛대로 해 보시오. 난 이 이상 더 당신들과는 이야기 않겠소." 이사남은 살결 좋은 얼굴에 적이 노기를 띄우더니, 그들 틈에 끼여 있는 곰보를 힐끗 보고는, "고서방 당신은 또 뭘 하러 왔소? 작년 것도 못 다 내고서 또 무슨 낮으로 여기 오우?" 매섭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일행은 허탕을 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밑 고서방의 논을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그에 '입도차압(立稻差押)'의 팻말이 붙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차압 팻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도 못 대다니?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꼼짝없이 인젠 목숨을 빼 앗긴다는 생각이 앞섰다.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 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고서방이 지어 두고 간  
벼이삭과 차압 팻말을 휘두들겼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당산 등에서 여우가  
울어 대고, 외상 술도 먹을 곳이 없어진 농민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하루 아침, 깨어진 징소리와 함께 성동리  
농민들은 일제히 야학당 뜰로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열음 못한 빈 짚단이며 콩대, 메밀대가 잡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긴 줄을 지어 가지고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해 보려고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아낙네들은 전장에나 보내는 듯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가지고 남정들을 보냈다. 만약 보광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고 뒷일을 염려했다.

그러나 또쭤이, 들깨, 철한이, 봉구---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 짚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벌써 동네 뒤  
산길을 더위 잡았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공무니에 붙어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댔다.





## 복덕방

이태준

철석, 앞집 판장 밑에서 물 내버리는 소리가 났다. 주먹구구에 골독했던 안초시에게는 놀랄 만한 폭음이었든지, 다리 부러진 돋보기 너머로, 뚝 모이를 쪼으려는 닭의 눈을 해가지고 수챗구멍을 내다본다. 뿌연 뜨물에 휩쓸려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다. 호박 꼭지, 계란 껍질, 거피해 버린 녹두 껍질.

“녹두 빈자떡을 부치는 게로군, 흥…….”

한 오륙 년째 안초시는 말끝마다 ‘젠-장……’이 아니면 ‘흥!’ 하는 코웃음을 잘 붙이었다.

“추석이 벌써 널 모레지! 젠-장…….”

안초시는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었다. 기름내가 코에 풍기는 듯 대뜸 입 안에 침이 흥건해지고 전에 괜참게 지낼 때, 충치니 풍치니 하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래잇니가 송곳 끝같이 날카로워짐을 느끼었다.

안초시는 그 날카로워진 이를 빈 입인 채 빠드득 소리가 나게 한번 물어 보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

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 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내 자기의 때문은 적삼 생각이 났다. 소매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날래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한 조박의 녹두빈자나 한잔의 약주로써 어찌지 못할, 더 슬픔과 더 고적함이 품겨 있는 것 같았다.

혹혹 소매 끝을 붙어 보고 손 끝으로 튀겨 보기도 하다가 목침을 세우고 눕고 말았다.

“이사는 팔하고 사오는 이십이라 천이 되지…… 가만…… 천이라? 사로 했으니 사천이라 사천 평…… 매 평에 아주 줄여 잡아 오 환씩만 하게 돼두 사 환 칠십 오 전씩이 남으니, 그럼…… 사사는 십륙 일만 육천 환하구…….”

안초시가 다시 주먹구구를 거듭해서 얻어 낸 총액이 일만 구천 원, 단 천 원만 들여도 일만 구천 원이 되리라는 셈속이니, 만 원만 들이면 그게 얼마가?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마가 화끈했다. 도사렸던 무릎을 얼른 곧추세우고 뒤나 보려는 사람처럼 쪼그렸다. 마코 값이 변연히 빈 것인 줄 알면서도 다시 집어다 눌러 보았다. 주머니에는 단돈 십 전, 그도 안경 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 딸에게서 사오십 전씩 얻어 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보내고 말던 최후의 십 전, 안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 내었다. 백통화 한 푼을 엮은 야윈 손바닥, 가만

히 떨어졌다. 서참의(徐參議)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잔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 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福德房)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참의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낮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쟁이의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 나 내려다볼 때는, 으레 엄지손가락이 앞뺨처럼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재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아, 젠-장.”

하고 연습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꼭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보낼 돈이면서도 그 십 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

이 복덕방에는 흔히 세 늙은이가 모이었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잖지 몰라, 늘 갓을 쓰고 앉아서 행길을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방울 큰 노인

은 주인 서참의다. 참의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는 다섯 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력저력 심심파적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 중개업(家屋仲介業)이었다.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팔구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稅金)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런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貫鐵洞), 다 옥정(茶屋町) 같은 중앙지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만 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그 판에 봄 가을로 어떤 달에는 삼사백 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嘉會洞)에 수십 간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倉洞)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建陽社) 같은 큰 건축회사가 생기어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 셈이다. 그러나 이십여 간 집에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참의의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뭇값에 졸릴 형편은 아니다.

“세상은 먹구 살게는 마련야…….”

서참의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제는, 한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개와 오늘의 자기, 한날 가쾌(家?)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갈보 따위가 사글셋방

한 간을 얻어 달래도 네- 네 하고 따라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닐 수도 없는 것이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感懷)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그러나 호반(武人)들의 기개란 흔히 혈기(血氣)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 몸에서 혈기가 쫓을 따라 그런 감회를 일으킴조차 요즘은 적어지고 말았다. 하루는 집에서 점심을 먹다 듣노라니 무슨 장사치의 외는 소리인데 아무래도 귀에 익은 목청이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인데 제법 무엇을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병이나 간장통 팔거-쏘-’ 하는 소리이다. 그런데 그 목청이 보면 꼭 알 사람 같아 일어서 마루 들창으로 내어다보니, 이번에는 ‘가마니나 신문 잡지나 팔거-쏘-’ 하면서 가마니 두어 개를 지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중노인이나 된 사나이가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를 어디서 알았으며 성명이 무엇이며 애초에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가 감감해지고 말았다.

“오-라! 그렇군…… 분명…… 저런!”

하고 그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 유리병과 간장통을 외는 소리가 골목 안으로 사라져 갈 즈음에야 서참의는 그가 누구인 것을 깨달아 낸 것이다.

“동관(同官) 김참의…… 허!”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연소하였으나 학식과 재기가 있는데다 호령 소리가 좋아 상관에게 늘 칭찬을 받던 청년 무관이었습니다. 이십여 년 뒤에 들어도 갈 데 없이 그 목청이요 그 모습이었다. 전날의 그를 생각하고 오늘의 그를 보니 적이 감개에 사무치어 밥숟가락을 멈추고 냉수만 거둬 마시었다.

그러나 전에 혈기 있을 때와 달라 그런 기분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중학교 졸업반인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갔다 들어서는 것을 보고, 또 싸전에서 쌀값 받으러와 마누라가 선선히 시퍼런 지전을 내어 헤는 것을 볼 때 서참의는 이내 속으로,

‘거저 살아야지 별수 있나. 저렇게 개가죽을 쓰고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에헴.’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 절박한 친구에다 대면 자기는 얼마나 훌륭한 지체냐 하는 자존심도 없지 않았다.

‘지난 일 그까짓 생각할 건 뭐 있나. 사는 날까지…… 허허.’

여생을 웃으며 살 작정이었다. 그래 그런지 워낙 좀 실없는 티가 있는데다 요즘 와서는 누구에게나 농지거리가 늘어 갔다. 그래 늘 눈이 달리고 뿔로통한 입으로는 말끝마다 젼-장 소리만 나오는 안초시와는 성미가 맞지 않았다.

“쫘보야, 술 한잔 사주랴?”

쫘보라는 말이 자기를 업수이여기는 것 같아서 안초시

는 이내 발끈해 가지고,  
“네깃 놈 술 더러 안 먹는다.”

한다.

“화투패나 밤낮 떼면 너이 어머이 살아온다덴?”

하고 서참의가 발끝으로 화투장들을 밀어 던지면 그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췌근췌근하다가 부채면 부채, 담뱃갑이면 담뱃갑, 자기의 것을 냉큼 집어 들고 다시 안 올 듯이 새침해 나가 버리는 것이다.

“조계 계집이문 천생 남의 첩감이야.”

하고 서참의는 꺾꺾 웃어 버리나 안초시는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한 이틀씩 보이지 않았다.

한번은 안초시의 딸의 무용회(舞踊會) 날 밤이었다. 안경화(安京華)라고, 한동안 토월회(土月會)에도 다니다가 대판(大阪)에 가 있느니 동경(東京)에 가 있느니 하더니 오륙 년 뒤에 무용가로라 이름을 날리며 서울에 나타났다. 바로 제일회 공연 날 밤이었다. 서참의가 조르기도 했지만, 안초시도 딸의 사진과 이야기가 신문마다 나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서 공표를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 가지고 서참의뿐 아니라 여러 친구를 돌려줬던 것이다.

“허! 저기 한가운데서 지금 한창 다릿짓하는 게 자네 딸인가?”

남은 다 멍멍히 앉았는데 서참의가 해괴한 것을 보는 듯 마땅치 않은 어조로 물었다.



“무용이란 건 문명국일수록 벗구 한다네그려.”

약기는 한 안초시는 미리 이런 대답으로 막았다.

“모르겠네 원…… 지금 총각놈들은 모두 등신인가 바…….”

“왜?”

하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탄하였다.

“우린 총각 시절에 저런 걸 보문 그냥 못 배기네.”

“빌어먹을 녀석…… 나잇값을 못 하구 개야 저건 개…….”

벌써 안초시는 분통이 발끈거려서 나오는 소리였다.

한 가지가 끝나고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다.

“도루, 차라리 여배우 노릇을 덩기라구 그래라. 여배운 그래두 저렇게 넓적다린 내농구 덤비지 않더라.”

“그 자식 오지랴 경치게 넓네. 네가 안방 건는방이 멧 칸이요나 알았지 뭇 쥐뿔이나 안다구 그래? 보기 싫건 나가렴.”

하고 안초시는 화를 발끈 내었다. 그러니까 서참의도 안방 건넌방 말에 화가 나서 꽤 높은 소리로,

“넌 또 뭇 아니? 요 쫘보야.”

하고 일어서 버리었다.

이 일이 있는 후 안초시는 거의 달포나 서참의의 복덕방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 걸 박희완(朴喜完) 영감이 가서 데리고 왔었다.

\*

박희완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쏠쏠히 놀러 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代書業)운동을 한다고 ??속수국어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 그 ??삼국지(三國志)?? 읽던 투로, “긴-상 도코-에 유키이마스카.”

어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국어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총독부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엮은 가져 뭘 허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독본??을 푹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구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걷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애?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샳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어서 어떤 덴 훔옷이야. 암만해두 사 쓸 한 벌 사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 오다 한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인제 사드릴라구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샴시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 하였다. 샴시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일 원만 달래도 일 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오십 전 한 닢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 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테만 오륙 원 먹은 것이어서 오십 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오십 전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출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짹짹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오십 전은 담뱃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린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시는 말은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오십 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두 한 달에 삼 원 팔십 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 달라는 소리로도 들리었다.

“그게 내게 상관 있니?”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구 위해 들었게요 그럼?”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문 살아서 한푼이라두 다우. 죽은 뒤에 내가 알 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오십 전이문 왜 안경다릴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오십 전은 또 마코 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 없어. 더구나 딸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긴요성(緊要性)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끼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 건축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갓 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덜미에서 소리를 짹 지른다. 돌아다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곷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예순이 널 모레…… 쟈-장할 것.”

초시는 늙어 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만 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 보고 싶었다. 지금이 꼴로서야 문화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재미때나 파리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즉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면 송장이나 다름없지 뭐가?”

초시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자가 이미 오래였다.

“무슨 수가 없을까?”

또,

“무슨 그루테기가 있어야 비비지!”

그러다도,

“그래도 돈냥이나 옆질러 본 녀석이 벌기도 하는 게지.”

하고 그야말로 무슨 그루터기만 만나면 꼭 벌기는 할 자신이었다.

\*

그러다가 박희완 영감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관변에

있는 모 유력자를 통해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황해 연안에 제이의 나진(羅津)이 생긴다는 말이였다. 지금은 관청에서만 알 뿐이나 축항 용지(築港用地)는 비밀리에 매수되었으므로 불원하여 당국자로부터 공표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럼, 거기가 황무진가? 전답들인가?”

초시는 눈이 빨개 물었다.

“밭이라데.”

“밭? 그럼 매평 얼마나 간다나?”

“좀 올랐대. 관청에서 사는 바람에 아무리 시골 사람들이기루 그만 눈치 없겠나. 그래두 무슨 일루 관청서 사는진 모르거든…….”

“그래?”

“그래, 그리 오르진 않았대…… 아마 평당 이십오륙 전씩이면 살 수 있다나 보데. 그러니 화중지병이지 멀허나 우리가…….”

“음…….”

초시는 관자놀이가 옥신거리었다. 정말이기만 하면 한 시각이라도 먼저 덤비는 놈이 더 먹는 판이다. 나진도 오륙 전 하던 땅이 한번 개항된다는 소문이 나자 당년으로 오륙 전의 백 배 이상이 올랐고 삼사 년 뒤에는, 땅 나름이지만 어떤 요지(要地)는 천 배 이상이 오른데가 많다.

‘다 산 나이에 오래 끌 건 뭐 있나. 당년으로 넘겨두

최소한도 오 환씩야 무려할 테지…….’

혼자 생각한 초시는,

“대관절 어디란 말야 거기가?”

하고 나왔으며 물었다.

“그걸 낸들 아냐?”

“그럼?”

“그 모씨라는 이만 알지. 그리게 날더러 단 만 원이라도 자본을 운동하면 자기는 거기서도 어디어디가 요지라는 걸 설계도를 복사해 낸 사람이니까 그 요지만 산단 말이지, 그리고 많이두 바라지 않아, 비용 죄다 제치구 순이익의 이 할만 달라는 거야.”

“그럴 테지…… 누가 그런 자국을 일러주구 구경만 하자겠나…… 이 할이라…… 이 할…….”

초시는 생각할수록 이것이 훌륭한, 그 무슨 그루터기가 될 것 같았다. 나진의 선례도 있거니와 박희완 영감 말이 만주국이 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므로 황해 연안에도 으레 나진과 같은 사명을 갖는 큰 항구가 필요할 것은 우리 상식으로도 추측할 바이라 하였다. 초시의 상식에도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

\*

오늘은 오래간만에 피죤을 사서, 거기서 아주 한 대를 피워 물고 왔다. 어째 박희완 영감이 종일 보이지 않는다. 다른 데로 자금운동을 다니나 보다 하였다. 서참의는 점심 전에 나간 사람이 어디서 흥정이 한 자리

떨어지느라고인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안초시는 미닫이를 위에서 낡은 화투를 꺼내었다.

“허, 이거 봐라!”

여간해선 잘 떨어지지 않던 거북패가 단번에 푹 떨어진다. 누가 옆에 있어 좀 보아 줬으면 싶었다.

“아무래두 이게 심상치 않아…… 이제 재수가 티나 부다!”

초시는 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행길로 내어던졌다. 출출하던 판에 담배만 몇 대를 피고 나니 목이 켄켄해진다. 앞집 수채에는 뜨물에 떠내려 가다 막힌 녹두 껍질이 그저 누렇게 보인다.

“오냐, 내년 추석엔…….”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완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 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出資)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탄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완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히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완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일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오십 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



(信託會社)에 넣고 삼천 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시는  
금시 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뻐다.

“서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었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네깃놈이 천생 가래지 별  
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  
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였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일 전도 넣지 않  
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삼천 원의 순이익이 오륙만  
원은 될 것이라,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  
이 생기어서 안초시는 으슬으슬 그, 이를테면 사위녀  
석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나섰다.

\*

일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  
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龍塘浦)와 다사도(多獅島)에는 땅  
값이 삼십 배가 올랐느니 오십 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  
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떨어진

것이였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였다.

돈을 쓸 때는 일 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려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였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오십전짜리는커녕 단 십전짜리도 얻어 볼 길이 없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였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문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리였다. 서참의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관사(殖銀官舍)에들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

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 낸 것처럼 시커멓게 무르  
녹고 말았다.

참의는 머리가 멍-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  
초시를 한번 위로해 주려, 엿저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  
요릿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두 점을 치도록 돌아다  
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혀  
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시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  
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베 발  
이 아직 내어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야…… 어느 땐 줄 알구 코만 고누…….”

그러나 코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달이를 밀어  
젖힌 서참의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시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다. 방 안은 움 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횡- 끼친다.

“아니?”

참의는 우선 미달이를 달고 눈을 비비고 초시를 들여  
다보았다. 안초시는 벌써 아니요, 안초시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다.

참의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  
다.

“히!”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

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앓으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앓으라니?”

“저…….”

“저라니?”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엘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루 세상 떠나게 해?”

“…….”

안경화는 옆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의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 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루 할까?”

“네.”

서참의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네 간이보험이야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누?”

“사백팔십 원요.”

“부친 위해 들었으니 부친 위해 다 써야지?”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사쉴 입구퍼 했어. 상등 털사쓰를 사다 입히구, 그 우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맞춰 짓게 허구…… 선산이 있나, 문힐 데 가?”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루 널찍하게 사구……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네에.”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

안초시의 소위 영결식(永訣式)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참의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賻儀) 이 원을 서참의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

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껍 껍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의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헴…….”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문 이만 호살 해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

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흠…….”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의와 박희완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 역마(驛馬)

김동리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흘러서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구례(求禮)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쪽 화개협(花開峽)에서 흘러 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치인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주며, 다시 남으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蟾津江) 본류(本流)였다.

하동(河東), 구례, 쌍계사(雙溪寺)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智異山)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洗耳岩)의 화개협 시오 리를 끼고 앉은 「화개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火田民)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들이 화갯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아 장수들의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 들이 또한 구렛길에서 넘

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 장수들이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 조기, 자반 고등어들이 올라오곤 하여 산협(山峽)치고는 꽤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개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隣近)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갯골로 뻗쳐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 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恨) 많고 멋들어진 춘향가 판소리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協律) 창극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서 으레 재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傳例)가 「화개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립게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가운데도 옥화(玉花)네 주막은 술맛이 유달리 좋고 값이 싸고 안주인--즉 옥화--의 인심이 후하다 하여 화개장터에서는 가장 이름이 들난 주막이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죽고 총각 아들 하나와 단 두 식구만으로 안주인 옥화가 돌아올 길 망연한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 간다는 것이라 하여 그들은 더

옥 호의와 동정을 기울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혹 노자가 딸린다거나 행장이 불비할 때 그들은 으레 옥화네 주막을 찾았다.

“나 이번에 경상도서 돌아올 때 함께 회계하지 라 오.”

그들은 예사로 이렇게들 말하곤 하였다.

늘어진 버드가지가 강물에 씻기우고, 저녁놀에 은어가 번득이고 하는 여름철 석양 무렵이었다.

나이 예순도 훨씬 더 넘어 보이는 늙은 체장수 하나가, 헛바퀴와 바닥 감들을 어깨에 걸머진 채 손에는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옥화네 주막을 찾아왔다. 바로 그 뒤에는 나이 열 대여섯 살쯤 나 보이는 몸매가 호리호리한 소녀 하나가 조그만 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저 큰애기까지 두 분입니까?”

옥화는 노인보다 「큰애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린 뒤 노인은 옥화에게 인사를 청했다. 살기는 구례에 사는데 이번엔 경상도 쪽으로 별이를 떠난 길이라 하였다. 본시 여수(麗水)가 고향인데 젊어서 친구를 따라 한때 구례에 와서도 살다가, 그 뒤 목포로 광주로 전전하였고, 나중 진도(珍島)로 건너가 거기서 열 일여덟해 사는 동안 그만 머리털까지 세어져서는, 그래 몇 해 전부터

도로 구례에 돌아와 사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저런 큰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옥화가 묻는 말에 그렇잖아도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아무 데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떠나지 않고는 두 식구가 가만히 굶을 판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럼, 저 큰애기는 하라부지 딸입니까?”

옥화는 「남포불」그림자가 반쯤 비낀 바람벽 구석에 붙어 앉아 가끔 그 환한 두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곤 하는 소녀의 동그스름한 어깨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니고나니 이제 고향 삼아 돌아온 곳(求禮)이라야 또한 객지라 그들 아비 딸이 어디다 힘을 입고 살아가야 할는지 아무데도 의탁할 곳이 없다고 그들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도 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도.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 갖고 댕겨 봤는디 젊어서 한 번 바람들어 농게 평생 못 가기 마련이랑게…… 그것이 스물 네 살 때 정초닝게 꼭 서른 여섯 해 전일 것이여, 바로 이 장터에서도 하룻밤 논일이 있었지라도.”

노인은 조용히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는 듯,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다.

“어이유! 참 오래 전일세!”

옥화는 자못 놀라운 시늉이었다.

이튿날은 비가 왔다.

화개장날만 책전을 펴는 성기(性騏)는 내일 장 볼 준비도 할겸 하루를 앞두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쌍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는 시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협의 장려한 풍경이 언제 보다 그에게 길덜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손윗동무들의 사랑에 끌려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쯤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 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게 회맘은 은행나무, 염주나무(菩提樹), 이런 것까지 모두 싫증이 났다.

당초부터 어디로 훨훨 가 보고나 싶던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서 역정을 내는 어머니였다.

“서방이 있나, 일가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이년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어머니의 녂두리는 인제 귀에 못이 박일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질을 시켰으니, 인제 역마살(驛馬煞)도 거진다 풀려 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꾸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성기가 세살 났을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역(時天驛)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을축을 잘못 짚지나 않았나 하여, 큰절(쌍계사를 가리킴)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 물어 보고 지리산 속에서 도를 닦아 나온다면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봐어 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애비 팔자를 따라 갈려는 게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 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엔 각별나게 신경을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닳는 자식 없단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박고 들었다.

“이년아 에미한테 너무 오금박지 마라. 남사당을 붙였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냐, 너더러 찾아 달라 성화를 댔냐?”

그러나 서른 여섯 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배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맏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같이 「화개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당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을 시켜서 살을 때우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라도 시켜서 풀어 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佛經)보다는 암만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 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저사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낮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가름한 얼굴에 흰자위 검은자위가 꽃같이 선명한 두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 띠어 진눈으로 집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체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체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손가락을 들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구례 산다더라. 이번에 어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쪽으로 나가 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갯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체장수의 무남 독녀인데 영감이 화갯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갯골에서는 며칠이나 있겠다던고?”

“들어가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리고 나서, 옥화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은 안 뵈지?”

하였다. 계연(契妍)이란 이름이었다.

성기는 잠자코 밥손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



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 버렸다.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체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집에서 장터까지래야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지만, 그래도 전날 늘 이고 다니던 「상돌엄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더러 이런 사환을 시켜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쪽에서는 그러한 빛도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화안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의 앞에 밥함지를 공손스레 놓고는, 떡과 옛과 참외들을 팔고 있는 음식전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상돌엄만 어디 갔는디?”

성기는 계연의 그 아리따운 두 눈에서 흥건한 즐거움을 가슴으로 깨달으며, 그러나 고개는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채, 차라리 거칠은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마루에 가뜩 찻는디 상돌엄마가 혼자사 바빠 서두닝께 어머니가 지더러 갖고 가라 했어요.”

그동안 거의 입을 열어 말하는 일이 없었던 계연은, 성기가 묻는 말에, 의외로 생경한 전라도 쪽 토음(土音)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가냘프고 가름한 어깨와 목하며, 어디서 그렇게 힘차고 괄괄한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줌이나 될 듯한 가느다란 허리와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하

여 발달된 팔다리와 토실토실한 두 손등과 조그맣게 도톰한 입술을 가진 탓인지도 몰랐다.

“계연아, 오빠 세숫물 놔 드려라.”

이튿날 아침에도 옥화는 상돌엄마를 부엌에 둔 채 역시 계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세숫물을 놓는 일뿐 아니라 송늬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밥상을 차려 오는 것이나 수건을 찾아 주는 것이나 성기에 따른 시중은 모조리 그녀로 하여금 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아이가 맘이 컴컴치 않고, 인정이 있고, 알미운 데가 없어.”

옥화는 자랑 삼아 이런 말도 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반 억지 비슷하게 거저 곧장 나만 믿겠다고, 아주 양딸처럼 나한테다 맡기 구 싶은 눈치더라만……”

“옥화는 잠깐 말을 끊어서 성기의 낮빛을 살피고 나서 다시, 그래 너한테도 말을 들어 봐야겠고 해서 거저 대강 들을 만하고 있었잖나…… 언제 한번 데리고 가서 칠불(七佛) 구경이나 시켜 줘라.”

하는 것이, 흡사 성기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 같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옥화는 계연의 말을 옮겨, 구레 있는 저의 집이래야 구레 읍에서 외따로 떨어진 무슨 산 기슭 밑에 이웃도 없이 있는 오막살인가 보더라고

도 하였다.

“그럼 살림은 어찌고 나왔을까?”

“살림이래야 그까진 거 머 방문에 자물쇠 채워 두었으면 그만 아냐, 허지만 그보다도 나그넷길에 데리고 나선 계연이가 걱정이지.”

이러한 옥화의 말투로 보아서는 체장수 영감이 화갯골에서 나오는 대로 계연을 아주 양딸로 정해 둘 생각인 듯이도 보였다. 다만 성기가 꺼릴까 보아 이것만을 저어하는 눈치 같았다. 지금까지 몇번이나 옥화는 성기더러 장가를 들라고 권했으나 그는 응치 않았고, 집에 술 파는 색시를 몇 차례나 두어도 보았지만 색시쪽에서 간혹 성기에게 말썽을 내인 적은 있어도 성기가 색시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는 일은 한번도 있는 적이 없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번에도 옥화는 그녀로 하여금 성기의 미움이 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듯한 눈치 같기도 하였다.

아랫집 실과 가게에서 성기가 짚신 한 켄레를 사들고 오려니까 옥화는 비죽이 웃는 얼굴로 막걸리 한 사발을 그에게 떠 주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나?”

고 하였다. 술 거를 때 누구에게나 맛뵈기 떠 주기를 잘하는 옥화였다. 계연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계연아, 너도 빨리 나와, 목마를 텐데 미리 좀 마시고 가거라.”

옥화는 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항라 적삼에 가는 삼베 치마를 갈아입고 나오는 계연은 그 선연한 두 눈의 흰자위 검은자위로 인하여 물에 어리인 한 송이 연꽃이 떠오르는 듯하였다.

“꼭 스무 해 전에 내가 입었던 거다.”

옥화는 유감(有感)한 듯이 계연의 옷맵시를 살펴 주며 말했다.

“어제 꺼내서 품을 좀 주여 뵈더니만 청승스리 맞는고나, 보기 보단 품을 여간 많이 입잖는다, 이 앤…… 자, 얼른 마셔라, 오빠 있음 무슨 내외할 사이나?”

그러자 계연은 웃는 얼굴로 술잔을 받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시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성기는 먼저 수양 버드나무 밑에 와서 새 신발에 물을 축이었다. 계연이도 곧 뒤를 따라 나섰다. 어저께 성기가 칠불암(七佛庵)까지 책값 수금 관계로 좀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더니, 옥화가 그러면 계연이도 며칠전부터 산나물을 캐러 간다고 베풀는 중이고, 또 칠불암 구경은 어차피 한번 시켜 주어야 할게고 하니, 이왕이면 좀 데리고 가잖겠느냐고 하였다.

성기는 가슴도 좀 뛰고, 그래서, 나물을 내가 어떻

게 아느냐고, 싫다고 했더니 너더러 누가 나물까지 캐라느냐고, 앞에서 길만 끌어 주면 되잖느냐고 우기어, 기승한 어머니에게 성기는 더 항변을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성기는 처음부터 큰길을 버리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수풀 속 산길을 돌아가기로 하였다. 원체가 지리산 밑이요, 또 나뭇길도 본디부터 똑똑히 나 있지 않는 곳이라, 어려서부터 자라난 고장이라곤 하지만 울울한 수풀 속에서 성기는 몇번이나 길을 잃은 채 해매곤 하였다.

쳐다보면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봉우리요, 내려다보면 발아래는 바다같이 뿌우연 수풀뿐, 그 위에 흰 햇살만 물줄기처럼 내리 퍼붓고 있었다. 머루, 다래, 으름은 이제 겨우 파랗게 메아리 쳐 있고, 가지마다 새빨간 복분자(나무딸기), 오디(산뽕나무의 열매)는 오히려 철이 겨운 듯 한 머리 까맣게 먹물이 돌았다.

성기는 제 손으로 다듬은 퍼런 아가위나무 가지로 앞에서 침덩굴을 헤쳐 가며 가고 있는데, 계연은 뒤에서, 두릅을 꺾는다, 딸기를 따다, 하며 자꾸 혼자 처지곤 하였다.

“빨리 오잖고 뭘 하나?”

성기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나무라면 계연은 딸기를 따다 말고, 두릅을 꺾다 말고, 그 조그맣고 도톰

한 입술을 꼭 다물고는 뛰어오는 것인데, 한참만 가다 보면 또 뒤에 떨어지곤 하였다.

“아이고머니 어쩔꺼나!”

갑자기 뒤에서 계연이가 소리를 질렀다. 돌아다보니 떡갈나무 위에서, 가지에 치맛자락이 걸려 있다. 하필 떡갈나무에는 뿔하러 올라갔을 까고, 곁에 가 쳐다보니, 계연의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그 아래 쪽 딸기나무 가지가 넘어와 있다. 딸기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또 비탈에서 있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 까, 그 딸기나무와 가지가 서로 얽힌 떡갈나무 쪽으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몸을 구부려 손으로 치맛자락을 벗기려면 간신히 잡고 서 있는 윗 가지에서 손을 놓아야 하겠고, 손을 놓았다가는 당장 나무에서 떨어질 형편이다. 나무 아래서 쳐다보니 활짝 걸어 올려진 베치다 속에, 정강마루까지를 채 가루지 못한 짙막한 베고의가 흰한 햇살을 받아 그 안의 뽀오얀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성기는 짙고 있던 생나무 지팡이로 치맛자락을 벗겨 주려 하였으나, 지팡이가 짧아서 그럴것지만 제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 끝은 계연의 그 발가스레하고 매초롬한 종아리만을 자꾸 건드리고 있었다.

“아이 싫어! 남에서 떨어진당게!”

계연은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마침 다람쥐란 놈까지 한 마리 다래 년출 위로 타고 와서, 지금 막 계

연이가 잡고 서 있는 떡갈나무 가지 위로 건너뛰려 하고 있다.

“아 곧 떨어진당게! 그 막대로 저 다람이나 때려줬음 쓰겠는디.”

계연은 배 아래를 거진 햇살에 흰히 드러내인 채 있으면서도 다래 넉출 위에서 이쪽을 건너다보고 그 요망스런 턱주가리를 쫓긋거리고 있는 다람쥐가 더 안타까운 모양으로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요놈의 다람이가…….”

성기는 같은 나무 밑둥치에까지 올라가서야 겨우 계연의 치맛자락을 벗겨 주고, 그러고는 막대로 다시 조금 전에 다람쥐가 앉아 있던 다래 넉출도 한번 툭 쳤다. 이 소리에 놀랐는지 산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득」하고 아래쪽 머루 넉출 위로 날아갔다.

“샘물이 있어야 쓰겠는디.”

계연은 치맛자락을 걸어 올려 이마의 땀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롱이를 돌아 새로운 산줄기를 탈 때마다 연방 더 우악스런 멧부리요, 어두운 수풀을 지나 환하게 열린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바다같이 질편한 골짜기에 차 있느니 머루, 다래 넉출이오, 딸기, 찹의 햇덩굴이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난장판으로 뼈꾸기들은 울고, 이따금씩 킁킁거리고 골을 건너 날아가는 꿩 울음소리마저 야지의 가을 벌레

소리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해는 거진 하늘 한가운데를 돌아 바야흐로 머리에 불을 끼얹고, 어두운 숲 그늘 속에는 해삼 같은 시꺼먼 달팽이들이 허연 진물을 토한 채 땅에 붙어 늘어졌다.

햇살이 따갑고, 땀이 흐르고, 목이 마를수록 성기들은 자꾸 년출 속으로만 들짐승들처럼 파묻히었다. 나무딸기, 덩불 딸기, 산 복숭아, 아가위, 오디, 손에 닿는 대로 따서 연방 입에 가져가지만 입에 넣으면 눈 녹듯 녹아질 뿐, 떨어지근한 침을 삼키면 그만이었다. 간혹 이에 걸린다는 것이 아직 익지 않은 산 복숭아, 아가위 따위인데, 딸리 녹은 침물로는 그 쓰고 짧은 불에까지 물어졌다. 먹을수록 목이마른 딸기를 계연은 그 새파란 산복숭아서건, 둥그런 침잎으로 하나 가득 따서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두 손바닥 위에다 그것을 받아서는 고개를 수그려 물을 먹듯 입을 대어 먹었다. 먹고 난 침잎은 아무렇게나 년출 위로 던져 버린 채 침년출이 담뱃 감겨 있는 다래 덩굴 위에 비스듬히 등을 대이고 누웠다.

계연은 두 번째 또 침잎의 것을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성가신 듯이 그냥 비스듬히 누운 채 그것을 그대로 입에 들이부어 한입 가득 물고는 나머지를 그냥 년출 위로 던졌다. 그리고 그는 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침입에다 딸 기알 머루 알을 골라 놓은 계연은 그러나 성기가 어느덧 잠이 들어 있음을 보자 아까 성기가 하듯 하여 이번엔 제가 먹어 치웠다.

“참 잘도 잔당게.”

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기도 다래 덩굴에 등을 대이고 비스듬히 드러누워 보았으나 곧 재채기가 났다. 목이 몹시 말랐다. 배도 고평았다.

갑자기 빠꾸기 소리가 무서웠다.

“덩굴 속에는 샘물이 없는가?”

계연은 덩굴을 헤치고 한참 들어가다 문득 모과나무 가지에 이리저리 얽히고 주렁주렁 열린 으름 덩굴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익어 있음 쓰겼는디.”

계연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직도 파아란 오이를 만지듯 탄탄하고 우들우들한 으름을 제일 큰 놈으로만 세 개를 골라 따 쥐었다. 그리하여 한나절 동안 무슨 열매든지 손에 닿는대로 마구 따 입에 넣곤 하던 버릇으로 부지중 입에 가져가 한 번 덤석 물어뜯었더니 이내 비릿하고 뽕직스레한 풀 같은 것이 입에 하나 가득 끼었다.

“아, 풋내 나!”

계연은 입안의 것을 뱉고 나서 성기 곁으로 갔다. 해는 벌써 점심때도 겨운 듯 갈증과 함께 시장기도

들었다.

“일어나 샘물 찾아 가장게.”

계연은 성기의 어깨를 흔들었다.

성기는 눈을 떴다.

계연은 당황하여, 쥐고 있던 새파란 으름 두 개를 성기의 코끝에 내어 밀었다. 성기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둥그스름한 어깨와 목덜미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입술이 포개졌다.

그녀의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에서는 한나절 먹은 딸기, 오디, 산 복숭아, 으름 들의 달짝지근한 풋내와 함께, 황토 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고수한 고기(肉)냄새가 느껴졌다.

까악까악하고 난데없는 가마귀 한 마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울며 날아갔다.

“칠불은 아직 멀지라?”

계연은 다래덩굴에 걸어 두었던 점심을 벗겨 들었다.

화갯골로 들어간 체장수 영감은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떠날 때 한 말도 있고 하니 지리산 속으로 아주 들어간 모양이라고, 옥화와 계연은 생각하고 있었다.

“산중에서 아주 여름을 내시는 겁네.”

옥화는 가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끈기 있게 이야기책을 들고 앉곤 하였다. 계연의 약

간 구성진 전라도 지방 토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맑고 처량한 노래조를 띠어 왔다.

그동안 옥화와 계연의 사이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옥화가 계연의 왼쪽 컷바퀴 위에 있는 조그만 사마귀 한 개를 발견한 것쯤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머리를 빗어 땅아 주고 있던 옥화는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참빗 짙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리여?”

계연이 놀라 물었으나 옥화는 그녀의 두 눈만 멀거리니 바라보고 있을 따름 말이 없었다.

“어머니 왜 그러시여.”

계연이 또 한번 물었을 때, 옥화는 겨우 정신이 돌아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다시 빗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계연은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옥화에게 다시 더 캐어 물을 도리도 없었다.

이튿날 옥화는 악양(岳陽)에 불일이 좀 있어 다녀오겠노라면서 아침 일찌기 머리를 빗고 떠났다. 성기는 큰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소나기가 왔다. 계연이가 밖에서 빨래를 걸어안고 들어오면서, “어쩔 거나, 어머니 비 만나시겠는디!”

하였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바깥의 신선한 비바람을 묻혀다 성기의 자는 낮을 스쳐 주었다. 성기는 눈을 뜨는 결로 손을 뻗쳐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머잡았다. 그녀는 빨래를 안은 채 고개를 핵 돌이켜 성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볼에 바야흐로 조그만 보조개가 패이려 할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머니 옷 다 젖겼는디!”

또 한번 이렇게 말하며, 계연은 마루로 나갔다. 성기는 어느덧 또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성기가 다시 잠이 깨었을 때는, 손님들이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계연은 그들의 치다꺼리를 해주고 있는 모양으로 부엌에서,

“명태랑 풋고추밖엔 안주가 없는디!”

하고 소리가 났다.

나중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성기는 그녀더러,

“어머니 없을 땐 손님 받지 말라고.”

약간 볼멘 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다.

“허지만 오늘 해 넘김, 이 술은 시어질 것인디, 그냥두면 어머니 오셔서 화내시지 않을 것이오?”

계연은 성기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했다. 조금 뒤 그녀는 다시 웃는 낮으로 성기 곁에 다가서며, “오빠, 날 면경 하나만 사 주시오. 퐁그란 놈이 꼭 한 개만 있었음 쓰겼는디.”

하였다. 이튿날이 마침 장날이라 성기는 점심을 가지고 온 그녀에게 미리 사 두었던 조그만 면경 하나와 찰떡을 꺼내 주었다.

“아이고머니!”

면경과 찰떡을 보자, 계연은 놀란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그 꽃 같은 두 눈에 웃음을 담복 담은 채 몇 번이나 면경을 들여다보곤 하더니, 그것을 품속에 넣고는 성기가 점심을 먹고 있는 곁에 돌아앉아 어느덧 짹짹 소리까지 내며 찰떡을 먹고 있었다.

성기는 남이 보지 않게 전 앞에 사람 그림자가 열썬할 때마다 자기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것을 가리워 주었다. 탄은 떡뿐 아니라 참외고 복숭아고 옛이고 유과고 일체 군것질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녀의 성미인 듯하였다. 집 앞으로 혹 참외 장수나 옛장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계연은 골무를 깊거나 바늘겨레를 붙이다 말고, 튀어 일어나 그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멀거니 바라보며 섰곤 하였다.

한번은 성기가 절에서 내려오려니까,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눈에 띄지 않고, 그녀만이 마루 끝에 걸터앉은 채 이웃 주막의 놉팡이 하나와 더불어 함께 참외를 먹고 있었다. 성기를 보자 좀 무안스러운 듯이 얼굴을 약간 붉히며 곧 일어나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오빠!”

“.....”

그러나 성기는 그러한 그녀를 거들 떠도 보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방으로만 들어가 버렸다. 계연은 먹던 참외도 마루 끝에 놓은 채 두 눈이 휘둥그래서 성기의 뒤를 따라왔다.

“오빠 왜?”

“.....”

“응 왜 그리여?”

“.....”

그러나 성기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녀가 두 팔을 성기의 어깨 위에 얹어, 그의 목을 껴안으려 했을 때, 성기는 맹렬히 몸을 뒤틀어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는 돌연히 미친 것처럼 뛰어들어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처음 그녀는,

“오빠, 오빠!”

하고 찡그린 얼굴로 성기를 쳐다보며 두 손을 내어 밀어 그의 매질을 막으려 하였으나, 두 차례 세 차례 철썩철썩하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에 와 닿자 방구석에 가 얼굴을 쿡 쳐박은 채 얼마든지 그의 매질에 몸을 맡기듯이 하고 있었다.

이튿날 장에 점심을 가지고 온 계연은 그 작고 도

툭한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으나, 그의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엔 어저께의 일에 깊은 적의도 원하도 품어 있지 않는 듯하였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성기는 그녀의 뒤를 쫓아 나갔다. 하늘엔 별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으나 나무 그들은 강가를 철야같이 뒤덮어 있었다.

“오빠.”

계연은 성기가 바로 그녀의 곁에까지 왔을 때 일어나 성기의 턱 앞으로 바짝 다가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다.

“오빠, 요즘은 어찌자고 만날 절에만 노 있는 것이여?”

그 몹시도 굴곡이 강렬한 전라도 지방 토음이 이렇게 속삭이었다.

그즈음 성기는 장을 보러 오는 날 이외에는 절에서 일체 내려오지를 않았다. 옥화가 악양명도에게 갔다 소나기에 젖어돌아온 뒤부터는, 어쩐지 그와 그녀의 사이를 전과 달리 경계하는 듯한 눈치라, 본래 심장이 약하고 남의 미움 받기를 유달리 싫어하는 그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도 있고 하여 기어코 절에서 배겨내려 했던 것이었다.

이날 밤만 해도 계연의 물음에, 성기가 무어라고 대답도 채 하기 전에, 「계연아, 계연아!」하는, 옥화

의 목소리가 또 어느덧 들려 오고 있었다. 성기는  
꽃잔등을 찌푸리며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 어머니도 어찌면 저다지 야속할까?」

성기는 갑자기 목이 뿌듯해졌다.

반딧불이 지나갔다. 계연은 돌 위에 걸터앉아, 손으  
로 여뀌 풀을 움켜잡으며, 혼잣말같이, 또 무어라  
속삭이는 것이었으나 냇물 소리에 가리어 잘 들리  
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일찌기 성기가 방안으로, 부엌으로 누  
구를 찾으려는 듯 기웃기웃하다가 좀 실망한 듯한  
낯으로 그냥 절로 올라가고 말았을 때, 그녀는 역  
시 이 여뀌풀 있는 냇물 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  
던 것이다.

사흘 뒤에 성기가 다시 절에서 내려오니까, 체장수  
영감은 마루 위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고, 계연은  
고개를 떨어버린 채 마루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아 빗고 새옷--새옷이래야 전날의 그 향  
라 적삼을 다시 빨아 다린 것--을 갈아입고, 조그  
만 보따리 하나를 곁에 두고, 슬픔에 잠겨 있던 계  
연은, 성기를 보자 그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에 갑자  
기 기쁨을 띄며 허리를 일으켰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노기를 띤 듯한 도톰한 입술은 분명  
히 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절박하고 불행한 사실



을 전하고 있었다.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영감에게 권하고 있던 옥화는 성기를 보자,

“계연이가 시방 떠난단다.”

대번에 이렇게 말했다.

옥화의 말을 들으면, 영감은 그날, 성기가 절로 올라가던 날 저녁때에 돌아왔었더라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이니까, 즉 어저께, 영감은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하루 더 쉬어 가라고 만류를 해서, 그래 오늘 아침엔 일찌기 떠난다고 이렇게 막 행장을 차려서 나서는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모두 나중 다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고, 처음은 그저 쇠뭉치로 돌연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같이 골치가 멩하며, 전신의 피가 어느 한 곳으로 짝 모이는 듯한,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쫓긋이 당기어 올라가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눈언저리에 퍼어런 불이 번쩍 번쩍 일어나는 듯한,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치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 가는 듯만 하였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어 떨어질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것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려는 이 순간에 와서야 갑자기 심지에 불을 켜듯 확 타오를 마련이던가, 하는 것

이 자꾸만 꿈과 같았다. 자칫하면 체면도 염치도 다 놓고 영영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이 목이 징징 우는 것을, 그러는 중에서도 이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식에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루 끝에 궁둥이를 짚듯 털썩 앉아 버렸다.

“아들이 참 잘 생겼소.”

영감은 분명히 성기를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기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슨 적의나 품은 듯이 앉아 있었다.

옥화는 그동안 또 성기에게 역시 그 체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이 된다는 낯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다. 그는 영감의 고향인 여수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실업가로,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이야기 끝에 우연히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영감에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자고 했다. 영감은 문득 고향 생각도 날 겸 그 청년의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좀 펴질지도 생각되어 그를 따라 여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 옥화가 무어라고 한참 하는 이야기는 대개 이러한 의미인 듯하였으나, 조마롭고 어지럽고 노여움으로 이미 두 귀가 멍멍하여진 그에게는 다만 벌떼처럼 무엇이 왕왕 거릴 뿐 아무것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다.

“막걸리 맛이 어찌나 좋은지 배가 부르당게.”

그동안 마지막 술잔을 들이키고 난 영감은 부채와 지팡이를 집어들면 이렇게 말했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 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을 누가 알간디, 인연 있음 또 볼 터이지.”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끼며 말했다.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계연의 조그만 보따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 주며 하직을 하였다.

계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듯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너라.”

옥화는 계연의 머리를 쓸어 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계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영영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옥화가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등그스름한 어깨를 쓸어 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젠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럼 편히 계시요.”

영감은 옥화에게 하직을 하였다.

“하라부지 거기 가 보시고 살기 여의찮거든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옥화는 또 한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계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계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계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뜩 어뜩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 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계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뼈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 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장수 영감은, 서른 옛서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

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동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 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짓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되려다나 보는 듯이 재줄 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에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 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쪽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마취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뻘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삼거리릴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

로 마춘 새하얀 나무 엇판을 걸뺩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 판에는 새하얀 가락엇이 반넘어 들어 있었고, 아랫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레, 작년 이맘 때도 지나 그러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질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하동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레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레 쪽을 등지고 해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어.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무렵 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두 파산

염상섭

"어머니, 교장 또 오는군요."

학교가 파한 뒤라 갑자기 조용해진 상점 앞 길을, 열어 놓은 유리창 밖으로 내다보고 등상(床)에 앉았던 정례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다본다. 그렇지 않아도 돈 걱정에 팔려서 테이블 앞에 멀거니 앉았던 정례 모친도 저절로 양미간이 짜뺏하여졌다. 점방 안에서 학교를 파해 가는 길에 공짜 만화를 보느라고 아이들이 저편 구석 진열대에 웅기종기 몰려섰다가, 교장이라는 말에 귀 번쩍하였는지 조그만 얼굴들을 쳐든다. 그러나, 모시 두루마기 자락을 펠럭이며 우뚝통한 중늙은이가 단장을 짚고 쑥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저희끼리 눈짓을 하고 킁킁 웃어버린다. 저희 학교 교장이 나온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어째 이렇게 쓸쓸하우?"

5  
영감은 언제나 오면 하는 버릇으로 상점 안을 휘휘 둘러보며 말을 건다.

6  
"어서 오십쇼. 아침 한때와 점심 한나절이 한참 붐비죠. 지금쯤이야 다 파해 가지 않았어요."

7  
안주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앉은 채 무관히 대꾸를 하였다. 교장은 정례가 앉았던 등상을 내어 주니까 대신 걸터앉으며,

8  
"딴은 그렇겠군요. 그래도 팔리는 거는 여전하겠죠?"

9  
하고, 눈이 저절로 테이블 위의 손금고로 갔다. 이 역시 올 때마다 늘 캐어 묻는 말이지마는, 또 무슨 딴까닭이 있어 붙이는 수작 같아서 정례 어머니는,

10  
"그야 다소 들쭉날쭉야 있죠마는, 원 요새 같아서  
는……."

11  
하고, 시들히 대답을 하여 준다.

12  
"어쨌든 좌처가 좋으니까…… 하루에 두어 번쯤 바쁘고 편히 앉아서 네다섯 식구가 뜯어먹구 살면야 아낙네 소일루 그만 장사가 어디 있을까마는, 그래 그리구두 빛에 쫓리다니 알 수 없는 일이로군……."

13  
왜 그런지 이 영감이 싫고, 멸시하는 정례는 '누가 해달라는 걱정인감!'하는 생각에 입이 삐죽하여졌다.

14  
"날마다 쓸쓸히 나가기야 하지만, 원체 물건이 자(細)니까 남는 게 변변해야죠?"

15  
여주인은 또 마지못해 늘 하는 수작을 뇌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영감이 더 유난히 물건 쌓인 것이며, 진열장에 늘어놓인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었다. 정례 모녀는 그 뜻을 짐작하겠느니만큼 더욱 불쾌하였다.

16  
여기는 여자 중학교와 국민학교가 길 건너로 마주 붙은 네거리에서 조금 외진 골목 안이기는 하나, 두 학교를 상대로 하고 별인 학용품 상점으로는 그야말로 좌처가 좋은 셈이다. 원래는 선술집이었다던가 하는 방 한 칸 달린 이 점방을 작년 봄에 팔천 원 월세로 얻어가지고, 이것을 벌이고 앉을 제 국민학교 앞에는

벌써 매점이 있어서 어떨까도 하였으나, 여학교만은 시작하기 전부터 아는 선생을 세워 놓고, 선전도 하고 특약하다시피 하였던 관계인지 이때껏 재미를 보는 편이지, 이 장삿속으로만은 풀리는 셈속은 아니다.

<sup>17</sup>  
"이번에 두 달 셈을 한꺼번에 드리겠더니 또 역시 풀립니다그려. 우선 밀린 거 한달치만 받아 가지죠."

<sup>18</sup>  
정례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금고를 땡그렁 열고서 백 원짜리를 척척 센다.

<sup>19</sup>  
"이번에는 본전까지 될 줄 알았는데 이자나마 또 밀리니…… 장사는 깔쭉없이 잘 되는데 그 원, 어째 그렇단 말씀유?"

<sup>20</sup>  
하며, 영감은 혀를 찬다. 저편에서 만화를 보며 소근거리던 아이들은 교장이라던 이 늙은이가 본전이니 변리니 하는 소리에 눈들이 휘둥그래서 건너다본다.

<sup>21</sup>  
"칠천오백 원입니다. 세보십쇼. 그러니, 댁 한 군데야 말이죠. 제일 무거운 짐이 아시다시피 김옥임네 십만 원의 일 할 오 부, 일만 오천 원이죠. 은행 조건 삼

십만원의 이자가 또 있죠. 기껏 벌어서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자 벌어드리고 앉았는 셈이죠."

<sup>22</sup>  
영감은 옆에서 주인댁이 하는 말은 귀담아듣지도 않고 골똥히 돈을 세더니, 커다란 검정 형겔 주머니를 허리춤에서 꺼내놓는다. 옆에 섰는 정례는 그 돈이 아깝고 영감의 푸둥푸둥한 손까지 밟기도 하여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려니까,

<sup>23</sup>  
"그래, 이달치는 또 언제쯤 들리리까? 급히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본전까지 해주어야 하겠는데……."

<sup>24</sup>  
하고, 아까와는 탄탄으로 투명스럽게 볼멘소리를 하였다. 만화를 들여다 보던 아이들은 또 한번 이편을 건너다본다.

<sup>25</sup>  
보양고 점잖게 생긴 신수가 탄은 교장 선생 같고, 거기다가 양복이나 입고 운동장의 교단에 올라서면 저희들도 움찔하려니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삿돈을 받아 들고 나서도 또 조르고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니, 설마 저런 교장이 있으랴 싶어 저희들끼리 또 눈짓을 하였다.

26  
"되는 대로 갖다드리죠. 하지만, 본전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선생님 같은 어른이 돈 오만 원쯤에 무얼  
그렇게 시급히 구십니까?"

27  
정례 어머니는 본전을 해내라는 데에 얼레발을 치  
며 설설 기는 수작을 한다.

28  
"아니, 이자 안 물구 어서 값는 게 수가 아니겠나  
요?"

29  
"선생님두 속 시원하신 말씀두 하십니다.."

30  
정례 어머니는 기가 막혀 웃어 보인다.

31  
"참, 그런데 김옥임 여사가 무어라지 않습니까?"

32  
그만 일어설 줄 알았던 교장은 담배를 붙여 새판으  
로 말을 꺼낸다.

33  
"왜 무어라구 해요?"

정례 모녀는 무슨 말이 나오려는지 벌써 알아차리고 입이 삐죽하여졌다.

"글쎄,그 이십만 원 조건을 대지루구 날더러 예서 받아가려니, 그래 어떻게들 이야기가 귀정이 났나요?"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례는 잔뜩 벅르고 있었던 듯이 모친의 앞장을 서서 가로 탄한다.

"교장 선생님! 그따위 경위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요나마 우리 가게를 판들어 먹게 하구 말겠단 말이지 뭐예요?"

"응? 교장이라니? 교장은 별안간 무슨 교장? …… 허허허."

영감은 허청 나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저편 아이들을 잠깐 거들떠보고 나서,

"글쎄, 그러니 뻘히 사정을 아는 터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41  
하며, 말끝을 어물어물해버린다. 이 영감이 해방 전까지는 어느 시골에선지 오랫동안 보통학교 교장 노릇을 하였다는 말을 옥임에게서 들었기에 이 집에서는 이름은 자세히 모르고 하여 교장, 교장 하고 불러왔던 것이 입버릇으로 급히 튀어나온 말이나, 고리 대금업의 패를 차고 나선 지금에 그것을 내세우기도 싫고, 더구나 저런 소학교 아이들 앞에서는 창피한 생각도 드는 눈치였다.

42  
"교장 선생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실게 뭐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받으실 건 그 아주머니한테 받으십쇼그려."

43  
정례는 또 모친이 입을 벌릴 새도 없이 퐁퐁 쏘아준다.

44  
"너 왜 이러니?"

45  
모친은 딸을 나무래 놓고,

46  
"그렇게는 못하겠다구 벌써 끝낸 말인데, 또 왜 그

럴꾸?"

47  
하며, 말을 잘라버린다.

48  
"아, 그런데 김씨 편에서는 댁에서 승낙한 듯이 말 하던데요?"

49  
영감의 말눈치는 김옥임이 편을 들어서 이십만 원 조건인가를 여기서 받아내려는 생각인 모양이다.

50  
"탄소리, 내가 아무리 어수룩하기루 제 사패만 봐주고 제 춤에만 놀까요!"

51  
정례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52  
김옥임이의 이십만 원 조건이라는 것이 요사이 이 두 모녀의 자나깨나의 큰 걱정거리요, 그것을 생각하면 밥맛이 다 떨어질 지경이지만, 자초(自初)는 정례 모녀가 이 상점을 벌이고 나자 장사가 잘 될 성싶으니까, 김옥임이가 저도 한몫 끼우고자 자청을 하여 십만 원을 들여놓고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 가지고 들어온 동사(同事) 밑천 십만 원의 두 곱을 빼가고도,

또 새끼를 쳐서 오늘에 와서는 이십이만 원까지 달라는 것이다.

## 2. 2

### 맨위로

정례 모친은 남편을 졸라서 집문서를 은행에 넣고 천신만고하여 삼십만 원을 얻어가지고 부벼쓰고, 당장 급한 것 가리고 한 나머지 이십이삼만 원을 들고 이 가게를 벌였던 것이다. 팔천 원 월세에 보증금 팔만 원은 그만두고라도 점방 꾸미고, 탁자 들이고, 진열대 세 채 들여 놓고 하기에만도 육칠만 원 들었으니, 갖다 놓은 물건이라야 십만 원어치도 못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 아이들이 차츰 꼬이게 될 수록 찾는 것은 많아 가고, 점심 때에 찾는 빵이며 과자라도 벌여 놓고 싶고, 수(繡)실이니 수틀이니 여학교의 수예(手藝) 재료들도 갖추 갖추 가져다 놓고는 싶은데, 매일 시나브로 팔리는 것을 가지고는 미처 무더깃돈을 돌려 빼내는 수도 없는데, 짚금짚금 들어오는 그 돈 중에서 조금씩 뜯어서 당장 그날그날 살아가야는 하겠으니, 자연 쫓리는 판에 김옥임이가 한 다리 걸치자고 덤비니, 동사란 애초에 재미없는 일이거니와, 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동사로 해서 뜯어먹을 것이 무에 있겠느냐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당장에 아쉬우니 오만 원씩 두 번에 질러서 십만 원 밀천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말이 동사지 이 할(二割) 넘어의 고리(高利)로 십만 원 돈을 쓴거나 다름이 없었다. 빚놀이엔 눈이 벌게 다니는 제 벌이가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하루 한 번이고, 이틀에 한 번, 저녁 때 슬쩍 들러서 물건 판 치부책이나 떠들어 보고 가는 것밖에는 별로 거드는 일이 없었다. 실상은 그것이 썩이질이나 하고 불아귀 같이 덤비는 것보다는 정례 모녀에게는 편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하여튼, 그러면서도 월말이 되면 이익의 삼 분지 일 가량은 되는 이만 원 돈을 꼬박꼬박 따가곤 하였다. 담보물이 있으면 일 할, 신용 대부로 일 할 오피 변(邊)인데, 동사란 말만 걸고 이 할 --이 할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은 --셈속 좋을 때면 이 할 이상의 배당도 차례에 오니, 욕심이 생각에는 사실에 있어서도 이익이 좀 되려니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별로 힘드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가만히 앉아서 이 할이면 허구한 날 뽕뽕거리고 싸지르면서 굶

55

어들이는 변릿돈보다는 나은 셈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여간, 올 들어서 밀천을 빼가겠다고 하기까지 아홉 달 동안에 이십만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정례 부친이 매일 요 구멍가게에서 용돈을 얻어다 쓰는 것만도 못할 일이라고 작년 겨울에 들어서 마지막 남은 땅땸기를, 그야 예전과는 달라서 삼칠제(三七制)인데다가 세금이니 비료니 하고 부담에 얽매이니까 그렇겠지마는--하여간 아버지 전장(소유하는 논밭)으로 물려받은 것의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팔아가지고, 전래에 없는 눈[降雪]이라고 하여 서울 시내에서 전차가 사흘을 못 통할 동안에 택시를 부리면 땅 짚고 기기라 하여, 하이어를 한 대 사들여 놓고 택시를 부려 보았던 것이지만, 이것이 사흘들이로 말썽을 부려 고장이요, 수선이요 하고 나중에는 이 상점의 돈까지 하루만 돌려라, 이틀만 참아라 하고 만 원, 이만 원 빼내 가고는 시치미를 딱 떼기 시작하니, 점방의 타격은 의외로 큰 것이었다. 이 꼴을 본 옥임이는 에그머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울들어서며부터 제 밑천을 빼내어 가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잘못하다가는 자동차가 이 저자터까지 들어먹을 판인데, 별안간 옥임이가 빠져 나간다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나 십만 원을 모아 빼내 주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거덜거덜할 바에야 집어치우지."

겨울 방학 때라, 더구나 팔리는 것은 없고 쓸쓸하

기도 하였지만, 옥임이는 날마다 십만 원 재촉을 하러  
와서는 이런 소리도 하는 것이었다. 남은 집문서를 잡  
혀서 이거나마 시작해 놓고, 다섯 식구의 입을 매달고  
있는 터인데 제 발 만 쑥 빼놓았다고 이런 야멸찬 소  
리를 할 제, 정례 모녀는 얼굴을 뺏히 쳐다보곤 하였  
다.

"세전 보증금이나 빼내구 뉘게 넘겨버리지. 설비한  
것하구 물건 남은 것 얼러서 한 십만 원을 받을까? 그  
렇다면 내 누구 하나 지시해 줄까?"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뉘게 넘기게 해서  
라도 자기의 십만 원 어서 뽑아 가려는 말이겠지마는,  
어떻게 들으면 십만 원에 이 점방을 자기가 맡아 잡겠  
다는 말눈치인 듯싶었다.

"내가 바쁘지만 얹으면 통틀어 맡아 가지고 훨씬  
확장을 해 놓으면 이 꼴은 안 되겠지만, 어디 내가 틈  
이 있는 몸이어야지."

이렇게 운자를 떼는 것을 들으면 한 발 들여 놓고  
한 발 내 놓는 수작같기도 하였다. 자동차 동티로 밑  
천을 훌쩍 집어먹힐까 보아서 발을 뺏다는 수작이다.

63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참을 끌리고, 학교들은 방학을 하여 흥정이 없는 이판에, 번연히 나올 구멍이 없는 십만 원을 해 달라고 못살게 굴면, 성이 가시니 상점을 맡아 가라는 말이 나오고 말리라는 배짱같이 보이는 것이었다. 모녀는 그것이 더 분하였다.

64  
"저의 자수로는 엄두두 안 나구 남이 해놓으니까 된 듯 싶어서, 솔개미가 까치집 채어들 듯이 이거나마 뺏어 가지구 저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지만, 첫째 이런 좋은 좌처를 왜 내놓을라구!"

65  
누구보다도 정례가 바르르 떨어졌다.

66  
"매사가 그렇지, 될성부르니까 뺏어차구 앉았지. 거덜거덜하면 누가 눈이나 떠본다든!"

67  
정례 모친은 코웃음을 치기만 하였다.

68  
하여간, 이렇게 쫓리기를 반 달쯤이나 하다가 급기야 팔만 원 보증금의 영수증을 옥임이에게 담보로 내주고, 출자금 십만 원은 일 할 오 푼 변의 빛으로 돌려

매고 말았다. 옥임이로서는 매삭 이 할 배당의 맛도 잊을 수 없었으나, 이왕 상점을 제 손으로 못 휘두를 바에는 이편이 든든은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정례 모친은, 옥임이가 가끔 함께 들러서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의 돈 오만 원을 얻어 가지고, 개학 초부터 찌부러져 가던 상점의 만회책(挽回策)을 다시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땅땀기는 자동차 바람에 날려 보내고, 자동차는 수선비로 녹여버리고 나니, 상점에서 흘러나간 칠팔만 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떼버렸고, 그 보충으로 짊어진 것이 교장의 빚 오만 원이었다. 점점 더 심해가는 물가에, 뜯어먹고 살아야는 하겠고, 내남없이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라도 덜 사겠지 더 팔리지는 않으니, 매삭 두 자국 세 자국의 변리만 꺼가기도 극난이었다. 그리고 보니, 자연 좋지 못한 감정으로 헤어진 옥임이한테 보낼 변리가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팔만 원 증서가 집문서만큼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기어이 일 할 오 푼으로 떼를 써서 제멋대로 내놓은 것이 더 얄미워서, 어디 네가 그 이자를 굶어다가 먹나, 내가 안 내고 배기나 해 보자 하는 뱃심도 정례 모친에게는 없지 않았다. 옥임이는 역시 제가 좀 과하게 하였다고 뉘우치던지, 또 혹은 팔만 원 증서를 가졌느니만치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별로 들르지도 않으려니와, 들러서도 변리 재촉은 그



리 하지 않았다. 도리어, 정례 어머니 편에서 변리가 밀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고 그 끝에,

<sup>70</sup>  
"이 여름 방학이나 지내고 개학 초에 한몫 보면 모두 내리다마는 원체 일 할 오 부야 과한 것이요. 그때 형편에는 한 달 후면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곧 갚겠거니 해서 아무려나 해둔 것이지만, 벌써 이월서부터 여덟 달이나 됐으니 무슨 수로 그걸 다 내우. 일 할씩만 해두 팔만 원이구려, 어이구……한 번만 깎읍시다."

<sup>71</sup>  
하고, 슬쩍 비쳐 보면 옥임이도 그럴싸한 듯이,

<sup>72</sup>  
"아무려나 좋도록 합시다그려."

<sup>73</sup>  
하고, 웃어버리곤 하였다. 그러던 것이 개학이 되자, 이 달 들어서 부쩍 재촉하면서 일 할 오 부 여덟 달치 변리 십이만 원, 아울러서 이십이만 원을 이 교장 영감에게 치뤄 달라는 것이다. 급한 사정으로 이 영감에게 이십만 원을 돌려 썼는데, 한 달 변리 일 할에 이만 원을 얹으면 꼭 이십이만 원 부리가 맞으니, 셈치기도 좋고 마침 잘 되었다고 싱글싱글 웃어가며 조르는 옥임이의 늙어가는 얼굴이 더 모질어 보이고 얄밋상스러워 보였다. 마치 이십이만 원 부리를 채우

느라고 그동안 여덟 달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 같다. 정례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옥임이에게 속아넘어간 것 같아서 분하였다. 그러나, 분한 것은 고사하고 이러다가는 이 구멍가게나마 들어먹고 집 한 채 남은 것마저 까부러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곰곰하면 가슴이 더럭 내려앉는 것이었다. 소학교 적부터 한반에서 콧물을 흘리며 같이 자라났고, 동경 가서 여자 대학을 다닐 때도 함께 고생하던 옥임이다. 더구나 제가 내놓는 십만 원은 한푼 깔쭉도 안 내고 이십만 원 가까운 돈을 벌어 주었으니, 아무리 눈에 돈동록이 슬었기로 제가 설마 내게 일 할 오 픈 변을 다 받으려 들기야 하라! 한 갑절 없어서 십육만 원쯤 해 주면 되려니 하는 속셈만 치고 있던 자기가 어리석다고 혼자 어이가 없어 실소를 하고 말했다. 그런, 십오륙만 원이기로 한꺼번에 빼내는 수는 없으니, 이번에 변리 육만 원만 마감을 하고서 본전은 오만 원씩 두 번에 갚자는 요량이었다. 집안 식구는 조밥에 새우젓 콩뎡이로 우겨대더라도, 어떻든지 이 겨울 방학이 돌아오기 전에 그 아니꼬운 옥임이 조건만이라도 끝을 내고야 말겠다고 이를 악무는 판인데 이렇게 둘러대고 보니, 살겠다고 기를 쓰고 기어올라가는 놈의 발목을 아래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맥이 풀리고, 사는 것이 귀찮게만 생각되는 것이었다. 평생에 빚이라고는 모르고 지냈는데, 편편히 노

는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노릇이라 은행에 삼십만 원이 그대로 있고, 옥임이에게 이십이만 원, 교장 영감에게

<sup>74</sup>  
오만 원, 도합 오십칠만 원 빛을 어느덧 짊어지고 앉은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앞이 캄캄하여 양젓물이라도 먹고 싶은 요사이의 정례 어머니이다.

<sup>75</sup>  
"하여간 제게 십만 원 췌으면 췌지, 그걸 못 받을까 봐 선생님을 팔구 선생님 더러 받아 오라는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죽게 되두 제게 떼먹히지는 않을 거니 염려 말라구 하세요."

<sup>76</sup>  
정례 어머니는 화를 바락 내었다. 해방 덕에 빚놀이를 시작해 가지고 돈 백만원이나 착실히 잡았고, 깔려 있는 것만도 백만 원 이상은 되리라는 소문인데 이 영감에게 이십만 원 빛을 쓰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못 받을까 애도 쓰이겠지마는 십이만 원 변리를 본전으로 돌려매어 넣고 변리에 새끼 변리, 손주 변리까지 우려먹자는 수단인 것이 뻔한 노릇이었다. 십만 원에 일 할 오 푼이면 일만 오천 원밖에 안 되나, 이십만 원으로 돌려매어 놓으면 일 할 변만 해도 매삭 이만 이천 원이니, 칠천 원이 더 붙는 것이다.

"그야 내 돈 안 쓴 것을 썼다겠소? 깔려만 있고 회수가 안 되면 피차 돌려도 쓰는 것이지만은, 나 역시 한 자국에 이십만 원씩 모개 내놓고 오래 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영감은 무척 생색을 내고 이편 사정은 보아서, 석달 기한하고 자기 조카의 돈 이십만 원을 돌려 주게 할 터이니, 다시 말하면 조카에게 이십만 원을 일 할로 얻어 줄터이니, 우수리 이만 원만 현금으로 내놓고 표를 한 장 써 내라는 것이다. 옥임이는 이 영감에게 미루고, 영감은 또 조카의 돈을 돌려 쓴다고 표를 받겠다는 꼴이, 저희들끼리 무슨 공공이 속인지 알 수가 없으나, 요컨대 석달 기한의 표를 받아 놓자는 것이요. 그 사품에 칠천 원 변리를 더 받겠다는 수작이다. 특별히 일 할 변인 대신에 석 달 기한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무슨 계교 속인지 알 수가 없다. 석 달 동안에 이십만 원을 만드는 재주도 없지마는, 석 달 후면 마침 겨울 방학이 될 때니, 차차 꼴려 들어가는 제일 어려운 고비일 것이다. 정례 어머니는 이 연놈들이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렇게 짜고서들 못살게 구는 것 인구? 하는 생각에 한바탕 들이대고 싶은 것을 꺾 참으며,

"선생님께 쓴 돈 아니니, 교장 선생님은 아랑곳 마세요. 옥임이더러 와서 조르든 이 상점을 떠메어 가든 마음대로 하라죠."

80  
하고, 딱 잘라 말을 하여 쫓아 보냈다.

### 3. 3

#### 맨위로

82  
그 후 큰 일 주일은 옥임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정례 모녀는 맛닥뜨리면 말수도 부족하거니와, 아귀다툼하는 것이 싫어서 그날그날 소리없이 넘어가는 것이 다행하나, 어느 때 달려들어서 또 무슨 조건을 내놓고 졸라댈지 불안은 한층 더하였다.

83  
"응, 마침 잘 만났군. 그런데 그만하면 얘기는 끝났을 텐데, 웬 세도가 그리 좋아서 누구를 오너라가거라 허구 아니꼽게 야단야……."

84  
정례 모친이 황토현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열 틈에 끼어 섰으려니까, 이곳으로 향하여 오던 옥임이가 옆에 와서 딱 서며 시비를 건다.

85  
"바쁘기야 하겠지만, 좀 못 들을 건 뭐구."

86  
정례 모친은 옥임이의 기색이 좋지 않는 것 같아 보이나, 실없는 말이거니 하고 대꾸를 하며 열에서 빠져 나서려니까.

87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야? 넌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고 텃세루 남의 돈을 무작같이 떼먹으려 드나부다마는, 김옥임이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88  
원체 예쁘장한 상판이지만, 눈을 곤두세우고 대는 품이 어려서부터 삼십 년 동안이나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째서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며, 옥십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 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89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90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섰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웃는 통에,

91  
"이거 미쳐나려나, 이걸 무슨 객설야?"

92  
하며,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93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 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 두 뜯어 쓰랴구 이렇게 찢찢거리고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봐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짠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야?"

94  
오고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 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95

"누가 안 갠 대냐?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냐 말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sup>96</sup>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 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 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께 나 같은 년야 감히 말이나 붙여 보려 들겠거든!"

하며,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모여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에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 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꼭 메어올랐으나, 언제까지나 이려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어 옆골목으로 줄달음질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제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sup>99</sup>스물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 번 낳아 보았을까, 사십 전의 젊



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 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 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사십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라?

100

머리를 곱게 지지고 얇은 얼굴 단장에, 번들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덕 유한 마담으로 알 것이지, 설마 일 할, 일 할 오 픈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그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 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장사)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붙아귀같이 덤빈 것이다. 증경(曾經)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取締役)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으로 삼 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섬지기나마 몰수당할 것이니, 비록 자식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찾아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뻠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겨보고는, 입귀를 샅룩 하며 비웃고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 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 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 속이고 멍치고 비비꼬이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피가 제대로 도는 것같이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렇게 멍치고 비비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이십여 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 한 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베풀기는 하였지만,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짧은 서방을 둔 텃세냐, 무엇이냐고 한 것은 구석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만,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는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103

내년이면 공과 대학을 나오는 맏아들에, 중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보다도 키가 큰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은 지금이라도 사위를 보게 다 길러 놓았고, 남편은 번동 번동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용돈이나 받아 쓰고, 자동차로 땅땀기는 까불었을망정 신수가 멀쩡한 호남자가 무슨 정당이라나 하는 곳의 조직 부장이니 훈련 부장이니 하고 돌아다니니, 때를 만나면 아닌게 아니라 장래 대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팔구 삭 동안 장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꼴이란 아닌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도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마는,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道知事)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야 어디 존재나 있던 위인들인가? 그것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관 속에 한 발을 들여 놓은 영감이 나마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쪽쪽 뽑아 놓은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인 허위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차게 사는 양이 역시 부럽고, 저희만 잘 된다는 것에 시기도 나는 것이었다. 보기 좋게 이년 저년을 붙이며 한바탕 해대

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은연 중의 시기였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였는지 모른다.

옥임이는 그 길로 교장 영감 집에 들러서,<sup>104</sup>

"혼을 단단히 내주었으니까 이제는 딴 소리 안 할 거외다. 내일 가서 표라도 받아다 주슈."<sup>105</sup>

하고 일러 놓았다.<sup>106</sup>

#### 4. 4

##### 맨위로

"오늘은 아귀를 지어주시렵니까? 언제 값이나 값고 말 것인데 그걸루 의 상할 거야 있나요?"<sup>108</sup>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sup>109</sup>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 줄 모르나,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sup>110</sup>

견디겠어요.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구, 「인형의 집」에 신이 나구,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돈냄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불쌍한 신 세이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sup>111</sup>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sup>112</sup>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 마는, 모두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利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꺾으로 먹는 허울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sup>113</sup>  
하고,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옥임이 역성인지를 하

는 것이었다.

이날 정례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 따위 돈은 안 값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찌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이십만 원 표에 이만 원 현금을 엮어서 옥임이에게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정례 모친은 그 후 두 달 걸려서 교장 영감의 오만 원 돈은 값았으나, 석 달째 가서는 이 상점 주인이 바뀌어 들고야 말았다. 정말 교장 영감의 조카가 나서는가 하였더니, 교장의 딸 내외가 들어앉았다. 상점을 내놓고 만 바에는 자질구레한 셈속을 따진대야 죽은 아이 귀 만져 보기지 별수 없지만, 하여튼 이십만 원의 석 달 변리 육만 원이 또 늘어서 이십육 만원인데, 정례 모녀가 사글세의 보증금 팔만 원마저 못 찾고 두 손 털고 나선 것을 보면, 그 팔만 원을 예끼고 남은 십팔만 원이 점방의 설비와 남은 물건값을 치룬 것이었다. 물론 옥임이가 뒤에 앉아 맡은 것이나, 권리 값으로 오만 원 더 엮어서 교장 영감에게 팔아 넘긴 것

이었다. 옥임이는 좀더 남겨먹었을 것이로되, 교장 영감이 그 돈 받아내는 데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만원 얹어먹고 말았고, 또 교장은 이복에서 내려온 딸 내외에게는 꼭 알맞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부터 침을 삼키고 눈독을 들이던 것이라, 이 상점을 손에 넣으려고 애도 썼지마는, 매득하였다고 좋아하였다.

<sup>118</sup>  
정례 모녀는 일 년 반 동안이나 죽도록 벌어서 죽 쑤어 개 좋은 일한 셈이라고 절통을 하였으나, 그보다도 정례 모친은 오래간만에 몸이 편해져서 그렇기도 하였겠으나, 몸살 감기에 율화가 터져서 그만 몸져누운 것이 반 달이나 끌었다.

<sup>119</sup>  
"마누라, 염려 말아요. 김옥임이 돈쯤 먹자고만 들면 삼사십만 원쯤 금시 녹여내지, 가만있어요."

<sup>120</sup>  
정례 부친은 앉는 마누라 옆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하였다.

<sup>121</sup>  
"옥임이 돈을 먹자는 것두 아니지만, 무슨 재주루?"

<sup>122</sup>  
마누라는 말리는 것도 아니요, 부채질하는 것도 아

닌 소리를 하였다.

"김옥임이도 요사이 자동차를 돌려보구 싶어한다는 데, 마침 어수룩한 자동차 한 대가 나섰단 말이지. 조금만 참아요. 우리 집문서는 아무래두 김옥임 여사의 집으로 찾아가고 말 것이니……."

124  
하며, 정례 부친은 앓는 아내를 위하여 뺏속 유하게 껄껄 웃었다.





## 유예

오상원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게 흠벅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 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귀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射手)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뼈 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치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

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 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를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 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따발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 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 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흘랑 빨가벗겨서 견게 할지도 모른다(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색깔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흰 독길을 걸어간다. 수 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이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 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본대(本隊)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

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묵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쿼퀴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북으로 북으로 쏘살같이 진격은 계속되었다. 수차의 전투가 일어났다. 그가 인솔한 수색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 자주 본대와와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였다.

초조한 소대원의 얼굴은 무전사에게로만 쏠렸다. 후퇴대! 이미 길은 모두 적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적의 어느 편을 뚫고 남하할 것인가? 자주 소전투가 벌어졌다.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될 수 있는 한 적과의 근접을 피하면서 산으로 타고 올랐다. 기아와 피로, 점점 낙오되고 줄어 가는 소대원, 첩첩이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온갖 자연의 악조건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연이어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 무릎까지 덮이는 눈 속을 헤매다 방향을 잃은 그들은 악전 고투 끝에 산 밑을 더듬어 내려와서 가까운 그 어느 마을로 파고들어갔다. 텅 빈 마을, 집집마다 스산히 흩어진 채 눈 속에 호젓이 파묻혀 있다. 적이 들어온 흔적도 지나간 흔적도 없다. 되었다. 소대원들은 뽀뽀이 헤쳐져서 먹을 것을 샅샅이 뒤졌다. 아무것도 없다.

겨우 얼어빠진 감자 한 자루뿐, 이빨에 서벅서벅 얼음이 마주치는 감자 알맹이를 씹었다. 모두 기운에 지쳐 쓰러졌다. 일시에 피곤과 허기가 납(鉛) 덩어리처럼 내린다. 발가락마다 얼음이 박혔다.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밤이 다가왔다. 산 속의 밤은 급히 내린다. 선임 하사만이 피로를 씹어 가며 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밖은 휘몰아치는 눈보라뿐, 선임 하사도 잠시 눈을 붙였다. 마치 기습이라도 있을 듯한 밤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아침이 왔다.

또 눈과 기아와 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자연과의 싸움에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소대장님, 하고 마지막 한 마디를 외치고 눈 속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부하들을 볼 때마다 그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그 싸늘한 마지막 시선을 지켰다. 포켓을 찾아 소지품을 더듬는 그의 손은 항시 죽어 간 부하의 시체보다 더 차가웠다. 소대장님, 우러러 쳐다보는 마지막 부하의 그 눈빛, 적막을 더듬어 가며 죽음을 재는 그 눈은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그 무엇이 있었다.

"소대장님…… 북한 출신입니다. 홀몸입니다. 남한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북 제 고향 주소입니다."

꾸겨진 기습마다 닳아져서 떨어졌다. 그것을 받아 들던 그의 손, 부하의 손을 꼭 쥐어 주었다.

그 이상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이제 남은 것은 그를 포함하여 여섯 명뿐.

눈 속에 쓰러져 넘어진 그들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그들은 다시 눈 속을 헤쳤다. 그의 머리 속에 점점 불안이 다가왔다. 이윽고 ○○지점까지 왔을 때다. 산줄기는 급격히 부드러워져 이윽고 쭉 평지로 빠졌다. 대로(大路)다.

지형(地形)과 적정(敵情)을 탐지하러 내려갔던 선임 하사가 급히 달려왔다. 노상에는 무수히 말굽 자리와 마차의 수레바퀴 그리고 발자국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선임 하사의 손에는 말뚝이 하나 쥐어져 있었다. 능히 그것은 손힘으로 부스러뜨릴 수 있었다. 그들이 지나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좌(證左)다. 밤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어둠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다시 앞에 바라보이는 산줄기를 타고 오를 수밖에 없다.

밤이 왔다.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낮은 지대를 선택하고 대로에 연한 개천둑을 이용하였다. 무난히 대로를 횡단하였다. 논두렁에 내려서자 재빠르게 은폐물(隱蔽物)을 이용해 가며 걸음을 다그쳤다. 이제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고 걸음을 늦추었다.

그 때다. 돌연 일 발의 총성과 더불어 한 마디 비명을 남기고 누가 쓰러졌다. 모두 콧 눈 속에 얽드렸다.

일순간이 지났다. 도대체 총알은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인가? 그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다. 그가 적정을 살피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또 총알이 날아왔다.

측면에서부터다. 모두 응전(應戰)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대로 쪽으로 각도를 돌렸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놈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적쪽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언제껏 있을 수도 없다.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흰 눈 위다. 그들은 산기슭까지 필사적으로 포복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총알은 비오듯 집중된다. 비명과 더불어 소대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 그는 눈을 꼭 감았다. 땀이 비 오듯 흐른다.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포복을 계속하였다. 의식이 다자꾸 흐린다. 산기슭 흰 눈 속에 덮인 관목 숲이 눈앞에서 뿌여니 흩어진다. 총성은 약간 잦아졌다. 산기슭으로 타고 오르는 순간 선임 하사가 쓰러졌다. 그는 선임 하사를 부축하고 끌며 산 속으로 산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산 속 깊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누웠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서였다.

몹시 춥다. 몸을 약간 꿈틀거리려 본다. 전 근육이 추위에 마비되어 감각을 잃은 것만 같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쿼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렴풋이 눈 속에 부서지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점점 가까워진다. 시간이 된 모양이다. 몸을 일으키려고 움직거리려 본다. 잠시 몽롱한 시각(時刻)이 흐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몹시 춥다. 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 몽롱하게 정신이 흩어진다.

전공 과목은? 왜 동무는 법과를 선택했었소? 어렸을 때부터 동무는 출신 계급적인 인습 관념에 젖어 있었소. 그것을

버리시오.

나는 동무와 같은 인물을 아끼고 싶소. 나는 동무를 어느 때라도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소. 문지방으로 스미어 오는 가는 실바람에 스칠 때마다 화롯불이 붉게 번져 갔다.

나는 동무를 훌륭한 청년으로 보고 있소. 자, 담배를 태우시오.

꾸부러진 부젓가락으로 재 위를 헤칠 때마다 더욱 붉게 불꽃이 번진다.

그렇다면 동무처럼 불쌍한 청년은 또 이 세상에 없을 거요. 나는 심히 유감스럽소. 동무의 그 태도가 참으로 유감이에요.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왜 동무는 내 얼굴을 그렇게 차갑게 쳐다보고만 있소? 한 마디 대답도 없이 입을 다문 채…… 알겠소. 나는 동무가 지키고 있는 그 침묵으로 동무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소. 유감이에요. 주고받던 대화, 조그만 방안, 깨어진 질화로가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는 무겁게 몸을 뒤틀었다. 희미하게 또 과거가 이어 온다.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져 있었다. 산 속의 아침은 아름답다. 눈 속의 아침은 아름답다. 눈 속에 덮인 산 속의 새벽은 더욱 그렇다. 나뭇가지마다 소복이 쌓인 눈이 햇빛에 반짝인다. 해가 적이 높아졌을 때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선임 하사는 피에 붉게 젖은 한 쪽



다리를 꼭 움켜쥔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검붉은 피가 오른편 어깨죽지와 등허리에 질게 얼룩져 있다. 그는 급히 선임 하사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조용히 눈을 뜬다. 그리고 소대장을 보자 쓸쓸히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선임 하사를 꼭 그러안고 뺨을 비벼대었다. 단 둘뿐! 이제는 단둘이 남았을 뿐이었다.

"소대장님, 인제는 제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그는 조용히 선임 하사의 얼굴을 지켰다.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오랜 군대 생활에 이겨 온 굳은 의지가 엿보일 뿐이다.

선임 하사, 그는 이차 대전시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 종군하다 북지(北支)로 이동,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포로 생활 2개월을 거치고 팔로군(八路軍), 국부군(國府軍), 시조(時潮)가 변전(變轉)되는 대로 이역(異域)을 표류하다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군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는 그, 전투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신이 나는 순간이라는 그였다.

"사람은 서로 죽이게끔 마련이오. 역사란 인간이 인간을 학살해 온 기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오? 난 전투가 제일 재미있소. 전투가 일어나면 호흡이 벅차고 내가 겨눈 총구에 적의 심장이 아른거릴 때마다 나는 희열을 느낍니다. 나는 그 순간 역사가 조각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사람이란 별 게 아니라 곧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껏 살아온 태도였다. 이것뿐이다. 인제 그는 총에 맞았다. 자기 차례가 된 것을 알 뿐이다. 어렴풋이 희미한 기억을 타고 선임 하사의 음성이 떠오른다. 그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고 꿈지럭거리다가 그대로 펄쩍 쓰러졌다.

바른편 팔 위에 경련이 일어난 것이다. 햇바닥을 깨물고 고통의 일순을 넘겼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선임 하사의 생각이 이어 온다.

"소대장님, 제 위치는 결정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말을 끝낸 선임 하사는 햇별이 조용히 깃드는 양지쪽으로 기어가서 늪은 떡갈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햇별을 받아 가며 조용히 내리감은 눈, 비애도, 슬픔도, 고통도, 그 어느 하나도 없다. 다만 눈 속에 덮인 산 속의 적막, 이것이 그의 얼굴 위에 내릴 뿐이다. 의식을 잃은 듯 몸이 점점 비스듬히 허물어지다가 털썩 쓰러졌다. 그는 급히 다가가서 선임 하사를 일으키려 하였다. 그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입가에 미소가 가벼이 흐른다. 햇별이 따스히 그 입가의 미소를 지킨다.

"이대로……."

눈을 감았다. 잠시 가는 숨결이 중단되며 이어갔다.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헤치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었다. 몇 번이고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때로는 눈보라와 종일 싸워야 했고, 알 길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헤매어야 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다. 불안과 절망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잡은 이 방향이 정확한 것인가? 나의

지금 이 위치는? 상의할 아무도 없다. 나 하나뿐. 그렇다고 이대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눈 속을 헤치며 걸었다.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껏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밤이면 눈 속에 묻혀서 잤다. 해가 뜨면 또 걸어야 한다. 계곡, 비탈, 눈이 쌓인 관목 숲, 깎아 세운 듯 강파르게 솟은 산마루. 그는 몇 번이고 굴러 떨어졌다. 무릎이 깨어지고 옷이 찢어졌다. 피로와 기아, 밤이면 추위와 더불어 고독이 엄습한다. 악몽, 다시 뒤덮이는 악몽. 신음 끝에 눈을 뜨면 적막과 어둠뿐. 자주 흠어지는 의식은 적막 속에 영원히 파묻혀만 간다. 나는 이대로 영원히 눈 속에 묻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밤은 지새고 또 새벽은 온다. 그는 일어났다. 눈 속을 또 헤쳐야 한다. 산세는 더욱 험악하여만 가고 비탈은 더욱 모질다. 그는 서너 길이나 되는 비탈길에서 감각을 잃은 발길의 헛갈림으로 굴러 떨어졌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본정신이 돌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어떤 강한 충격으로 입술을 짹 깨물었다. 전신이 쿡쿡 쑤신다. 그는 기다시피 하여 일어섰다. 부르짖은 주먹이 푸들푸들 떨고 있다.

세 갈…… 네 갈……까마득하다. 그러나 올라가야만 한다. 그는 입을 악물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정신이 다자꾸 흐린다. 하늘이 빙그르르 돈다. 그는 눈을 짹 감고 나무 뿌리를 움켜쥐진 채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다. 또 기어오른다. 나무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눈덩어리와 흙덩어리가 부서져 내린다. 악전 끝에 그는 비탈에 도달하였다. 도달하던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밤이 온다.

또 새벽이 온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눈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이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총을 둘러맬 기운도 없이 허리에다 붙들어 매었다. 그는 다자꾸 흠어지는 의식을 가다듬어 가며 발을 옮겼다.

한 주일째 되던 저녁, 어슴푸레하게 저녁이 깃들 무렵 그는 이 험한 준령(峻嶺)을 정복하고야 말았다.

다음날 해가 어언간 높아졌을 무렵에 그는 눈을 떴다. 그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눈앞 C자 형으로 산줄기가 돌아 나간 그 움푹 파인 복판에 집들이 점점이 산재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모르고 눈 속에서 밤을 보냈다니… 소복이 집들이 둘러 앉은 마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마을로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집 문들이 제멋대로 열어제쳐진 채 황량하다. 눈이 마을 하나 가득히 쌓인 채 발자국 하나 없다. 돼지 우리, 소 헛간, 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열어제친 장롱……방바닥 하나 가득히 먼지 속에 흠어진 물건들…… 옷! 찢어진 옷들! 그는 그 옷들을 주워서 짝 움켜쥐었다. 사람 냄새……땀국에 젖은 사람 냄새…… 방안을 둘러본다. 너무도 황량하다. 사람이 사는 곳이 이렇게 황량해질 수는 없

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아무리 몇 번이고 보아 온 그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한쪽 벽으로 몸을 피했다. 흙이 부서진 벽 구멍으로 밖의 동정을 살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 스산한 내 정신의 탓인가?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확실히 사람들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서린다. 그는 담 구멍을 통하여 사방을 유심히 살폈다. 약 오십 미터쯤 떨어진 맞은편 초가집 뒤 언덕을 타고 한 떼가 몰려 가고 있다. 그들은 얼마 안 가 멈추었다.

멀리서 보기에다 확실히 군인임엔 틀림없다. 미군 전투 복장도 끼여 있는 듯하다. 벌써 아군 선내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는 숨죽여 이 광경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좀 수상쩍은 데가 있었다. 누비옷을 입은 군인의 그 누비옷의 형식이 문제다. 그는 좀더 자세히 이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맞은편 초가집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담벽을 따라 교묘히 소 헛간과 짚나뭇가리 등 은폐물을 이용하여 그 집 뒷마당까지 갈 수 있었다. 뒷담장에 몸을 숨기고 무너진 담 구멍으로 그들의 일거 일동을 지켰다. 눈 앞의 그림자처럼 아른거린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간간이 들려 온다.

동무……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못박혔다. 눈

앞이 아찔한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 일동을 살폈다. 머리가 덩수룩하고, 야윈 얼굴에 내의 바람의 한 청년이 양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소?"

그 위엄으로 보아 대장인가 싶다.

"생명체와 도구와는 다른 것이오.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오. 나는 기쁘오. 내가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 간다는 것, 이것이 한없이 기쁠 뿐입니다."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종소."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에 어렸다.

"이 독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것이오."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재었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나가고 있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

이다. 똑바로 정면으로 눈 준 채 조금도 흠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짝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싸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두 총구에서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선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신의 근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른다. 그는 푹 고개를 묻고 쓰러졌다. 위기 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 간다. 다자꾸 흠어지는 의식. 놈들의 사격이 똑 그쳤다. 적은 전후좌후로 흠어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졌다. 의식이 깜빡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성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한구석이 쿡쿡 찢리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머리를 광하고 내리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오른편 팔 위에 격동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오른편 팔을 앞쓸어 더듬었다. 손 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

끈적하다. 손을 떼었다.

눈 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피, 검붉은 피가 흠뻑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오야니 늘어 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 간다. 방 안이다. 방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오른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따라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심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밀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 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 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역센 손아귀



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서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는 눈을 다섯 손가락으로 꼭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 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에 함빡 쌓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 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지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오.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 앞에 흰 눈뿐, 아무 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 초 일 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다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트른,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희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적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메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눈을 털고 주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룻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 흰 눈 위다. 햇별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 큰 산

이호철

아침에 깨어 보니 온 누리에 수북하게 첫눈이 내렸는데, 대문 옆 블록담 위에 웬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가 암전하게 놓여 있었다. 얼마 안 신은 듯한 거의 새 고무신짝이었다.

아내와 나는 다 같이 꺼림칙한 느낌에 휩싸였다.

“웬 고무신일까. 누가 장난을 했나.”

내가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중얼거리자,

“아무리, 장난으로 저랬을라구요.”

아내는 어쩐지 뽀로통해지면서 말했다. 아내는 현대여성이어서라기보다는 본시부터 이런 일에는 대범한 편이었는데, 요즘 조금은 나를 닮게 된 모양이었다.

사실은 이런 일에는 내 쪽에서 훨씬 소심하고 과민한 편이어서 아내는 이런 나를 조금은 구질구질하게 여겨 왔었다.

간밤에도 근처 어느 집에서 굶을 하는 모양으로 팽과리 소리가 요란했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무성하고, 갓 대학 출신의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도, 한밤중이면 굶하는 팽과리 소리가 가끔 멀리 가까이 들리곤 하는 것이다. 아니, 반드시 한밤중만도 아니다. 한밤중의 그 소리가 더 기분이 나쁘고 음산하게 들린다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 일을 지나가는 말로라도 입밖에 낸 일은 없었다. 어쩐지 그런 유의 얘기를 주고받기조차 처음부터 꺼림칙했던 것이다. 더러 아내가,

“또, 또 어느 집에서 굶하나 봐요.”

하고 무심결에 한마디 불쑥 지껄이기라도 하면, 나는 번번이 탄청을 피우며 못 들은 체해 버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벌써 소심해져 있었고, 그 무슨 불길한 것에 손 끝에 닿는 듯하여 그런 쪽의 대꾸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렸던 것이다. 아내는 나의 이런 소심한 성격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심 구질구질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름으로도 조심하는 것 같았으나, 그럴수록 우리 두 사람은 그런 일에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상한 고무신짝을 들고 이모저모 뜯어보았다. 분명히 더도 덜도 아닌, 남자 고무신짝 하나였다. 크기도 특별나게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지 않고, 표준형 정도였다. 조금 이상하다면 금방 찢어 말린 듯이 새하얗게 희다는 점이다. 그것이 더 을씨년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그럼, 도둑일까?”

“도둑이면 발자국이라도 있을 거 아녜요. 도둑이 미쳤나, 조렇게 얄전하게 올려놓게.”

“또 알아? 심리전을 쓰느라고 저랬는지.”

“.....”

아내는 쓰디쓰게 피시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나에 대한 가벼운 편견이 스며 있었다. ‘당신이 늘 그런 데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니까 저런 것도 저렇게 끼어드는 거야요. 심리전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이쪽에서 약점이 있으면 쓰는 게지’하는 눈길이면서도, 아내는 낮은 가락으로 말하였다.

“호옥 쓰레기꾼이 장난을 했나. 두 사람 가운데 짧은 쪽이 꽤 장난꾸러기던데, 뉘 집 쓰레기통에 한 짝만 들어 있으니까 그걸……”

“그렇군, 그렇군.”

나도 둔하게 건승건승 대답은 하였으나 이미 아내의 그런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그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는 고무신으로서의 분명 단순한 용처를 일거에 몇 차원을 뛰어넘어 뚜릿뚜릿하게 내 어느 깊은 안 속으로 이미 달려들고 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이 양반, 또 병났군”하는 듯 아내는 상을 찡그리면서도,

“어젯밤도 뿡과리 소리가 밤새 나던데요. 어느 집에서 또 굶을 하는 모양이던데.”

하고 말하자,

“쓸데없는 소리.”나는 울컥 화를 내듯이 두 눈을 부릅 뜨기까지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이미 아내도 나처럼 공포감에 휘말려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국민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밭에 버려진 싹 하나를 보고 공포에 떠는 일이 있다. 비 오는 속의 무밭에 앞대가리 부분이 무없이 무성한 밭 속에 처박혀 있는 검정색 지카다비짜이었다. 밭뒤축계의 세 개의 호크까지 말짱하던 일이 지금도 뒷등이 선득할 만큼 기억에 또렷하다.

바로 태평양전쟁이 나던 이듬해인가였는데, 그 무렵에 그 지카다비는 대유행이었다. 본시 광산 노동자용이었던 모양인데, 아닌게아니라 그 검정색 생김생김부터가 광산용으로 꼭 어울려 보였었다. 우리 마을에서 5리쯤 내려가면 철도공장과 피혁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을 면한다 해서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그리고 몰려었고, 그 지카다비는 집집마다 흔했던 것이다.

그때 그 무밭의 지카다비짜이 그토록까지 무서웠던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지카다비가 지닌 평범하고도 단순한 용처를 떠나 생판 엉뚱하게도 무밭에 처박혀 있어서, 그 지카다비로서의 노선 혹은 룰에서 벗어나 나온 그 점이 공포감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뿐일까.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냥 그 정도로 처결해 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무렵 모든 신의 바닥 고무는 고무 성분이 덜 들어가 녹신녹신하지가 못하였으니까 어찌다가 바닥의 중동이 가 뚝 부러져 더 이상 못 신게 되어서 훌쩍 무발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발 한가운데로 멀리 버리고 한 짝은 이렇게 가장자리끼로. 이 지카다비짝에만 한해서는 분명히 이려했을 것이다. 공포감이고 뭐고 느껴질 건덕지라고는 없다.

아, 지금에야 생각이 난다. 그날은 마가을비가 내렸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나는 저녁답에 혼자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머릿속을 짜내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만 늦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쓸쓸해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패연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은 으레 큰 산은 구름에 깡북 가려진다.

하긴 일반론으로서도 그렇긴 하다. 활짝 갠 날보다 덜 갠 날이 기분이 언짢은 법이며, 덜 갠 날보다 흐린 날이, 흐린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비오는 날 가운데서도 마가을 저녁답의 빈 들판에 내리는 비가 훨씬 더 쓸쓸한 법이다. 그러나 그 무렵의 나에게는 더 분명한 것이 있었다. 비가 이 정도로 쏟아지는 날에는 큰 산이 구름에 깡북 가려진다. 는 점이였다. 그 큰 산이 가려지면, 여느 때는 그 큰 산에 의지하면서 각각이 각각의 분수 나름으로 암전히 있던 가까운 주위의 야산들이 갑자기 시커멓게 뚜릿뚜릿해지며 그



로테스크한 외양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들판도 의지할 데를 잃어버리며 한결 가라앉는다. 온 누리는 그렇게 갑자기 균형을 잃고 썰렁해지고, 개개의 것들이 개개 나름으로 저를 주장해 나서며 티격태격거리기 시작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도 쓸쓸하게 느껴졌던 것일까.

우리 마을 서쪽 멀리 청빛의 마식령 줄기가 가로 뻗어 갔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큰 산’이라고 불렀다. 내 경우 이 큰 산은 그곳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나의 존재의, 나를 둘러싼 모든 균형의 어떤 근원을 떠받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태어난 뒤 가장 먼저 익숙해진 것은 어머니의 젓가슴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익숙해진 것은 그 큰 산이었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집에서 정면으로 건너다보이던 그 큰 산, 문만 열면 서쪽 하늘 끝에 웅장하게 덩더룻이 솟아 있던 그 청빛 큰 산. 그 큰 산에서부터 산과 골짜기들이 곤두박질을 치듯이 큰 내를 이루며 내려오는 가에 미루나무숲이 우거지고, 우리 마을이 앉아 있다. 그렇게 우리 마을 앞에서부터 좁은 들판이 시작된다. 이 들판은 더욱 퍼지면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 두 야산 끝머리의 한 머리는 원산 거리 쪽으로 금방 잘록하게 끝나고, 한 머리는 비옥한 안변 평야의 북쪽 끝으로 가닿는다.

바람도 없이 비는 패연히 쏟아졌고, 저녁답이라, 들판은 행하니 비어 있었다. 위 보매기 마을로 올라가는 길과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갈림길까지는 빈 달구지 서넛이 가고 있어 그런대로 나도 심심치는 않았다. 달구지꾼들은 늘 수그레하였고, 소 엉덩이 뒤에 바짝 붙어 앉아 웅숭그리고 있었는데, 싸릿대로 엮은 샷갓을 쓰고 쉬임없이 웅얼거리고들 있었다. 비를 맞고 가는 어린 나더라도 저희들 빈 달구지에 올라타라고 했을 법도 한데, 어째선가 그날따라 하나같이 모두가 냉랭하였다. 나도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들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접어 생각하면서, 무리를 해서까지 굳이 올라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달구지꾼들과 헤어져 마을로 들어가는 안길로 혼자 꺾이면서, 비로소 나는 저녁답과 비를, 그리고 큰 산이 안 보이는 쓸쓸함을 분명하게 의식했다. 아, 그때의 그 분명하던 의식! 그리고 그 쓸쓸함!

바람 한 점 없이 패연하게 쏟아지는 빗속에, 온 누리는 음산하고 오로지 써늘할 뿐이었다. 천지에 들리는 것은 지척지척 비 내리는 소리뿐이었다. 아, 그 아득함! 아득함! 그 비 내리는 소리도, 귀를 곤두세워 빗소리를 의식하면서도 듣자고 해야, 발 가운데 여기저기 세워 놓은 수숫대 무더기에 비꼬치 듣는 소리로 구체적으로 들릴 뿐이지, 그냥 멍청한 귀에는 그 빗소리가 그저 그렇게 낮은 가락의 그 무슨 하늘과 땅의 둔탁한 소리 같은 것으로, 큰 산을 잃어버린 허공 같은 소리로만 들리던 것이었다.

그 큰 산이 구름에 깎박 가려 보이지 않아서 좁은 들판은 더욱 푸욱 패어 보이고, 양옆의 야산도 빗속에 더 시

커멓게 뚜릿뚜릿해 보였다. 빠안히 들여다보이는 우리 마을도 집집의 굴뚝마다 젖은 저녁 연기는 내고 있었지만 여느 때 없이 쓸쓸해 보였다.

큰 산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이 어찌 이렇게도 이 들판에, 이 누리에 쓸쓸한 느낌을 더하게 하는 것일까. 야산을 야산이도록, 강이 강이도록, 이만한 분수의 들판을 이만한 분수의 들판이도록, 저렇게 빠안히 건너다보이는 우리 마을을 우리 마을이도록, 제 분수대로 제자리에 쏙 들어앉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바로 이때 나는 길 가장자리 무밭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 지카다비 짝을 흘깃 보았었다. 순간 화닥닥 놀라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공포감에 휘감겨서 미친 듯이 빛속을 달렸었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 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단했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서 입 밖에 내지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 짝은 대문 앞의 멋대거리없게 생긴 시멘트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졌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

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땀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아,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 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별떡 자리에서 일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을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갑북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냐?”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지워버렸다.

그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

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아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뚫렸다고 싶으면 스스로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대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 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뺀으며 시뻘시뻘 큰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춰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이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머,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연히 떨고 있었다. 거의 혈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감겼다.

아내도 까맣게 질린 얼굴이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염병 돌 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혈떡거리듯이 지껄었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 보았다.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집에서 저집으로, 저집에서 이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왜?”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찌영한 느낌에 휘어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팽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하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까지 극성맛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대체 저놈의 것을 어찌지?”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짝을 만지기도 싫어서, 그것을 엇비슷이 건너다보며 투덜거렸다.

“어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아내는 독(毒) 오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처리하다니 어떻게?”

“아주 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산에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뭇 허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거 아녜요.”

하고, 아내는 다시 말하였다.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터예요. 하다 못해 동빙고동에라도.”

“뭐라고?” /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게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적의 그 ‘지카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깎복 가렸던 교묘한 산천을 떠올렸다.

“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내가 나지막하게 혼잣소리로 중얼거리자,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 이제 무슨 소리 했소. 대체 ‘큰 산’이 뭐유, ‘큰 산’이.”

“…….”

그 ‘큰 산’은 청(靑)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더룻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혹은 네 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근원은 뿌리 깊게 일관해 있었다. 해 뜨기 전 새벽에는 청청한 빛으로 무겁게 싱싱하고 첫 햇별이 쪼이면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별 속의 한낮에는 멀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해 질 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명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 간다. 봄엔 봉우리부터 여드러워지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그 ‘큰 산’ 쪽으로 마파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샛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으로 자리해 있었던 것이다. 그 ‘큰 산’이 그곳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뿌리 깊게 웅거(雄據)해 있다는 것이, 우리들 존재의 어떤 근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깊숙하게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아, 그 ‘큰 산’, ‘큰 산’.

그날 밤 아내는 악착같이 해볼 기세로, 시뻘게진 얼굴로, 그 ‘고무신짚’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싸 가지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아홉 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과연 나갈 때의 멍뚱그러진 표정은 가셔지고,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놓은 듯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도 안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 서로 존중해 줄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아내의 그 일은 그런대로 그 나름의 차원으로 성공한 모양이었다.



## 꺼삐딴 리

전광용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李仁國) 박사는 응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그는 백금 무테안경을 벗어 들고 이마의 땀을 닦았다. 등골에 축축이 땀 땀이 젖아 들어감에 따라 피로가 스며 왔다. 두 시간 이십 분의 집도 위장 속의 균종(菌腫) 적출. 환자는 아직 혼수상태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수술을 끝낸 찰나 스쳐 가는 육감 그것은 성공여부의 적중률을 암시하는 계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웬일인지 뒷맛이 꺼림칙하다.

그는 항생질 의약품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일제시대부터 개복 수술에 최단 시간의 기록을 세웠던 것을 회상해 본다. 맹장염이나 포경 수술, 그 정도의 것은 약과다. 젊은 의사들에게 맡겨 버리면 그만이다. 대수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방임할 수만은 없다. 환자 측에서도 대개 원장의 직접 집도를 조건부로 입원시킨다.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 왔고 스스로 집도하는 쾌감을 느꼈었다. 그의 병원 부근은 거의 한 집 건너 병원이랄 수 있을 정도로 밀집한 지대다. 이름 없는

신설 병원 같은 것은 숫제 비 장날 시골 전방처럼 한산한 속에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인국 박사는 일류 대학 병원에까지 손을 쓰지 못하여 밀려오는 응급환자들 틈에 끼여 환자의 감별에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것은 마치 여관 보이(Boy)가 현관으로 들어서면 손님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그 등급에 맞는 방을 순간적으로 결정하거나 즉석에서 서슴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와 흡사한 것이라고나 할까.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결하다는 것과, 치료비가 여느 병원의 갑절이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初診)에서는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신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진(豫診)은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 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와 아울러 경제 제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상대가 지기(知己)나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가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단은 한 푼의 미수(未收)나 결손도 없게 한, 그의 인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속에 드는 축이어야만 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테 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그의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벽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 후퇴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인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십팔금 회중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 2시 40분! ”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

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 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伴侶)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편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국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삼팔선, 미군 부대, 그 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17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각째각 소리에 귀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각모(角帽)와 쓰메에리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수술 직전에 서랍에 집어넣었던 편지에 생각이 미쳤다. 미국에 가 있는 딸 나미. 본래의 이름은 일본식의 나미코다. 해방 후 그것이 거슬린다기에 나미로 불렀고 새로 기류계에 올릴 때에는 코(子)를 완전히 떼어 버렸다. 나미창! 딸의 모습은 단란하던 지난날의 추억과 더불어 떠올랐다. 온 집안의 재롱둥이였던 나미, 그도 이젠 성숙했다. 그마저 자기 옆에서 떠난 지금, 새로운 정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이인국 박사는 가끔 물밀어 오는 허전한 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 있을 때 죽었고, 아들의 생사는 지금껏 알 길이 없다. 서울에서 다시 만나 후처로 들어온 혜숙(蕙淑), 이십 년의 연령차에서 오는 세대의 거리감을 그는 억지로 부인해 본다. 그러나 혜숙의 피둥피둥한 탄력에 윤기가 더해가는 살결에 비해 자기의 주름 잡힌 까칠한 피부는 육체적 위축함마저 느끼게 하는 때가 없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 난 돌 지난 어린것, 앞날이 아득한 이 핏덩이만이 지금의 이인국 박사의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피붙이다. 이인국

박사는 기대와 호기에 가득 찬 심정으로 항공 우편의 피봉을 뜯었다. 전번 편지에서 가타부타 단안(급하게 결정함)은 내리지 않고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한 그 후의 경과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건가…….'

그는 편지를 탁자 위에 밀어 놓았다. 어찌면 이러한 결말은 딸의 출국 이전에서부터 이미 싹튼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택한 딸, 개인 지도를 하여 준 외인 교수, 스칼라십을 얻어 준 것도 그고, 유학 절차의 재정 보증인을 알선해 준 것도 그가 아닌가. 우연한 일은 아니다. 그러한 시류에 따라 미국 유학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 자기가 아닌가.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인 교수. 이왕이면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던 솔직한 고백에, 자기의 학문을 위한 탁월한 견해라고 무심코 찬의를 표한 것도 자기가 아니던가.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암시였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인국 박사는 상아로 된 오존 파이프를 앞니에 힘을 주어 지그시 깨물며 눈을 감았다. 꼭 풀 썬 개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은 분하고도 허황된 심정이다. '더러운 년 같으니, 기어코…….'

그는 큰기침을 내뿜었다. 그의 생각은 왜정 시대 내선 일체(內鮮一體)의 혼인론이 떠돌던 이야기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는 그것을 비방하거나 굴욕처럼 느끼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해석했고 어찌 보면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경우는……. 그는 딸의 편지 구절을 곱씹었다. '애정에 국경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진부하다. 아비도 학창 시절에 그런 풍조는 다 마스터했다. 건방지게, 이게 새삼스레 아비에게 설교조로……. 좀 더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니 외딸인 제가 그런 국제결혼의 시금석이 되겠다 말인가. '아무튼 아버지께서 쉬 한 번 오신다니 최종 결정은 아버지의 의향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그래 아버지가 안 가면 그대로 정하겠다 말인가. 이인국 박사는 일대 잡종(一大雜種)의 유전 법칙이 떠오르지 머리를 내저었다. '흰둥이 손자'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그는 내던졌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대학 캠퍼스 같은 석조전의 거대한 건물, 그 앞의 정원, 뒤쪽에 짝을 지어 걸어가는 남녀 학생, 이 배경 속에 딸과 그 외인 교수가 나란히 어깨를 짚고 서서 웃음을 짓고 있다. '흥 놀기는 잘들 논다…….' 꿈, 신음 소리를 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튼 미스터 브라운을 만나 이왕 가는 길이면 좀 더 서둘러야겠다. 그 가장 대

우가 좋다는 국무성 초청 케이스의 확정 여부를 빨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조바심을 쳤다. 그는 아내 혜숙이 있는 살림방 쪽으로 건너갔다. "여보, 나미가 기어코 결혼하겠다는구려." "그래요……" 아내의 어조에는 별다른 감동이나 의아도 없음을 이인국 박사는 직감했다.

그는 가능한 한 혜숙이 앞에서 전실 소생의 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가 왔다. 어떻게 보면 나미의 미국 유학을 간접적으로 자극한 것은 가정 분위기의 소치라는 자격지심이 없지 않기도 했다. 나미는 물론 혜숙을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 준 일이 없었다. 혜숙이 또한 나미 앞에서 어머니라고 버젓이 행세한 일도 없었다. 지난날의 간호원고 오늘의 어머니, 그 사이에는 따져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복제되어 있었다. "선생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돕겠어요." 서울에서 이인국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마음속 그대로 털어놓은 혜숙의 첫마디였다. 처음에는 혜숙이도 부인의 별세를 몰랐고, 이인국 박사도 혜숙이의 혼인 여부를 참견하지 않았다. 혜숙은 곧 대학 병원을 그만두고 이리로 옮겨 왔다. 나미는 옛정이 다시 살아 혜숙을 언니처럼 따랐다. 이들의 혼인이 익어 갈 때 이인국 박사는 목에 걸리는 딸의 의향을 우선 듣기로 했다. 딸도 아버지의 외로움을 동정하고 있었다. 자기 자

신 아버지의 시중이 힘에 겨웠고 또 그 사이 실지의 아버지 뒤치다꺼리를 혜숙이 해왔으므로 딸은 즉석에서 진심으로 찬의를 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혜숙과 나미의 간격은 벌어졌고, 혜숙은 남편과의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나미가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차츰 가지게 되었다. 혜숙 자신도 처음에는 마음놓고 이인국 박사를 남편이라 생각하고 일대일로 부르진 못했다. 나미의 출발, 그 후 어린애의 해산, 이러한 몇 고개를 넘는 사이에 이제 겨우 아내답게 느림히 남편을 대할 수 있고 이인국 박사 또한 제대로의 남편의 체모로 아내에게 놓을 걸 수 있게끔 되었다. "기어코 그 외인 교수와 가까워지는 모양인데." 이인국 박사는 아내의 얼굴을 직시하지는 못하고 마치 독백하듯이 뇌까렸다. "할 수 있어요. 제 좋다는 대로해야지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인국 박사에게는 들려왔다. "글쎄, 하기는 그렇지만……." 그는 입맛만 다시며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다.

잠을 깨어 울고 있는 어린것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내의 짧은 육체에서 자극을 느끼면서 이인국 박사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만 같은 나미에 대한 강박관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저 어린것이 자라서 아들 원식(元植)이나 또 나미 정도의 말상대가 될래도 아직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때 자기는 칠십이

넘는 할아버지다. 현대 의학이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고, 암 같은 고질이 아닌 한 불의의 죽음은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의사이면서 스스로의 생명 하나를 보장할 수 없다. '마누라는 눈앞에서 나는 새 놓치듯이 죽이지 않았던가.' 아무리 해도 조놈이 대학을 나올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 아무렴, 때가 때인 만큼 미국 유학까지는 내 생전에 시켜주어야지. 하기야 그런 의미에서도 일찌감치 미국 혼반을 맺어 두는 것도 그리 해로울 건 없지 않나. 아무렴 우리보다는 낮게 사는 사람들인데. 남 좀 보기 체면이 안 서서 그렇지. 그는 자위인지 체념인지 모를 푸념을 곱씹었다.

"여보, 저걸 좀 꾸려요." 이인국 박사의 말씨는 점잖게 가라앉았다. "뭐 말이에요?" 아내는 젓꼭지를 물린 채 고개만을 돌려 되묻는다. "저 병 말ियो." 그는 화장대 위에 놓은 골동품을 가리켰다. "어디 가져 가세요?" "저 미 대사관 브라운 씨 말이야. 늘 신세만 졌는데……."

아내가 꼼꼼히 싸놓은 포장물을 들고 이인국 박사는 천천히 현관을 나섰다. 벌써 석간 신문이 배달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 기적임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공포와 감격을 함께 휘몰아치는 착잡한 추억. 늘 어제일 마냥 생생하기만 하다.

1945년 8월 하순.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칠 때였다. 말복(末伏)도 지난 날씨언만 여전히 무더웠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둘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늘 오늘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붓비던 환자도 얼씬하지 않고 실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입원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조수와 약제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혜숙만이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이 층 샅 조 다다미방에 혼도시와 유카다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갑갑증을 가서 낼 수는 없었다.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 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다. 굳게 닫혀 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곳에 씌어 있는 구절.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타도하자.' 옆에 붙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쪽으로 머리를 뒹 돌렸다. '나야 괜찮겠지…….'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이 흘리면서 아래위로 훑어보던 그 촌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쓴 것처럼 깨름 텃텃하기만 했다. 그깁놈 하고 머리에서 찢어 버리려 해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 붙는 것만 같았다.

벌써 육 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뻥뻥그런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아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뻥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켕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



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치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皇國新民)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 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 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 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 대회 끝에 있는 해방 경축 시가 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혜숙이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뚱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벉벉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혜숙에게서 듣고야 슬금 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마는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었다. 갑자기 밖이 왱자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깡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졌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꾸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 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와 저기(赤旗)를 들고 환성을 울리고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혜숙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이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에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짚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국어 상용[國語(日語) 상용]의 가(家)'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 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의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 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

속을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의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출선 수범하는 내조지 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하던 국민 총력 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로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뿐었다. 그리고는 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 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 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주위가 어두워 왔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요와 소름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당꾸 부대가 들어왔어요.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 안에 처박혀 뭘 하구 있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구두 대담한 것일까…….' 이인국 박사는 얇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불두 엽때 안 켜구."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이인국 박사는 백 축 전등이 너무 환한 것이 못마땅했다.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구 캄캄한데……자 어서 나가 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못하면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어 섰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兩岸)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 서서히 흘러간다. 위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이 '우라아'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멧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두는 일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

지도록 거듭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뇌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민요 뒤에 계속 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체의 무기 소지는 금하니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였다. 그는 문득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에 생각이 미치었다. 그러면 저거도 마쳐야 하는 것일까. 영국에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품이었다.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가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는 건국 준비위원회의 누구인가의 연설이 계속된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이삼 일 동안은 자기도 태연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황은 더욱 없다.

밤이 이슬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없다는 듯이 어머니, 혜숙이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연 다듬어지지 않는 뒤형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쁘불을 불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일면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 삼면으로 눈을 옮겼다.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곁들여 있다. 그는 코허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차 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역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던 말인가.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 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애,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식아, 별수없다. 왜정 때는 그래도 일본 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아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낫세로야 그걸 못 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큰 놈이라구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두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텐코프 소좌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 짓고야 말았다.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표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재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쩔라구……"

"가만있어요, 호랑이두 굴에 가야 잡는 법이오. 무슨 세상이 되든 할대로 해 봅시다." "그래도 저 어린것을

어떻게 노서아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야들도 가지 못해 골들을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구."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재가 소련 바람을 쏘이구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짝소리를 못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 번 살아 봅시다."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시키고 그는 아들의 유학을 관철하였다. '흥 혁명 유가족두 가기 힘든 구멍을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구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 다음해에 사변이 터졌다. 잘 있노라는 서신이 계속하여 왔지만 동란 후 후퇴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대로였다.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다치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훑어 내려갔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 연관되는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 자식은 무얼 꾸물꾸물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담……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 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명추 같이…….' 그는 신문을 포개어 되내대로 말아 쥐었다. '개천에서 용마가 난다는데 이걸 제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그는 혀를 짹짹 갈겼다. '어쩌면 가족



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도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종의 압력이 퍼져 갈 터인데……역시 고지식한 놈이 아무래도 모자라…….'

그는 자동차에서 내리자 건가래침을 내뿜었다. '독또오루 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스텐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는 것만 같았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날이다.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반신이 저려 오고 옆구리가 쭈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어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디든지 가 숨거나, 진작으로 남으로라도 도피했을 걸……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 줄 사람이 어디 있담. 의지할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 버리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 재판의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떴을지도 모른다. 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쪽발이 끄나풀, 야 이 새끼야." 고함 소리에 놀라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 속으로 뇌까렸다. "왜놈의 밑바시, 이 개새끼야."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죽어 봐라." 구뚝발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신을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깻죽지를 끌어 바로 앉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 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항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렵듯이 정신을 차렸다. 노란 털이 영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끄르고 있다.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의 시계 주머니를 부들켜 쥐면서 손의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 병사가 시계 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히죽이 웃고 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 쥐었다. "흥……야쁜스키……."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노기를 띠어 갔다. "아니, 이것만은!"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대로 손아귀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병사는 뒷박만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시계를 채어 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 "죽음과 시계……."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양쪽 팔목에 팔뚝 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기의 회중 시계까지 앗아 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 갈 뿐이다.

감방 속을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달포가 지나는 사이에 맨 안쪽 뚱뚱 위에 자리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삼분지 이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되었다. 그는 하루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

에 섞여 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날부터 불평만을 늘어놓던 축들이 불러 나가 반송장이 되어 들어왔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감방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함구령이 지산 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 책을 첫장부터 꼼꼼히 뒤지고 있을 뿐이다. 등골이 쪼고 옆구리가 결려 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 없다. 노어 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중형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양곡 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칠 년,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십 년, 감정적인 즉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리 판국에 법이고 뭇이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일 판인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 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 행위…….'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 징역, 사형감인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후 큰 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바짝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참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실오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그 창살을 거쳐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얹어 휘몰아 오곤 했다. 가슴이 짜릿했다. 밖의 세계와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혜숙이, 누구누구……그러다가 외과계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짝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수 있었어. 날구 똥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놈한테 아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흥,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루의 희망을 던져 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역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마 스텐코프 소좌라고 했지. 그 흑부리 장교,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또오루 독또오루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감 같기만 했다. 이인국 박사는 신음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복도에 켜져 있는 얽은 전등 불빛이 쇠창살을 거쳐방 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 쪽을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밤이다.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짓가랑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 본 손을 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 냄새다. 옆에 누운 청년의 앓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청년 궁둥이도 젖어 있다. '설산가 보다.' 그는 살창문을 흔들며 교화 소원을 고향쳐 불렀다. "뭉야!" 자다가 깬 듯한 흐린 소리가 들려 왔다. "환자가……이거, 봐요."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서 뺨 붙은 모자 밑의 둥그스름한 윤곽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인국 박사는 청년의 궁둥이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피로균, 피야." 그는 그제서야 붉은빛을 발견하곤 놀란 소리를 쳤다. "적리야, 이질……." 그는 직업 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큰 소리를 질렀다. "뭉, 적리?" 바깥 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 간 음성이다. "피똥 뺏소, 피똥을……이것 봐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응, 피똥……." 아우성 소리에 감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 둘 눈을 뜨며 저마다 놀란 소리를 쳤다. "적리, 이건 전염병이오, 전염병." "뭉. 전염병……." 그제서야 교화소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이튿날 미결감 다른 감방에서 또 같은 증세의 환자가 두셋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이 판국에 병만 나면 열의 아홉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저녁 후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 나갔다. "동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 치료실에서 일하십시오." 이게 무슨 청천 벽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교와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띠어 갔다. "알겠소 영……" "네."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며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니까.'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죽어 넘어진 송장이 개 치우듯 꾸러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인국 박사는 꼭 자기 일 같이만 느껴졌다. '의사,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는 몇 번이고 감격에 차 중얼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담당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일은 그의 실력이 흑부리 고문관의 유다른 관심을 끌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상범을 옥사시키는 경우는 책임자에게 큰 문책이 온다는 것은 훨씬 후에야 그가 안 일이다. 소련 군의관에게 기술이 인정된 이인국 박사는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죄상 처벌의 결말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

로 활용하고 싶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텐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 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黨性)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戰功)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새기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텐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黨史)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 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근히 주기를 띤 스텐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일 전 소군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텐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스텐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있는 설복을 했다. '동경 경응 대학 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그는 혼자 머릿속에서 자문 자답 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 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 기재를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군의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 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선 한갓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들을 자기 집 조수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대는 완전히 자기 진단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 놓곤 했다. 수술대에 누운 스텐코프의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찻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삼 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제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 맺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축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안의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해살 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

되어 퇴원하는 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은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꺼비딤 리, 스바씨보." 이인국 박사는 입을 헤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아진, 아진……오첸 하라쇼." 스텐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칭찬했다.

다음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적과 적이 맞부딪치면서 이렇게 백팔십 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 대가리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독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 가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텐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바씨보, 스바씨보."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궤궤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셔지지 않았다.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 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스텐코프는 흑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없소, 독도우루 리.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오.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스텐코프의 얼굴에 결의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 가는 것을 이인국 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일껏 잘되어 가는 일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시오, 독도우리 리, 하하하." 스텐코프는 말을 큰 웃음으로 넉넉히 말끝을 막았다. 이인국 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 저렇게 노어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텐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赤旗)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 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벽 쪽 책꽂이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대동야승(大東野乘)> 등 한적(漢籍)이 빼곡히 차 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帙冊)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 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십이 폭 예서(隸書)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의 때묻은 백자기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象嵌辰砂) 고려 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한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탕큐를 거듭 부르짖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잇닿은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브라운 씨가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 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말 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쟈도 이즈 아 갓도'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문법이 아

주 정확한 스텐더드 잉글리시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탁 스텐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그리고 보면 영국에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알(R)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금을 느꼈다.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 나왔다. "아무 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워드카 한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속이 시원해 하던 스텐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 보고 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한 잔을 핥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 국무실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뿔 듯이 기뻐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탱큐, 탱큐." 어찌면 이것은 수술 후의 스텐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처세법은 유에스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둬주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미국

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탱큐……."

다음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렵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민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이번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도 할 듯이 두둥실 가벼웠다. 이민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잊겨져 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올랐다. 신체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일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오면 별이라도 탄 듯이 날치는 꼴이 사나웠다. '어디 나두 땡겨오구 나면 보자!'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 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 보냈다.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닥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

뀌구,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튕 듯이 부스에 털썩 주저앉았다. "반도 호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 오발탄

이범선

계리사 사무실 서기 송철호는 여섯 시가 넘도록 사무실 한구석 자기 자리에 멍청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미진한 사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장부는 벌써 집어 치운지 오래고 그야말로 멍청하니 그저 앉아 있는 것이었다. 딴 친구들은 눈으로 시계바늘을 밀어 올리다시피 다섯 시를 기다려 후다닥 나가 버렸다. 그런데 점심도 못 먹은 철호는 허기가 나서만이 아니라 갈 데도 없었다.

"송 선생은 안 나가세요?"

이제 청소를 해야 할테니 그만 나가달라는 투의 사환애의 말에, 철호는 다 낡아빠진 해군 작업복 저고리 호주머니에 깊숙이 찌르고 있던 두 손을 빼내어서 무겁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가야지."

하품 같은 대답이었다.

사환애는 저쪽 구석에서부터 비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먼지가 사정없이 철호의 얼굴로 몰려왔다.

철호는 어슬렁 일어섰다. 이쪽 모서리 창가로 갔다. 바

깨쓰의 물을 대야에 따랐다. 두 손을 끝에서부터 가만히 물 속에 담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물이 꽤 손 끝에 시렸다. 철호는 물 속에 잠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펜대에 시달린 오른손 장지 첫마디에 콩알만한 못이 박혔다. 그 못에서 파란 명주실 같은 것이 사르르 물 속으로 풀려났다. 잉크, 그것은 잠시 대야 밑바닥을 기다 말고 사뿐히 위로 떠올라 안개처럼 연하게 피어서 사방으로 번져 나갔다. 손가락 끝을 중심으로 하고 그 색의 농도가 점점 연해져 나갔다. 맑게 개인 가을 하늘 색으로 대야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간 그것은 다시 중심의 손끝을 향해 접어들며, 약간 진한 파랑색으로 달무리 모양 동그란 원을 그렸다.

피! 이걸 분명히 피다!

철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 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을 보았다. 철호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는 얼굴의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히물히물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리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패인 두 눈, 까깁진 볼, 날카롭게 여윈 턱, 송장처럼 꺼멓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모난 돌을 하나 칠펅굴로 아무렇게나 잡

아매서 들고, 동굴속에 남겨 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하여 온 종일 숲 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곰?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멧돼지? 힘이 모자란다.

노루? 너무 날쌔어서.

꿩? 그놈은 하늘을 난다.

토끼? 토끼. 그래, 그놈 썸은 꽤 때려 잡음직하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즈음은 뭍에 잘 돌아오지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그래도 무어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파란 물 속에 빨간 노을이 잠겼다. 끈끈하게 사나이의 손에 묻었던 피가 노을빛 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그런데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는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보았다. 누군가 숲 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 오는 것이었다.

철호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 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우구구 까담모를 울분이 끓어 올랐다.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흥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 들었다. 레이션 광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쓰레기,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헌데 더덩이 모양 깔렸다.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열기설기 문살에 얹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 끈처럼 된 형겅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 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영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썩썩하고 간사한 게 어떤 탄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이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솜 누더기에 싸놓은 미이라였다. 흰 머리카락

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서 마치 딸국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짹짹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영영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지리 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철호는 저녁 때 일터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야 알아듣건 말건 그래도 '어머니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곤 하였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그것마저 안하게 되었다. 그저 한참 물끄러미 굽어보고 섰다가 그대로 윗방으로 올라와 버리는 것이었다.

컴컴한 구석에 앉아 있던 철호의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담요 바지 무릎을 한쪽은 꺼멍, 또 한쪽은 회색으로 기웠다. 만삭이 되어서 꼭 바가지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배를 안은 아내는 몽유병자처럼 철호의 앞을 지나 나갔다.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분명 병어리는 아닌데 아내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

철호는 누가 꼭대기를 쿡 쥐어박기나 한 것처럼 흠칫했다.

바로 옆에 다섯 살 난 딸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철호는 어린것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웃어 보이려는 철호의 얼굴이 도리어 흉하게 이지러졌다.

"나아, 삼촌이 나이롱 치마 사준댔다."

"응."

"그리구 구두두 사준댔다."

"응."

"그러면 나 엄마하고 화신 구경간다."

"....."

철호는 그저 어린것의 노랗게 뜬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철호의 흰 셔츠 허리통을 잘라서 위에 끈을 꿰어 스커트로 입은 딸애는 짹짹 양말 목달이에다 어디서 주운 것인지 가는 고무줄을 끼었다.

"가자! 가자!"

아랫방에서 또 어머니의 그 저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칠 년을 두고 들어와도 전연 모를 그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

철호는 또 눈을 감았다. 머릿 속의 낫줄이 팽팽히 헤어졌다. 두 주먹으로 무엇이건 콧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에 철호는 어금니를 바스러져라 맞씹었다.

좀 चु기기는 해도 철호는 집안보다 이 바위 잔등이 더 좋았다. 그래 철호는 저녁만 먹으면 언제나 이렇게 집 뒤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 위에 두 무릎을 세워 안고

앉아서 하염없이 거리의 등불들을 바라보며 밤 깊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느 거리 쯤인지 잘 분간 할 수 없는 저 밑에서 술 광고 네온사이이 핑그르르 돌고 깜빡 꺼졌다가 또 번뜩 켜지고 핑그르르 돌고는 깜빡 꺼지고 하였다.

철호는 그저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 네온사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위 잔등이 차츰차츰 식어왔다. 마침내 다 식고 겨우 철호가 깔고 앉은 그 부분에만 약간 온기가 남았다. 이제 조그만 더 있으면 밑이 시려올 것이다. 그러면 철호는 하는 수없이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드디어 철호는 일어섰다. 오래 꾸부려 붙이고 있던 두 다리가 저렸다. 두손을 작업복 호주머니에 깊숙이 찔렀다. 철호는 밤 하늘을 한 번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밤거리보다 더 화려하게 별들이 뿌려져 있었다. 철호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북두칠성을 찾아보았다. 머리를 뒤로 젖혀 하늘을 쳐다보는 채 빙그르르 그 자리에서 돌았다. 거꾸로 달린 물주걱 같은 북두칠성은 쉽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그 북두칠성 앞에 단 별들 보다 좀 크고 빛나는 별, 그건 북극성이었다. 철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북극성을 연결하는 직선을 밤 하늘에 길게 그어 보았다. 그리고 그 선을 눈이 닿는 데까지 연장시켰다. 철호는 그렇게 정복을 향하여 한참이나 서 있었다. 고향 마을이 눈앞에 떠올

랐다. 마을의 좁은 길까지, 아니 그 길에 박혀 있던 돌 하나까지도 선히 볼 수 있었다.

으스스 몸이 떨렸다. 한기가 전기처럼 발끝에서 튀어 쿿구멍으로 빠져 나갔다. 철호는 크게 재채기를 하였다. 그리고 또 한 번 부르르 몸을 떨며 바위 밑으로 내려왔다.

철호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가자!"

철호는 멈칫 섰다. 낮에는 이렇게까지 멀리 들리는 줄은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그 소리가 골목 어귀에 까지 들려왔다.

"가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 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꼭 닿도록 담을 쌓았던 말이나 어쨌단 말이나.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는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숨과 함께 무릎을 치며 꺼지듯이 풀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

"어머니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아요?"

하고, 남한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만일 북한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은 이야기를 다 예로 들어가며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삼팔선을 인식시키기보다도 몇 백 갑절 더 힘드는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래 끝내 철호는 어머니에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지리지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은 죽어도 하지 않는 철호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늙은 에미를 잡으려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천하에 고약한 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야 철호에게도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하늘이 알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는 해도 산등성이를 악착스레 깎아 내고 거기에다 게딱지 같은 판잣집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두 내 나라를 찾았다게 기뻐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시집올 때 입었던 홍치마를 꺼내 입구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꼴 좋다. 난 싫다. 아무래두 난 모르겠다. 뭐가 잘못 됐건 잘못 된 너머 세상이다 그래."

철호의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육이오 사변으로 바로 발밑에 뻘히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큰애야 이젠 정말 가자. 데것 봐라. 담이 흠씩 무너뒀는데 삼팔선의 담이 테렇게 무너뒀는데 야."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이상이었다. 지금의 어머니, 그것은 이미 철호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것이 철호 자기의 어머니일 수는 없었다. 세상에 아들 딸마저 알아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날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가자! 가자!"

하고 저렇게 짹짹한 목소리로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 그 밖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철호에게 있어서 지금의 어머니는, 말하자면 어머니의 시체에 지나지 않았다. 뚫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그래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철호는 윗방 문을 열었다. 아랫방과 윗방 사이 문턱에 위태롭게 올려놓은 등잔이 개똥벌레처럼 가물거리고 있었다. 윗방 아랫목에는 딸애가 반듯이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담요를 몸에다 돌돌 말고 반듯이 누운 것이 꼭 송장 같았다. 그 옆에 철호의 아내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꺼먼 형겅과 회색 형겅으로 기운 담요 바지 무릎 위에는 빨강색 유단으로 만든 조그마한 운동화가 한 켤레 놓여 있었다. 철호가 방안에 들어서자 아내는 그 어린애의 빨간 신발을 모두어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아 철호에게 들어보였다.

"삼촌이 사 왔어요."

유난히 속눈썹이 긴 아내의 눈이 가늘게 웃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다. 자기가 미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지 오랜 아내처럼, 또 오래 보지 못하여 거의 잊어버려 가던 아내의 웃는 얼

굴이었다.

철호는 등잔이 놓인 문턱 가까이 가서 앉으며 아내의 손에서 빨간 어린애의 신발을 받아 눈앞에서 아래위를 살펴 보았다

"산보 갔었소?"

거기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뒷방을 향해 앉은 철호의 동생 영호가 웃으며 철호를 쳐다보았다.

"언제 들어왔니?"

"지금 막 들어와 앉는 길입니다."

그리고 보니 영호는 아직 넥타이도 끄르지 않고 있었다.

"형님!"

새삼스레 부르는 동생의 소리에 철호는 손에 들었던 어린애의 신발을 아내에게 돌리며 영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두 한 번 살아 봅시다. 제길, 남 다 사는데 우리라구 밤낮 이렇게만 살겠수? 근사한 양옥도 한 채 사구, 장기판만한 문패에다 형님의 이름 석자를, 제길 장님도 보게 써서 대못으로 팡팡 때려박구 한 번 살아 봅시다."

군대에서 나온 지 이 년이 넘도록 아직도 직업도 못 잡은 영호가 언제나 술만 취하면 하는 수작이었다.

"그리구 이천만환짜리 세단 차도 한 대 샅시다. 거기다 똥통이나 싼고 다니게. 모든 새끼들이 아니꼬워서. 일

이야 있건 없건 종일 뽕뽕 울리면서 동리를 들락날락 해야지. 제길. 하하하."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영호는 별걸개 열에 뜬 얼굴을 하고 담배 연기를 푸 내뿐었다.

"또 술 마셨구나."

고학으로 고생고생 다니던 대학 삼 학년에서 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온 영호로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 직업을 잡지 못하는 것은 별도리도 없는 노릇이라 칠 수도 있었지만,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 거의 저녁마다 이렇게 취해 들어오는 동생 영호가 몹시 못마땅한 철호의 말이었다.

"네, 조금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것도 들으나마나 늘 같은 대답이었다. 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철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술 좀 그만 마셔라."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는 걸요."

"글쎄 그러니까 그 어울리는 걸 좀 삼가란 말이다."

"그럴 수도 없구요. 하하하."

"그렇다구 언제까지 그저 그렇게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면 뭐가 되나?"

"되긴 뭐가 돼요. 그저 답답하니까 만나는 거구. 만나면 어찌 어찌하다 한잔씩 하며 이야기나 하는 거죠 뭐."

"글쎄 그게 맹랑한 일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형님, 그런 친구들이라도 있다는 게 좋지 않  
수. 그게 시시한 친구들이라 해도. 정말이지 그놈들마  
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 뻔했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  
아요. 와팔이, 절름발이 그런 놈들. 무식한 놈들, 참  
시시한 놈들이지요. 죽다 남은 놈들. 그렇지만 형님,  
그놈들 다 착한 놈들이야요. 최소한 나를 속이지는 않  
거던요. 공갈을 때릴 망정. 하하하하 전우, 전우."

영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향해 후 담배 연기  
를 바라보며 한손으로 목의 넥타이를 앞으로 잡아당겨  
반쯤 끌러 늦추어 놓았다.

"가자!"

아랫목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영호는 슬그머니 아랫목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참이나  
그렇게 어머니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영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다.

철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앞에 놓인 등잔불이 거물  
거물 춤을 추었다. 철호는 저고리 호주머니에서 담배  
를 꺼내었다. 꼬기꼬기 구겨진 파랑새 갑속에서 담배  
를 한 개비 뽑아내었다. 바삭바삭 마른 담배는 양끝이  
반쯤 빠져 나갔다. 철호는 그 양끝을 비벼 말았다. 흡  
사 비과 모양으로 되었다. 철호는 그 비과 모양의 담  
배 한 끝을 입에다 물었다.

"이걸 피슈. 형님."

영호가 자기 앞에 놓였던 담배갑을 집어서 철호의 앞

으로 내어 밀었다. 빨간색 양담배 갑이었다. 철호는 그 여느 것보다 좀 긴 양담배 갑을 한 번 힐끔 쳐다 보았을 뿐, 아무 소리도 없이 등잔불로 입에 문 파랑새 끝을 가져갔다. 영호는 등잔불 위에 꾸부린 형 철호의 어깨를 던지시 바라보고 있었다. 지지지 소리가 났다. 앞 이마에 하트러져 내렸던 철호의 머리카락이 등잔불에 타며 또르르 말려 올랐다. 철호는 얼굴을 들었다. 한 모금 빨자 벌써 손끝이 따갑게 되어 꿈초가 되어버린 담배를 입에서 떼었다. 천천히 연기를 내뿜는 철호의 미간에는 세로 석 줄의 깊은 주름이 패어졌다. 영호는 들었던 담배갑을 도루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등잔불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의 입가에서 야릇한 웃음이 -애달픈 아니 그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그런 미소가 천천히 흘러 지나갔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가자!"

아랫방 아랫목에서 몸을 뒤채는 어머니가 잠꼬대를 했다. 어머니는 이제 꿈속에서마저 생활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아주 낮은 그 소리는 한숨처럼 느리게 아래 윗방에 가득 차 흘러 사라졌다.

여전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철호는 꿈초를 손 끝에 꼬집어 쥘 채 낮빠진 사람 모양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지켜보고 있었고, 동생 영호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철호의 손끝에서 타

고 있는 담배 궤초를 바라보고 있었고, 철호의 아내는 잠든 딸애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인 빨간 신발을 요리조리 매만지고 있었다.

"가자!"

또 한 번 어머니의 소리가 저 땅 밑에서 새어나오듯이 들려왔다.

"형님은 제가 이렇게 양담배를 피우는 게 못마땅하지요?"

영호는 반쯤 탄 담배를 자기의 눈앞에 가져다 그 빨간 불티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분에 맞지 않지."

철호는 여전히 등잔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형님, 형님은 파랑새와 양담배 두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슈?"

"……? 그야 양담배가 좋지. 그래서?"

그래서 너는 보리밥도 못 버는 녀석이 그래 좋은 것은 알아서 양담배를 피우는거냐 하는 철호의 눈초리가 번뜩 영호의 면상을 때렸다.

"그래서 전 양담배를 택했어요."

"뭐가?"

"형님은 절 오해하시고 계셔요."

"……?"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양담배를 사서 피우겠어요. 어쩌다 친구들이 사주는 것이니 피우는 거지요. 형님은



또 제가 거의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또 제법 합승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못마땅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형님은 때때로 이십오환 전차값도 없어서 종로서 근 십리를 집에까지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오시는 것을, 그렇지만 형님이 걸으신다고 해서, 한사코 같이 타고 가자는 친구들의 호의, 아니 그건 호의도 채 못되는 싱거운 수작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것을 굳이 뿌리치고 저마다 걸어야 할 아무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놈들이죠. 술, 담배는 사주고 합승은 태워줘도 돈은 안주거든요."

영호는 손 끝으로 뱅글뱅글 비벼 돌리는 담뱃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쨌든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려 줘야지. 벌써 군대에서 나온지도 이태나 되지 않니."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달 안으로는 어찌되든 간에 결판을 내구말 생각입니다."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이요? 형님처럼요? 전차값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주란 말이지요?"

"그럼 워 별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

어처구니 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라왔다. 철호는

비루 깡통으로 만든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꺾다.

"용기?"

"네. 용기."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 없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에 허수아비를 무서워 할 줄 조차 모르거든요."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새 콩초에다 불을 당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 던지고 흥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죠 뭐."

"벗어 던지고?"

"네,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

"너는, 너는....."

"....."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 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죽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그건 나이롱 뻥뜨

같은 것이죠. 입으나 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짝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 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 커녕 그놈이 상투 끝에 턱 올라 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거기 문턱 밑에 담배갑에서 새로 담배를 한 개 빼어 물고 지금까지 들고 있던 다 탄 콩다리에서 불을 옮겨 빨았다.

"가자!"

어머니의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어머니는 분명히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간간이 저렇게 가자, 가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찌면 어머니에게는 호흡처럼 생리학 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철호는 비스듬히 모로 앉은 동생 영호의 옆 얼굴을 한 참이나 노려보고 있었다. 영호는 영호대로 켜한 두 눈으로 깜박이기를 잊어 버린 채 아까부터 앞으로 뻗힌 자기의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철호는 영호

에게서 눈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아랫방과 윗방 사이 칸막이를 한 널쪽에 등을 기대며 모로 돌아앉았다. 희미한 등잔불빛에 잠든 딸애의 조그마한 얼굴이 애처로웠다. 그 어린것 옆에 앉은 철호의 아내는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손을 펴 깔고 턱을 괴었다. 아까부터 철호와 영호, 형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그네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쪽 손끝으로, 거기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은 빨간 어린애의 신발만 몇 번이고 쓸어 보고 있었다.

철호는 고개를 푹 떨구어 턱을 가슴에 묻었다. 영호는 새로 피워문 담배를 연거푸 서너 번 들이빨았다. 그리고 또 말을 계속하였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그렇지요, 깨끗이 사는데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루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고 많단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쑤시는 충치 하나 처치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버리거나 해야 할거 아니야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낫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죠. 이가 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 처럼, 마치 이 쑤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돈을

- 치료비를 버는 것이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을 혹 버는 셈이라고는 할 수도 있을 거야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데 못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 만치의 돈을 버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걸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대신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들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의 층에 속하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 뿐이지요. 언제까지나 충치가 쏘아 부은 볼을 싸 쥐고 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 형님! 인생이 저 골목안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어디. 돈 만치만 말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목구멍인가요 어디. 싫어도 살아야 하니까 문제지요. 사실이지 자살을 할만치 소중한 인생도 아니고요.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구요. 필요한 돈이니까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더 넓은 테두리, 법률선까지 못 나가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구 법률선  
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이 옹색한 양심  
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

영호는 얼굴을 번쩍 들며 반쯤 끌러놓았던 넥타이를  
마저 끌러서 방 구석에 픽 던졌다.

철호는 여전히 턱을 가슴에 폭 묻은 채 묵묵히 앉아  
두 짝 다 엄지발가락이 몽땅 밖으로 나온 뚫어진 양말  
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일론 양말을 한 켤레 사면  
반년은 무난히 뚫어지지 않고 견딘다는 말은 들었다.  
그러나 뻥히 알면서도 번번이 백 환짜리 무명양말을  
사들고 들어오는 철호였다. 칠백환이란 돈을 단번에  
잘라낼 여유가 도저히 없는 월급이었던 것이다.

"가자!"

어머니는 또 몸을 뒤채었다.

"그건 억설이야."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신문지를 바른 맞은편  
벽에, 쭈구리고 앉은 아내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비치  
있었다. 쫓추처럼 꼬부리고 앉은 아내의 그림자는 형  
클어진 머리카락이 괴물스러웠다. 철호는 눈을 감았다.  
머리마저 등 뒤 칸막이 반자에 기대었다.

철호의 감은 눈앞에 십여 년 전 아내가 흰 저고리 까  
만 치마를 입고 선히 나타났다. 무대의 나선 그녀는  
더욱 예뻐다. E여자대학 졸업음악회였다. 노래가 끝나

자 박수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날 저녁 같이 거리를 거닐던 그녀는 정말 싱싱하고 예뻐었다. 그러나 지금 철호 앞에 쭈그리고 앉은 아내는 그때의 그녀가 아니었다. 무슨 둔한 동물처럼 되어버린 그녀. 이제 아무런 희망도 가져보려고 하지 않는 아내. 철호는 가만히 눈을 떴다. 그래도 아내의 속눈썹만은 전처럼 까맣고 길었다.

"가자!"

철호는 흠칫 놀라 환상에서 깨어났다.

"억설이요? 그런지도 모르죠."

한참이나 잠잠하니 앉아 까물거리는 등잔불을 바라보던 영호의 맥빠진 대답이었다.

"네 말대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란 말밖에 더 되나 어디."

"아니죠. 제가 어디 나쁘고 좋고를 가렸어요. 나쁘긴 누가 나빠요? 왜 나빠요. 아, 잘 사는 게 나빠요? 도시 나쁘고 좋고부터 따질 아무런 금도 없지요 뭐."

"그렇지만 지금 네 말로는 잘 살자면 꼭 양심이고 윤리고 뭐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야."

"천만에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껏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다. 거기에 비해서 그 시시한 것들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역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역지란 말이다."

"글쎄요. 마음이 비틀렸다고요. 그건 아마 사실일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한강 철교를 폭파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 명숙이가 양공주가 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지요. 환도령이 내리기 전에 하다 못해 동대문 시장에 자리라도 한자리 비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구 이놈의 배태기에 지금도 무슨 내장이거나 한 것처럼 박혀 있는 파편이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제가 뭐 무슨 애국자나처럼 남들이 다 기피하는 군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자원하던 그 전에 말입니다."

"....."

".....그 보다는 더 전에 썩 전에 비틀렸어야 했을지 모르죠. 나면서부터 비틀렸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영호는 푹 고개를 떨구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후르르 떨고 있었다. 철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윗목에 앉아 있던 철호의 아내가 방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손끝으로 장난처럼 문지르고 있었다. 영호도 훌쩍훌쩍 코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아직 사람이

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  
"그래요. 사람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물고 뜯고 하는 마당에서 살자면, 생명만이라도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아요. 허허."

영호는 눈물이 글썽하니 고인 눈을 천장을 향해 쳐들며 자기 자신을 비웃듯이 허허 하고 웃었다.

"가자!"

또 어머니는 가자고 했다. 영호는 아랫목으로 눈을 돌렸다. 철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거렸다. 방안의 모든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집 전체가 그대로 기울거리는 것 같았다. 그것 뿐 조용했다. 밤이 꽤 깊은 모양이었다. 세상이 온통 잠들고 있었다.

저만치 골목 밖에서부터 딱 딱 딱 구둑발 소리가 뽀족하게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 왔다. 바로 아랫방 문 앞에서 멎었다. 영호는 문계로 얼굴을 돌렸다. 삐걱삐걱 두어 번 비틀리던 방문이 열렸다. 여동생 명숙이가 들어섰다. 싱싱한 몸매에 까만 투피스가 제법 어느 회사의 여사무원 같았다.

"늦었구나."

영호가 여전히 두 다리를 쪽 뺨고 앉은 채 고개만 뒤로 젖혀서 명숙을 쳐다보았다.

명숙은 영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돌아서서 문

밖에서 까만 하이힐을 집어 올려 아랫방 모서리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백을 획 방구석에 던졌다. 겨우 잊혀 고리와 스커트를 벗어 걸은 명숙은 아랫방 뒷구석에 가서 털썩하고 쓰러지듯 가로누워 버렸다. 그리고 거기 접어 놓은 담요를 끌어다머리 위에서부터 푹 뒤집어 썼다.

철호는 명숙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덤덤히 등잔불만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언젠가 퇴근하던 길에 전차 창문 밖으로 본 명숙의 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철호가 탄 전차가 을지로 입구 십사거리에 머물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붙들고 창을 향해 서 있던 철호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전차 바로 옆에 미군 지프차가 한 대 와 섰다. 순간 철호는 확 낮이 달아올랐다.

핸들을 쥔 미군 바로 옆자리에 색안경을 쓴 한국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명숙이었던 것이다. 바로 철호의 턱밑에서였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지프차 속에서 미군이 한 손을 핸들에 걸치고 또 한팔로 명숙의 허리를 낚지시 끌어 안는 것이었다. 미군이 명숙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수작을 걸었다. 명숙은 다리를 꺾치고 앉은 채 앞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고개를 까딱거렸다. 그 미군 지프차 저편에 선 택시 조수가 명숙이와 미군을 쳐다 보며 피시시 웃었다. 전

차 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호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청년 둘이 쑥덕거렸다.

"그래도 멋은 부렸네."

"뭣? 그래 색안경을 썼으니 말이지?"

"장사치곤 고급이지, 밀천 없이."

"저것도 시집을 갈까?"

"흥"

철호는 손잡이를 놓았다. 그리고 반대편 가운데 문쪽으로 가서 돌아서고 말했다. 그것은 분명히 슬픈 감정만은 아니었다. 뭐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숏덩어리 같은 것이 짝 목구멍을 치밀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하품을 하고 난 뒤처럼 콧속이 싸하니 쓰리면서 눈물이 징 솟아올랐다. 철호는 앞에 있는 커다란 유리를 콧 머리로 받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어금니를 짝 맞췄다. 찌르르 벨이 울렸다. 덩커덩 전차가 움직였다. 철호는 문쪽에 어깨를 가져다 기대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날부터 철호는 정말 한 마디도 누이동생 명숙이와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명숙이도 철호를 본체만체했다.

"자, 우리도 이제 잡시다."

영호가 가슴을 펴서 내어밀며 바로 앉았다.

등잔불을 끄고 두 방 사이의 문을 닫았다.

푹 가라앉는 것같이 피곤했다. 그러면서도 철호는 정작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밤은 고요했다. 시간이 그

대로 흐르기를 멈추어 버린 것같이 조용했다. 철호의 아내도 이제 잠이 들었나보다. 앓는 소리를 내었다. 철호는 눈을 감았다. 어딘가 아득히 먼 것을 느끼고 있었다. 철호도 잠이 들어가고 있었다.

"가자!"

다들 잠든 밤의 어머니의 그 소리는 영동하게 컸다. 철호는 흠칠 눈을 떴다. 차츰 눈이 어둠에 익어갔다. 며칠인가, 문틈으로 새어 들은 달빛이 철호의 옆에서 잠든 딸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죽 파란 줄을 그었다. 철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길게 한숨을 쉬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가자!"

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철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도 마저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랫방에서 명숙이가 눈을 떴다. 아랫목에 어머니와 윗목에 오빠 영호 사이에 누운 명숙은 어둠 속에 가만히 손을 내어밀었다. 어머니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뼈위에 겨우 가죽만이 씌워진 손이었다. 그 어머니의 손에서는 체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축축히 습기가 미끈거렸다. 명숙은 어머니 쪽을 향하여 돌아 누웠다. 한쪽 손을 마저 내밀어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송장 같은 손을 감싸 쥐었다.

"가자!"

딸의 손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어머니는 또 한 번

허공을 향해 가자고 소리 질렀다.

"엄마!"

명숙의 낮은 소리였다. 명숙은 두 손으로 감싸 쥐어 어머니의 여윈 손을 가만히 흔들었다.

"가자!"

"엄마!"

기어이 명숙은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명숙은 어머니의 손을 끌어다 자기의 입에 틀어막았다.

"엄마!"

숨을 죽여가며 참는 명숙의 울음은 한숨으로 바뀌며 어머니의 손가락을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어보는 것이었다.

"겁내지 마라."

옆에서 영호가 잠꼬대를 했다.

"가자!"

어머니는 명숙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빼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누워버렸다.

명숙은 다시 담요를 끌어다 머리 위까지 푹 썼다. 그리고 담요 속에서 흐득흐득 울고 있었다.

"엄마."

이번엔 뒷방에서 어린 것이 엄마를 불렀다.

철호는 잠속에서 멀리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채 잠이 깨어지지 않는았다.

"엄마."

어린 것은 또 한 번 엄마를 불렀다.

"오 오, 왜 엄마 여기 있어."

아내의 반쯤 깬 소리였다. 어린 것을 끌어다 안는 모양이었다. 철호는 그 소리를 멀리 들으며 다시 굳히 잠들어버렸다.

"오줌."

"오, 오줌 누겠니. 자 일어나. 착하지."

철호의 아내는 일어나 앉으며 어린 것을 안아 일으켰다. 구석에서 깡통을 끌어다 대어 주었다.

"참, 삼촌이 네 신발 사왔지. 아주 예쁜데. 볼래"

깡통을 타고 앉은 어린 것을 뒤에서 안아주고 있던 철호의 아내는 한 손으로 어린 것의 베개맡에 놓아두었던 신발을 집어다 보여주었다. 희미하게 달빛이 들어 비쳤을 뿐인 어두운 방안에서는 그것은 그저 겨우 모양뿐 색채를 잃고 있었다.

"내꺼야? 엄마."

"그래. 네꺼야."

"예빠?"

"참 예빠. 빨강이야."

"응……."

어린 것은 잠에 취한 소리로 물으며 신발을 두 손에 받아 가슴에 안았다.

"자 이제 거기 놔두고 자야지."

"응, 널 신어도 돼?"

"그럼."

어린 것은 오물오물 담요 속을 파고 들어갔다.

"엄마. 널 신어도 돼?"

"그럼."

어린 것은 오물오물 담요 속을 파고 들어갔다.

"엄마. 널 신어도 돼?"

"그럼."

뭐든가 좀 좋은 것은 아껴야 한다고만 들어오던 어린 것은 또 한 번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어린 것의 담요 가장자리를 꼭 꼭 눌러주고 나서 그 옆에 누웠다.

다들 다시 잠이 들었다. 어느 사이에 달빛이 비껴서 칼날 같은 빛을 철호의 가슴으로 옮겼다. 어린 것이 부시시 머리를 들었다. 배를 깔고 엎드렸다. 어린 것은 조그마한 손을 베개 너머로 내밀었다. 거기 가지런히 놓아둔 신발을 만져보았다. 어린 것은 안심한 듯이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웠다. 또 다시 조용해졌다. 한참만에 또 어린 것이 움직거렸다. 잠이 든 줄만 알았던 어린 것은 또 엎드렸다. 머리맡에 신발을 또 끌어당겼다. 조그마한 손가락으로 신발 코를 꼭 눌러보았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주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신발을 무릎 위에 들어 올려놓았다. 달빛에다 신발을 들이대어 보았다. 바닥을 뒤집어 보았다. 두 짝을 하나씩 두 손에 갈라들고 고무 바닥을 맞대어 보았다. 이번엔 발



을 앞으로 내놓았다. 가만히 신발을 가져다 신었다. 앉은 채로 꼭 방바닥을 디디어 보았다.

"가자!"

어린 것은 깜짝 놀랐다. 얼른 신발을 벗었다. 있던 자리에 도로 모아 놓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신발을 바라보고 난 어린 것은 살그머니 누웠다. 오물오물 담요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점심을 못 먹은 배는 오후 두 시에서 세 시 사이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철호는 펜을 장부 위에 놓았다. 저쪽 구석에 돌아앉은 사환애를 바라보았다. 보리차라도 한 잔 더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두 잔까지는 사환애를 시켜서 가져오랄 수 있었으나 세 번까지는 부르기가 좀 미안했다. 철호는 걸상을 뒤로 밀고 일어섰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찻잔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나갔다. 복도의 풍로 위에서 커다란 주전자가 끓고 있었다. 보리차를 찻잔 하나 가득히 부었다.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철호는 뜨거운 찻잔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들고 조심조심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후 불었다. 마약한 모금 들이마시는 때였다.

"송 선생님, 전화입니다."

사환애가 책상 앞에 와 알렸다. 철호는 얼른 찻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과장 책상 앞으로 갔

다. 수화기를 들었다.

"네, 송철호올시다. 네? 경찰서요?……전 송철호라는 사람인데요? 네? 송영호요? 네 바로 제 동생입니다. 무슨?……네? 네? 송영호가요? 제 동생이 말입니까? 곧 가겠습니다. 네, 네."

철호는 수화기를 걸었다. 그리고 걸어놓은 수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보고서 있었다. 사무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철호에게로 쏠렸다.

"무슨 일인가. 동생이 교통사고라도?"

서류를 뒤적이던 과장이 앞에 서 있는 철호를 쳐다보며 물었다.

"네? 네, 저 과장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철호는 마시던 보리차를 그대로 남겨둔 채 사무실을 나섰다.

영문을 모르는 동료들이 서로 옆의 사람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었다.

철호는 전에도 몇 번 경찰서의 호출을 받은 일이 있었다.

양공주 노릇을 하는 누이동생 명숙이가 걸려 들면 그 신원보증을 해야 하는 철호였다. 그때마다 철호는 치안관 앞에서 낯을 못들고 앉았다가 순경이 앞세우고 나온 명숙을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경찰서 뒷문을 나서곤 하였다. 그럴 때면 철호는 울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이 정말 밋고 원망스러웠다. 철호는 명숙을 한 번 돌아다보는 일도 없이 전차 길을 따라 사무실로 걸었고, 또 명숙은 명숙이대로 적당한 곳에서 마치 낮도 모르는 사람처럼 땀 길로 떨어져 가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남동생 영호의 건이라고 했다. 며칠전 밤에 취해서 지껄이던 영호의 말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불안했다. 그런들 설마하고 마음을 다시 먹으며 철호는 경찰서 문을 들어섰다.

권총 강도.

형사에게도 동생 영호의 사건 내용을 들은 철호는 앞에 앉은 형사의 얼굴을 바보 모양 멍청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점점 핏기가 가셔가는 철호의 얼굴은 표정을 잃은 채 굳어가고 있었다.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줄 돈 천오백만 환을 찾아서 은행 앞에 대기시켰던 지프차에 싣고 마약 떠나려고 하는데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색안경을 낀 괴한 두 명이 차 속으로 올라오며 권총을 내어들더라는 것이었다.

“겁내지 말라! 차를 우이동으로 돌리라.”

운전수 또 한 명 회사원은 차가운 권총 구멍을 등에 느끼며 우이동까지 갔다고 한다. 어느 으스스한 숲 속에서 차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는 둘이 다 차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 괴한들이 대신 운전대로 옮겨 앉더라는 한다. 운전수와 회사원은 거기 버려 둔 채 차는 전 속력으로 다시 시내로 향해 달렸단다. 그러나 지프차는 미아리도 채 못 와서 경찰에 붙들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차 안에는 괴한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한다.

형사가 동생을 면회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철호는 그저 얼이 빠져서 두 무릎 위에 맥없이 손을 올려놓고 앉은 채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이윽고 형사실 뒷문이 열리더니 거기 영호가 나타났다.

“이리로 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배 앞에다 모으고 천천히 형사의 책상 앞으로 걸어나오는 영호는 거기 걸상에 앉았다. 일어서는 철호를 향하여 약간 머리를 끄덕여 보았다. 동생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고서 있는 철호의 여윈 볼이 허물허물 움직였다. 괴로울 때의 버릇으로 어금니를 짹짹 씹고 있는 것이었다.

형사는 앞에 와서 선 영호에게 눈으로 철호를 가리켰다.

“형님 미안합니다. 인정선(人情線)에서 걸렸어요. 법률선까지는 무난히 뛰어넘었는데. 쏘아 보렸어야 하는 건데.”

영호는 철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옆으로 비스듬히 얼굴을 떨구며 수갑을 채운 오른손 엄지를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때처럼 까붙여서 지그시 당겨 보는 것이었다.

철호는 눈도 깜박하지 않고 그저 영호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내린 이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가세요, 형님."

영호는, 등신처럼 서 있는 형이 도리어 민망한 듯이 조용히 말했다.

"수감해."

형사가 문간에 지키고 서 있는 순경을 돌아보았다.

영호는 그에게로 오는 순경을 향해 마주 걸어갔다. 영호는 뒷문으로 끌려나가다 말고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 보았다.

"형님. 어린 것 화신 구경이나 한 번 시키세요. 제가 약속했었는데."

뒷문이 광 달렸다. 철호는 여전히 영호가 사라진 뒷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눈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쏟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조사를 한옆으로 밀어놓으며 형사가 중얼거렸다. 철호는 거기 걸상에 가만히 걸터앉았다.

"혹시 그와 같이 한 청년을 모르시나요?"

철호의 귀에는 형사의 말소리가 아주 멀었다.

"끝내 혼자서 했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증인이 있으니

까 이제 차츰 사실대로 자백하겠지만."

여전히 철호는 말이 없었다.

경찰서를 나온 철호는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술취한 사람 모양 허청거리는 다리로 자기 집이 있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철호는 골목길 어귀에 들어 섰다.

"가자!"

철호는 거기 멈춰 섰다.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하고 숨을 크게 내쉬는 철호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코 속으로 흘러서 찝찝하니 목구멍을 넘어갔다.

"가자, 가자. 어딜 가잔거야? 도대체 어딜 가잔 거야?"

철호는 짹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거기 처마 밑에 모여 앉아서 소꿉질을 하던 어린애들이 부시시 일어서며 그를 쳐다보았다 철호는 그 앞을 모른체 지나쳐버렸다.

"오빠 어딜 그렇게 돌아다뉴?"

철호가 아랫방에 들어서자 윗방 구석에서 고리짝을 열어놓고 뒤지고 있던 명숙이가 역한 소리를 했다. 윗방에는 녀마 같은 옷가지들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딸애는 고리짝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명숙이가 뒤져 내놓는 헌 옷들을 무슨 진귀한 것이나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철호는 아내가 어딜 갔느냐고 물어보려다 말

고 그대로 윗방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명숙은 여전히 고리짜를 들추며 돌아앉은 채 말했다.

"병원엘?"

"그래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어린애가 걸렸어요."

"뭐가?"

철호는 눈앞이 아찔했다.

점심 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영 해산을 못하고 애를 쫓단다. 그런데 죽을 악을 쓰다 보니까 어린애의 머리가 아니라 팔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래 병원으로 실어갔는데, 철호네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나가고 없더라는 것이었다.

"지금 짬은 아마 애기를 낳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

명숙은 흰 헝겊들을 골라 개켜서 한 옆으로 젖혀놓으며 말했다. 아마 어린애의 기저귀를 고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좀전에 아찔했던 정신이 사르르 풀리며 온몸의 맥이 쏙 빠져나갔다. 철호는 오래 간만에 머릿속이 깨끗이 개이는 것을 느꼈다.

말라리아를 앓고 난 다음날처럼 맥은 하나도 없으면서 머리는 비상히 깨끗했다. 뭐 놀랄 일이 있느냐 하는 심정이 되었다. 마치 회사에서 무슨 사무를 한 뭉텅이

말했을 때와 같은 심사였다. 철호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언제나 새로 사무를 맡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버릇이었다. 철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어딜 가슈?"

명숙이가 돌아보았다.

"병원에."

"무슨 병원인지도 모르면서."

철호는 참 그렇다고 생각했다.

"S병원이야요."

"....."

철호는 슬그머니 문밖으로 한 발을 내디디었다.

"돈을 가지고 가야지 뭐."

".....돈."

철호는 다시 문안으로 들어섰다. 우두커니 발부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명숙이가 일어섰다.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벽에 걸어놓았던 핸드백을 열었다.

"옛수."

백 환짜리 한 다발이 철호 앞 방바닥에 던져졌다. 명숙은 다시 돌아서서 백을 챙기고 있었다. 철호는 명숙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철호의 눈이 명숙의 발 뒤축에 머물렀다. 나일론 양말이 계란만치 구멍이 뚫렸다. 철호는 명숙의 그 구멍 뚫린 양말 뒤축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참



으로 오래간만에 철호는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꼈다.

"가자."

어머니가 또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철호는 눈을 발밑에 돈다발로 떨구었다. 허리를 꾸부렸다. 연기가 든 때처럼 두 눈이 싸하니 쓰렸다.

"아버지 병원에 가? 엄마 애기 낳어?"

"그래."

철호는 돈을 저고리 호주머니에 구겨 넣으며 문을 나섰다.

"가자."

골목을 빠져나가는 철호의 등뒤에서 또 한 번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 왔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철호는 간호원보다도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병원의 긴 복도를 휘청휘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무엇인가 큰일이 한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어졌다는 생각만으로 철호는 거기 병원 현관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윽고 병원의 큰 문을 나선 철호는 전차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었다. 자전거가 휙 그의 팔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멈춰 섰다. 자기도 모르게 그는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여섯 시도 더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제 사무실로 가야 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전차 길을 건넜다. 또 한참 걸었다. 그는 또 멈춰 섰다. 또 걸었다. 그저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지는 생각도 아니면서 그의 발길은 자동기계처럼 남대문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가에 늘어선 이런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 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철호는 또 우뚝 섰다. 그는 거기 눈앞에 걸린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기판만한 판에 빨간 페인트로 치과라고 써 있었다. 철호는 갑자기 자기 이가 썩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아니 벌써 전부터 훌쩍훌쩍 썩는 충치가 갑자기 아파왔다. 양쪽 어금니가 아래위 다 썩었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썩는 것인지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철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만 환 다발이 만져졌다.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이층으로 올라갔다. 치과 걸상에 머리를 젖히고 입을 아 벌리고 앉았다. 의사는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내며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쇠꼬치를 그의 입에 넣었다 꺼냈다 하였다. 철호는

매시근하니 잠이 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좀 아팠지요? 뿌리가 꾸부러져서."

의사가 집게에 뽑아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속이 시꺼멓게 썩은 징그러운 이 뿌리에 빨간 살점이 묻어 나왔다. 철호는 솜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보았다.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됐습니다. 한 삼십 분 후에 솜을 빼버리슈. 피가 좀 나올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 주시오."

철호는 옆의 타구에 침을 뱉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보았다.

"어금니를 한 번에 두 개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또 빼지요."

"다 빼주십시오. 한뭇에 몽땅 다 빼 주십시오."

"안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한 개씩 빼야지요."

"치료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마약 쏘시는 걸요."

"그래도 안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하는 수 없었다.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 또 걸었다. 잇몸이 멍하니 아픈 것같기도 하고 또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손으로 볼을 쓸어보았다.

그렇게 얼마를 걷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하였다. 역시 이층이었다.

"안될텐데요."

거기 의사도 꺼렸다. 철호는 괜찮다고 우겼다. 한쪽 어금니를 마저 빼었다. 이번에는 두 볼에다 다 밤알 만 큼씩한 솜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짹짹했다. 간간이 길가에 나서서 피를 뺐었다. 그때마다 시빨건 선지피가 간 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남대문을 오른 쪽에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 번 떨렸다. 머리가 횡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에 번쩍하고 거리에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 번 환해졌다. 다음 순간에는 어찌된 셈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거리가 어두워졌다. 철호는 눈을 한 번 꼭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한가지였다. 이걸 뺏속이 비어서 그렇다고 철호는 생각했다.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령탕 생각이났다. 입안에 군침이 하나가득히 고였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뺐었다. 그런데 그것은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한번 오한이 전신을 간질이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떠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설령탕."

무슨 약 이름이거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 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렸다. 또 입안으로 하나 짹짹한 물이 고였다. 철호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밖으로 급히 걸어 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입안엿 것을 뱉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핀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 전 쭈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서 호응이나 하듯이 관자놀이가 또 쭈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서 호응이나 하듯이 관자놀이가 또 쭈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 했다. 그는 다시 큰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가 한 대 왔다. 그는 손을 한 번 흔들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사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사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쥐었다. 운전사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마악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사는 다시 획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사 옆에 앉아 있는 조수 애가 한 번 철호를 돌아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 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에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버렸다.

"아니야. 가."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 애가 뒤로 모을 틀어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세 가."

"허 참 딱한 아저씨네."

"....."

"취했나?"

운전사가 힐끔 조수 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같은 소년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  
게."

운전사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  
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  
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저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철호는 또한번 꺾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  
하며 푹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 네 거리에 다다랐다. 앞의 교통신호대에 빨간 불  
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한번 조수 애가 뒤를 돌아보

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의 입에서 흘러 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 신호대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네 거리를 지나갔다.